현대불교

행복 만들기 캠페인
부처인 당신을 공경합니다

제 743 호 구독신청 02)2004-8200 Buddhanews.com 불기 2553년 8월 5일(음력 6월 15일) 수요일(주간)

사람 한류스타 안재욱

절밥 먹으며 팬♥ 포에버

"어느 곳에 있어도 다른 삶을 살아도/ 언제나 나에게 위로가 되준 너/ 내 삶이 하나 듯 친구도 하나야." 힘들고 지칠 때 기댈 곳은 '친구'라고 노래하던 한류스타 안재욱이 팬들과 함께 인제 백담사를 찾았다.





반갑게 인사하는 안재욱과 백담사 템플스테이 진행자 대현 스님(왼쪽), 국내외 팬들에게 비빔밥을 설명하는 안재욱.

팬들과 백담사 방문 "고찰서 행사 좋네요"

'별은 내 가슴에'에서 오른손 검지 하나로 90년대 후반 한국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주인공 안재욱과 그의 팬클럽 '포에버(Forever)'는 백담사 인근의 미리내 캠프에서 2박3일간의 팬미팅(제13회 Forever Summer Camp)을 열고 일정의 마지막으로 백담사에서 회향 모임을 가졌다.

셔틀버스가 설악산을 오르는 동안 일본팬들은 창밖으로 펼쳐진 절경에 '아 스고이(멋져요)'하며 감탄사를 연발했다. 7월 27일 오전 11시경 백담사에 도착한 한류스타 안재욱과 한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에서 온 460여 팬들을 절 식구들이 반갑게 맞았다.

백담사 템플스테이 팀장 진묵 스님은 "다양한 국적의 팬들께 우리 전통문화를 알릴 수 있어서 참 보람차고 기쁘다"고 말했다.

점심공양 시간이 되자 안재욱씨가 팬들에게 비빔밥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입을 크게 벌려가며 자세하게 몸짓을 이용해 말하는 모습이 구연동화를 하는 유치원선생님 같았다.

"우리가 조금 이따가 먹는 비빔밥은 밥에 나물 넣고 고추장 넣고 잘 비비는 거예요. 찬이 많으니까 먹을 때 흘리면 안 돼요."

그의 친절함과 유머에 팬들은 즐거워했다.

팬들에게 비빔밥을 일일이 떠주던 안재욱씨는 "매번 실내에서 행사를 하다가 경치 좋은 명찰에서 팬들과 만나니 새롭다"며 "내년에도 우리 문화유산과 연계한 팬 미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욱씨와 강원도의 인연은 깊다. 그의 아버지 고향이 횡성이며, 아직도 친지들이 그곳을 지키고 있다. 2004년부터 '강원도 홍보대사로' 선정돼 2005년 양양 산불 이재민을 위해 1000만원의 성금을 쾌척했고, 작년 팬미팅도 인제에서 개최했다. 강원도 홍보대사 뿐 아니라 해외팬들에게 우리문화와 전통사찰을 알리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안재욱씨의 다음 행보가 기대된다. **박선주 기자**

교육개혁 열쇠는 '인성교육'

한마음과학원, 김상곤 경기교육감 초청 간담회… '한나무 인성교육…' 등 소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앞줄 왼쪽 두 번째)이 7월 25일 한마음과학원을 찾아 김용환 한마음과학원 기획조정실장(앞줄 왼쪽 세 번째) 등 한마음과학원 관계자로부터 '한나무 인성교육프로그램'에 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최근 일부 10대들이 사이버 공간에 만든 '엄마 안티 카페(cafe.naver.com/mom***)'가 알려지면서 국민이 충격에 휩싸였다.

"우릴 괴롭히는 부모라는 그들을 항상 따르고만 있어야 하는 건가. 그들을 증오하는 자여, 이리로 오라." "자식을 상처 입혀 괴롭히는 부모가 부모인가. 우린 너희들 노예가 아니야. 000들아." 등 부모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과 욕설로 도배된 카페는 지금은 성난 네티즌들의 공격으로 폐쇄된 상태.

기성세대를 중심으로 뒤늦게 이 사건을 접한 이들은 대부분 씁쓸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문제의 카페가 2007년부터 운영돼 왔다는 사실에는 모두가 망연자실하는 모습이다.

무엇이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만들고 있을까? 아이들을 바르고 곧게 키울 수는 없을까?

교육전문가들은 "인성교육만이 아이들을 곧게 키우고, 사회를 바로 세울 대안"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마음선원 산하 한마음과학원(이하 과학원)은 7월 25일 국제회의실에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경기지역 첫 민선 교육감인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해 김용환 한마음과학원 기획조정실장, 서울 모 초교 원정숙 교사, 서울 모 고교 홍은화 교사 등 한마음과학원 인성교육연구회 및 교육분과 회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교사들은 초·중·고교 등 공교육현장에서 과학원이 개발한 '한나무 인성교육프로그램'으로 다년간 인성교육을 실천해왔다. 이들이 사례를 통해 전하는 교육현장의 현실과 인성교육 효과에, 참석자들은 모두 '마음'을 바탕으로 한 심성교육의 우수성과 필요성을 절감했다.

특히 김상곤 교육감은 "도의회에서 (무상급식 등 공약이 무산되면서) 들도 보도 못했던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괴로웠다. '한나무 인성교육프로그램'을 미리 알았다면 부정적인 감정을 용광로에 던져 녹여버리고 쉽게 안정을 찾았을 것"이라고 말해 좌중을 웃음바다로 만들기도 했다.

한국에서 인성교육에 대한 관심은 청소년의 인성파탄에 대한 우려가 커지던 1990년대 중반 시작됐다. 이후 2000년대 들어 탐방, 역할극, 토론 등 다양한 형태로 여러 교육현장에서 시도돼 왔다. 하지만 초기의 인성교육은 속효성에 집중하면서 유교적인 정직, 질서, 준법 등을 강요했다. 그때 각인된 '인성교육=예절교육'이라는 등식은 지금까지도 '인성교육은 고리타분한 교육, 할아버지 잔소리 같은 뻔한 이야기'로 남아 인성교육의 장애가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과학원이 2004년 개발을 시작한 '한나무 인성교육프로그램'은 학생이 교사로부터 가르침을 받던 일방적인 소통에서 과감히 탈피해, 교사와 학생이 함께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밝혀나가는 과정으로 이뤄졌다.

교사와 학생의 소통은 '한나무 인성교육프로그램' 홈페이지(hannamu.org)에서 다시 교사와 교사간, 학생과 학생간의 소통으로 확장됐다. 홈페이지는 A와 B학교 구성원들이 '마음'을 주제로 한 자리에 모인 인드라망인 셈이다.

초등인성교육과 중등인성교육으로 나뉜 프로그램은 무엇보다 태도교육이 아닌 마음에 대한 치유, 마음의 계발이 최대의 장점이다.

정여순 교사는 "산만했던 아이들이 매일 10분의 마음공부로 크게 바뀌었다"며 "가끔 명상을 안하고 지나갈 때는 아이들이 먼저 하자고 말할 정도로 반응이 좋다"고 설명했다.

김상곤 교육감은 "핵심공약인 혁신학교 건립·운영에 인성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경기도 교육청 차원에서 한나무 인성교육프로그램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무 인성교육프로그램'을 도입 검토중인 경기교육청의 움직임이 타지역 교육청에도 씨앗으로 전해져 우리 사회에 공생(共生)의 나무를 움 틔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관련기사 7면

조동섭 기자

社告 정법 잣대로 한국불교 재보자

정법불교 모색하는 지리산 야단법석
8월 14~18일 실상사 일원에서 개최

초기·대승·선·현대불교가 하나로 관통되는 불교관을 확립하고 이론과 실천 수행과 생활이 통일되는 수행론을 형성해 현대문명의 문제에 응답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동참을 바랍니다.
야단법석은 법사스님의 강의와 각본도 연출도 없는 허심탄회한 토론으로 진행됩니다.


무비 스님 움직이는 선원 조실


혜국 스님 전국선원수좌 대표


향봉 스님 움직이는 선원 열중


도법 스님 움직이는 선원 열중

참가 신청·문의
-실상사 종무소: 063-636-3031·3191
-입금계좌:513160-51-024632(농협, 예금주:실상사)

주최:민족성지 지리산을 위한 불교연대·주관:실상사·후원: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Hot


의정 스님 14선지식


능화 스님 19문화


박삼구 08불자들

법구경
수행자여, 그대는 니르바나
저 영원의 길을 향하여
부지런히 묵묵히 나아가라.

현대불교e장터 HyunbulShop.com 문의전화 02)2004-8215~6


신상품 LED인등 LED전구
찬덕 031)792-6288
연등 031)794-4055


02)3672-7181~5
불교서적총판
운 주 사

<PR> 불경금책 소장용으로 인기리에 보급중!!!

복장의식 및 소장용으로 휴대가 가능하며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맞춤식 주문제작이 가능합니다
실물크기(3.5×5cm) 금강경 23매
용도:상량식, 봉사 복장의식, 영가천도
문의 02)722-1850

문젠 명상 센터
선/명상/요가
임산부 요가
02-956-2460


열대과일 두리안 전문
황다원
보이茶, 각종 茶器 생활 도자기
031)882-1357
전국 직접 배송



죽비와 목탁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일반언론OK, 교계언론NO?

미디어법 통과를 두고 나라가 시끄럽다.

진보 진영을 비롯한 다수 국민들은 정부여당이 통과시킨 미디어법의 본질이 언론 장악에 있다고 말한다.

정권이 언론을 좌지우지하려 한 것이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니었다. 1980년 전두환 사령관 등 신군부는 '언론통폐합조치'를 내놓았다. 2007년 5월 22일 노무현 정부가 발표한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도 있었다.

'언론통폐합조치'는 온갖 미사여구로 치장된 결의문과 함께 언론계의 자율적 정화의 형식을 갖췄다.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은 '출입기자단'을 표적으로 삼았다. 양비론을 들어 피해자(?)측의 책임을 묻자면, 어떤 형태로든 언론이 빌미를 제공해 자초한 화였을 것이라는 유추도 가능하다.

문제는 '출입기자단'의 횡포가 2009년 불교 1번지 조계사 내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얼마 전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에서 발송된 이메일에는 "하안거 해제 취재지원을 해줄 수 없으니 양해를 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조계종을 출입하는 일간지 기자단에서 "불교계 기자들과는 간담회 등 일체의 취재활동을 함께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웠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몇몇 교계 기자들이 반발하자 총무원 측은 "하안거 결제는 교계를 중심으로 지원했으니, 해제는 일간지에 지원하는 것 뿐"이라고 해명했고, 결국 교계 언론사들은 하안거 해제 취재지원을 받지 못했다.

취재지원을 하고 않고는 취재원의 자유다. 하지만 그 자유가 외압(?)에 의해서, 그것도 다른 일반 언론사들에 의한 것이기에 문제가 된다.

교계 각 언론사들은 안거마다 선지식의 법어와 입제, 해제 등을 불자들에게 알려왔다. 안거가 선방에서만 이뤄지지 않을 뿐더러, 방부들인 스님들만 안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교계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 누구보다 큰 애정을 갖고 '죽비와 목탁'이 되어 세상에 알려온 교계 언론사들 아니었던가?

양측 기자단과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고자 고민했을 총무원 측의 고충은 십분 이해한다. 하지만 "앞으로도 취재를 (양측에) 교차 지원하겠다"는 태도는 같은 절집안 대중을 소홀히 대하는 역차별에 가깝다.

덧붙여, 일간지 기자단은 독단의 원칙을 허물고 상생으로 회심(回心)해 불교언론에 예의를 다하기 바란다.

현대불교로 최상의 공양 法보시를…

부처님께서는 경전을 바르게 설하고 설명하고 고찰하며 바른 법을 온전히 지키는 법공양(法供養)이 가장 수승한 공양이라 하셨습니다. 한 장의 '현대불교'를 이웃과 어려운 이들에게 법보시하는 것은 다함께 깨닫는 세상을 만드는 형상 없는 불사(佛事)가 될 것입니다.

▶ 법보시 대상
군법당, 병원, 교도소, 각급 학교 및 공공 도서관, 관공서

▶ 법보시 후원 안내
법보시는 1구좌 1000원이상
월 구독료는 5000원
계좌 : 국민은행 038-25-0008-365(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문의 (02)2004-8200

"대천세계 다니며 참구하라"

8월 5일 하안거 해제… 2237명 용맹정진

8월 5일은 한여름 더위보다 뜨겁게 전국 도량을 달군 용맹정진의 정력(定力)이 대중에 회향되는 하안거 해제일이다.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가 전국 선원의 정진대중 현황을 정리한 <기축년 하안거 선사방함록>에 의하면, 이번 하안거 동안 조계종에서만 95개 선원(총림 4곳, 비구선원 55곳, 비구니선원 36곳)에서 2237명(비구 1127명, 비구니 933명, 총림 177명)의 대중이 용맹정진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은 8월 5일 불기 2553년 하안거 해제일을 맞아 법어를 내리고 지속적인 정진을 당부했다.

법전 스님은 법어에서 한 납자(衲子)가 대수 선사와 용제 선사를 찾아 다니며 나눈 선답(禪答)을 예로 들었다.

스님은 "물고기가 헤엄치면 흙탕물이 일어나고 새가 날면 깃털이 떨어지기 마련"이라며 "안목이 열리지 않은 사람에게는 무너진다고 해도 장애가 되고 무너지지 않는다고 해도 장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전 스님은 "납자(衲子)와 대수, 용제 선사가 나눈 '겁화(劫火)' 공안에 대해 무감각해서도 안 되고 정식(情識)으로 알려고 해서도 안 된다"며 "무너졌다고 해도 틀렸고 무너지지 않았다고 해도 틀린 이 공안에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 것인지 해제 만행길에 대천세계를 다니며 항상 참구하라"고 당부했다.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원명 스님도 기축년 하안거 해제법어를 발표했다. 스님은 법어에서 "오늘은 제대로 해야지 하면서 하루가 다하고 나면 후회하면서, 내일은 반드시 오늘 못한 것을 성취하리라고 기약하다가 이 자리에 이르렀다"며 "우리는 스스로 위안하기를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하나 두 무릎을 치면서 왜 이렇게 늦었는고? 하면서 대성통곡을 해 봐야 한다" 강조했다.

스님은 "어느 때 어느 곳에서든 그 근본을 찾아 깨닫는데 주력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며, 사명"이라며 "모두들 마음속 깊이 새겨서 정진하고 정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법어 전문은 붓다뉴스에

조동섭 기자

조계종 유지재단 수익사업 '가능'

정관 문광부 승인… 불교사업 기반 갖춰

조계종 중앙종무기관의 재산을 관리하는 조계종 유지재단(이사장 지관)이 최근 정관 변경을 통해 수익사업이 가능하게 됐다.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는 "불교문화 홍포 등 재단 고유의 목적사업 경비 조달을 위한 수익사업을 전개하고자 변경된 정관을 7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승인했다"고 밝혔다.

정관 변경에 따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과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 등 유지재단 소유시설에서의 합법적인 수익사업이 가능해졌다.

정관은 제4조 2항에 '목적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의결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는 항목을 새로 넣었다. 또 수익사업의 종류로 국제포교활동과 포교·교육 사업을 추가했고(제4조 1항), 제18조에도 사업수입을 명시했다.

총무부 관계자는 "이번 정관 변경으로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등에서 불교용품 및 템플스테이 테마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비롯해 사찰음식점 운영 등을 통해 불교 관련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갖춰졌다"며 "수익사업을 통해 모아진 수익으로 향후 종단 재정이 보다 튼실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유지재단은 정관 변경에 이어 운영규정 제정, 사업자등록 등 후속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조동섭 기자

'우란분재'가 궁금하다면?

조계종 포교원 '우란분재' 출간

음력 7월 15일(백중)이면 하안거 해제와 동시에 전국의 사찰에서는 우란분재를 봉행한다. 우란분재는 어디서 유래했고 어떤 공덕이 있을까? 백중의 유래는 무엇일까?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실장 동성)은 최근 <우란분재>(조계종출판사 刊)를 출간해, 이런 의문들에 해답을 제시했다.

<목련경> 등에 따르면, 우란분재는 부처님 재세 시 목련존자에 의해 시작됐다. 백중은 하안거를 마치며, 자신의 허물을 대중에게 고백하는 날이라고 해 백중(伯衆)이라 불린 것을 비롯해, 백종(白踵) 백종(百種) 중원(中元) 망혼일(亡魂日) 등으로 알려져 왔다.

이 외에도 포교연구실은 <선생경> <범망경> <심밀해탈경> 등 전거를 들어 불교의 효사상을 설명했다.

포교연구실장 동성 스님은 "전래의 세시풍속과 불교적 풍속이 습합된 백중의 의미와 전통을 새롭게 재해석하고 현대적 모습으로 구현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02)720-06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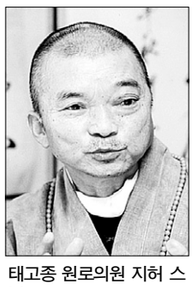
조동섭 기자

"교육 수행 통해 종지종풍 복원해야"

지허 스님 태고종 종책토론회서 주장



7월 24일 열린 태고종 제2차 종책토론회.



태고종 원로의원 지허 스님.

"교육과 수행을 통해 종지종풍을 복원하는 것만이 분규의 상처를 씻고 교세를 만방에 떨치는 길이다."

태고종 원로의원 지허 스님(순천 금둔사 주지)은 7월 24일 서울 전통문화전승관 대회의실에서에서 열린 태고종(총무원장 운산)의 두 번째 종책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지허 스님은 종단 교육 현실의 열악함을 지적하며, 선조사 스님들의 교육과 수행을 오늘날에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허 스님은 "소수의 승려가 계율 중심의 수행불교를 주장하며 대 본산 사찰과 전국 주요사찰을 점거한 것이 조·태 분규"라면서 "불교재산은 선조사 스님들의 수행의 공덕으로 이룬 부차적인 산물일 뿐"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역대 조사의 교육과 수행을 더 충실히 따르고 보존해 그 결실을 후손에게 이어주는 것이 태고종풍을 선양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 시도교구 종무원장이 추천한 종책기획위원 51명에 대한 위촉식에 이어 진행된 이날 종책토론회에선 동국대 사회과학대학원장 우성기 교수가 '태고종 종헌, 종법체계 및 선거법에 대해' 주제 발표했다. 이어 '태고종 종헌종법을 근간으로'를 소주제로 총무원 교무부장 복혜 스님과 문화부장 상진 스님, 연세대 신규탁 교수 등이 토론을 펼쳤다.

김성우 기자

전통사찰 규제 큰 폭 완화

국무회의서 '개발제한구역…시행령' 개정

개발제한구역내 전통사찰의 규제가 큰 폭으로 완화돼 증축과 진입로, 수목장 등 설치가 수월해졌다.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실장 장적)은 "7월 28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개정돼 개발제한구역내 전통사찰의 규제가 큰 폭으로 완화됐다"고 30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으로 화계사, 진관사 등 개발제한구역내 전통사찰의 증축이 문광부장관과 국토부장관의 협의규모까지 가능해졌다.

또, 개발제한구역내 수목장 설치가 용이해졌고, 전통사찰 95개 중 진입도로가 미비해 화재나 재난방지에 어려움을 겪던 46개소(약 50%)에 도로가 신설될 수 있게 됐고, 전통사찰의 증개축시 부과되던 개발훼손부담금도 면제됐다.

같은 날, 조계종 대변인 장적 스님은 "전통사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논평을 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우려되는 개발제한구역내 전통사찰 등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을 종단 차원의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조동섭 기자

선본사 삼천만원 전달

조계종 아름다운동행에



지관 스님에게 자비나눔 성금을 전달하는 향적 스님(오른쪽).

선본사 주지 향적 스님은 7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지관)에 자비나눔기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 7월 27일 현재 기금 조성액은 총 7억4341만원(약정액 포함)으로 집계됐다.

노덕현 기자



몽골 라오스 봉사
지구촌공생회 대학생

지구촌공생회(이사장 월주)는 몽골과 라오스에 대학생 단기봉사단을 파견했다.

1차로 28명의 학생들이 지구촌공생회가 운영하는 몽골 항올구 청소년센터에서 7월 17일~8월 1일 영어 및 한국어, 컴퓨터 교육 등 교육 봉사를 펼친다. 라오스 나옹 옹마이 마을에서는 2차 28명의 학생들이 7월 29일~8월 12일 학교보수 등 봉사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한편, 지구촌공생회와 꿈을이루는사람들(대표 진오)은 8월 8일 11시 경북 구미 '이주노동자 및 이주여성 쉼터' 증축 준공식을 개최한다. 준공식에는 1000만원을 후원한 이사장 월주 스님을 비롯해 호계원장 법등 스님(도리사 주지)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덕현 기자**

전용태 장로 사퇴
종교편향 행위로 논란

성시화운동본부, 홀리클럽 이사장 등 개신교 복음화운동의 주축으로 활동해 안산시 민원즉심관 임용 및 활동에 있어 '종교편향' 지적을 받아온 전용태 장로가 7월 17일 민원즉심관직을 사퇴했다.

범불교대책위는 7월 24일 "전용태 민원즉심관이 일신상의 이유로 지난 14일 사직서를 제출해 17일 최종 처리됐다"고 밝혔다.

전용태 장로는 지난 2월 안산시 민원즉심관으로 임명된 이후 인천국제성시축전 상임준비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이후 인천국제성시축전 설명회와 감사예배에 참석하는 등 '종교중립을 지켜야할 공직자 직분에 맞지 않다'는 논란을 빚어왔다. **노덕현 기자**

"조계종 미래 인적·조직 쇄신에 있어"
불교미래사회硏 종책좌담회… 현응 · 법안 스님 등 참여해 현안 논의

오는 10월 종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종단의 현실 진단과 과제 점검을 하는 자리에서는 인적 · 조직 쇄신에 불교의 미래가 달려있음이 재확인됐다.

불교미래사회연구소(소장 법안)는 7월 29일 한국역사문화기념관에서 '변화와 합리적 개혁을 이야기한다'를 주제로 종책좌담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현응 스님(조계종 중앙종회의원)과 법안 스님, 손혁재 한국NGO학회장, 윤남진 참여불교재가연대 NGO리서치센터 소장이 참여했다. 사회는 인터넷언론 '미디어붓다' 이학종 대표기자가 맡았다.

좌담회는 '1994 종단개혁 시스템은 유효한가'와 '변화와 개혁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의 두 소주제로 나뉘어 진행됐다.

현응 스님은 "조계종 종헌에는 선불교 중심으로만 남아있다"며 "1994년 개혁 이후 어떤 불교적 가치를 포교하고 어떤 스님들을 양성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윤남진 소장은 "교구 국장선까지는 종무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정무직과 행정직을 나눠 선발하자"고 제안했다.

법안 스님은 "(윤 소장이 말한) 국장선까지 전문적으로 흔들림 없이 가야한다는 의견은 바람직하다"며 "교역직 종무원은 전문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님은 "현재 조계종은 중앙종무기관 뿐만 아니라, 각종 위원회 선출직도 승랍만 되면 뽑힐 수 있는 지나치게 개방적인 구조"라며 "호계위원, 법규위원, 소청심사위원 등은 자질과 능력 검증을 거쳐 선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주지인사에는 반드시 인사고과를 적용하고, 직영사찰 · 특별분담금 사찰은 순환보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손혁재 회장은 "교구장 선출에 재가신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참가자들은 "호계위원 선출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는데 입을 모았다.

현응 스님은 "호계원은 제도는 도입됐지만 운영 여건이 성숙되지 못했다"면서 "중앙종회에서 호계위원 선출 기준이 모호한 것은 큰 문제"라 지적했다.

이어 법안 스님은 "호계위원 선출 기준이 필요하다. 종무직 일정기간 종사 자격과 도덕성 등을 감안해 자격기준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혁재 회장은 "호법부는 사전예방 업무를 주로하고, 심판은 호계원이 맡는 것으로 업무분장을 새로 할 필요가 있다"며 "배심제도를 도입해 배심에서 처벌여부를 가리고 호계원이 양형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 말했다.

호법부가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법안 스님은 "호법부가 기소권을 독점하다보니 기준이 없다. 전례도 없고, 비구니 조사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없고 힘없는 사람만 기소되는 실정"이라 주장했다. 이어 스님은 종회 종책모임과 관련, "중앙종회 의원 선출 때부터 계파가 정해진다"며 "현재의 계파는 종책은 실종되고 사람만 모이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윤남진 소장은 "대의 입법기구의 대표성 문제를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중앙종회의 권한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불교미래사회연구소는 좌담회 원문을 자료집으로 제작해 전국 사찰 및 교계 단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조동섭 기자**

"종교편향 종식에 앞장"
범불교대책위 '2009 대표자회의'서 결의


각 종단 대표와 재가단체들이 종교평화 종식을 서원하고 있다.

1주년을 맞은 '헌법파괴 · 종교편향 종식 범불교대책위원회'(이하 범불교대책위)가 신임위원장 선출 이후 신년 계획을 발표하고, 종교편향 종식에 적극 나설 것을 결의했다.

범불교대책위는 7월 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2009년 대표자회의를 개최했다.

대표자회의에는 조계종 총무부장 원학 스님(전임 범불교대책위원장), 제주 관음사 주지 원종 스님, 태고종 총무부장 능해 스님 등을 비롯한 각 종단 대표 스님들과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박광서 대표 등 불교계 단체 대표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대표자회의에서는 대책위원장 선출 건을 비롯해 대책위 활동보고, 조직정비, 활동방향, 명칭 변경 건이 차례로 논의됐다.

신임 대책위원장으로는 7월 14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으로부터 위촉받은 가평 백련사 주지 승원 스님(전 조계종 기획실장)이 추인 형식으로 만장일치 선출됐다.

승원 스님은 "불교가 최근처럼 흔들린 적이 없다. 모든 불교도들의 힘을 모아 종교편향 행위를 종식시키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표자회의에서는 사무총장으로 혜일 스님을 선출하고, 상시 의결기구인 상임대책위 구성과 정책기획위, 사회연대위 등 4개 소위 구성, 사이버모니터링단 등 활동기구 설립 등을 결의했다.

또 대책위는 향후 징계조항이 없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 추진을 비롯해 △종교차별 지역별 교육 및 대중강좌 개설 △8 · 27범불교대책위 홈페이지 제작 및 웹진 발간 △범불교도대회 1주년 기념세미나 및 학술세미나 개최 △국가복음화운동 대응 전략 수립 사업 등 추진 계획도 밝혔다.

한편, 범불교대책위는 한국불교기자협회와 공동으로 8월 24~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범불교도대회 1주년 기념 사진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삼보일배 처벌 대상 아니다"
대법원 판결

삼보일배는 사회상규에 크게 벗어나지 않으므로 처벌 대상이 아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7월 27일 전국플랜트건설노조가 집회 이후 삼보일배 행진을 한 것에 대해 유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중앙지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플랜트건설노조 조합원 7명은 지난 2005년 5월 서울 마로니에공원에서 열린 '임단협 성실교섭 촉구 결의대회에 ' 참가해 2차선 도로에서 삼보일배 행진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대법원 재판부는 "삼보일배 행진은 진행속도가 느려 폭력성을 내포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원심 파기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삼보일배 행진은 사회상규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행위로 '표현의 자유' 영역을 벗어나지 않는다. 삼보일배가 정당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라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제주 관음사 토지 경매처분 위기
전임 주지 명의 대여금 상환 문제 불거져

조계종 제23교구 본사인 제주 관음사 소유 토지가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했다.

관음사 주지 원종 스님은 최근 "2007년 관음사 주지선출 과정에서 내홍을 일으켰던 관계자 3인이 대여금 형식으로 전임 주지 때 건넨 21억 원에 대한 청구소송을 관음사를 상대로 제기해 사찰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했다. 관련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관음사 소유의 모든 토지가 매각될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재 제주 관음사의 부채는 42억원(기채승인부채 17억, 소송(대여금)부채 21억, 불사 미지급금 4억 등). 40억이 넘는 부채를 관음사 재정으로 상환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 이에 대해 원종 스님은 "종단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前 주지가 임의로 돈을 빌렸고 어디에 사용했는지 명확치 않은 부채를 현 관음사가 갚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현재 21억원 대여금과 관련한 민 · 형사상 소송은 11건에 이른다. 스님은 "매일 같이 줄 이은 소송으로 포교나 신행활동이 사실상 어려워 재정을 마련할 여건도 안 된다. 월 1000만원 가량의 이자 상환도 벅차 종무원 보시금도 제대로 못 주고 있다"고 토로했다.

최근 관음사가 대여금 21억중 3억6000만원에 대한 대여금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하면서 관음사 예금계좌가 압류됐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가 결정됐다.

다행히 경매 직전, 사찰에서 공탁금을 걸고 경매를 중지한 상태지만, 패소하면 삼보정재의 유실은 불가피하다. 이에 대해 조계종 재무부 관계자는 "종단의 기채승인을 받아도 관음사 소유 토지를 담보로 예산을 마련해야 하는데, 모두 가압류된 상태라 대출에 어려움이 크다"며 "종단과 각 교구본 · 말사의 도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원종 스님은 "삼보정재를 지켜낼 수 있도록 종단과 종도들의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호소했다. **조동섭 기자**

동국대 로스쿨 탈락 일부 위법

동국대 로스쿨 탈락과 관련해 법원이 일부 위법 판결을 했다.

동국대 법과대학 정용상 학장은 "7월 28일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에서 열린 동국대 로스쿨항소심선고에서 로스쿨예비인가과정에 취소사유가 있음을 확인하는 사정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 학장은 "동국대측 항소는 기각됐지만, 동국대에 내려진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거부처분은 위법하다는 주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동대측은 행정부에 로스쿨 정책 변경을, 입법부에 로스쿨 관련 법안의 개정을 각각 촉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법원에 상고하는 한편 교과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동섭 기자**

社告 라오스 공생청소년센터 건립을 위한

희망Dream 꿈 드림

사단법인 지구촌공생회(이사장 월주)와 현대불교신문사는 '공생청소년센터(GoodHands YouthCenter Laos)' 후원 캠페인 '희망Dream 꿈드림'을 전개합니다. 라오스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세요.

- 주 최 : (사)지구촌공생회, 현대불교신문사
- 주 관 : (사)지구촌공생회
- 기 간 : 2009년 5월 13일 ~ 8월 3개월간
- 모 금 액 : 3000만원 목표(1구좌 1만원)
- 후원계좌 : 농협) 170341-51-015696 (사)지구촌공생회
- 문 의 : 지구촌공생회 02)455-9596
  현대불교신문사 02)2004-8200


前 세계〝미세스 진〟현지 방필석 촬영

신생아 ★오행으로 이름을 지어주면 오복이 오네★

자녀들의 이름이 좋은지 나쁜지 알고 계십니까?

내가 내 이름 뜻도 모른다면 무엇을 따로 알 것을 구하겠는가?
이름만 알려주어도 신비한 오행비법으로 건강, 적성, 재물,
미래운세 등 정확하게 무료상담하여 드립니다.

작명

이름을 잘 지어주면은
자식이 효도하고 어버이가 즐거우네 (子孝雙親樂)
집안이 화목하고 만사가 이루어지네 (家和萬事成)

이름은 평생 같이할 동반자요
잘못 만나면 고생이요 잘 만나면 행복이요

대다수 획수 작명은 말은 되지만 뜻이 맞지 않으니
뜻있는 곳에 참 이름이 있네! 뜻 있는 곳에 씨앗을 뿌리게나!
바윗돌에 씨앗을 뿌리면 싹이 트겠는가?

고객이 인정한 한 장소에 20년 작명
국가공인 한자 1급 3번 합격

♬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전화 ♬
☎ 02)738-5577
* 작 명 : 국, 내외 우편발송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43 등용문빌딩 201호 (종각역 2번 출구 조계사옆)
한국민속철학연구소 소장 방필석

운명을 바꾸는 아호, 개명

주역 개인지도

방필석 대외활동

前 인도 대통령 초청 방문
前 스리랑카 대통령 초청 방문
前 스리랑카 문화부 장관 초청 방문
• 서울 보명사 창건 공덕주
前 스리랑카 수상 서울 보명사 참배
前 스리랑카 수상과 함께 청와대 초청방문
現 한, 스리랑카 문화교류협의회
• 제14차 세계불교도우의회 한국대표 스리랑카 콜롬보대회 참석
• 제20차 세계불교우의회 한국대표 호주 시드니대회 참석
• 세계불교승가회 대만 제오계 대회 한국대표단 홍보차 참석
• 일본 비구중 국제평화광도대회 참석
• 인도 녹야원 금강계단 보살계 수계
現 서울 보명사 주역강의 강사
前 세계불교도 우의회 홍보차장
現 한국역리학회 중앙학술위원
現 한국민속철학연구소장

둥~둥~둥~ "나무 아미타불"

전국염불만일회 제6차 염불정진대회 미황사서 열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한 여름 태양도 울고 갈 뜨거운 아미타불 염불소리에 해남 땅끝마을 달마산이 들썩였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7월 25~27일 해남 미황사(주지 금강)에서 300여 전국염불만일회(회장 안동일) 회원들은 평생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닮아가겠다는 서원을 세웠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임을 자부하는 불자들의 힘차고 신나고 멋있는 '나무 아미타불' 염불 소리를 따라갔다.



염불행자들이 '나무 아미타불' 1만송 염불을 하고 있는 모습.



제12차 염불대회 이틀째인 7월 26일 새벽, 미황사 대웅전에서 사리탑전까지 행선염불이 진행됐다.

2002년 제5차 염불정진대회가 열렸던 미황사를 다시 찾은 전국염불만일회는 7월 25일 미황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입제식을 봉행했다.

안동일 회장은 입제식에서 "염불은 부처님을 생각(念)하며 마음속에 모시는 것으로 송불(訟佛)과는 다르다. 부처님을 생각하며 나무아미타불을 염송하면서 부처님을 닮아가려는 실천을 하자"며 "남녀노소, 신앙의 경력, 지식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차별 없는 불자들의 상생, 소통, 만남의 장인 동시에 깨달음과 화합의 한마당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금강 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미타사는 200년 전 초의 선사와 의현 장로가 미타만일기도를 발원한 곳으로 아미타불의 가피를 입은 곳"이라며 염불행자들을 반겼다.

입제식에 이어 '나무 아미타불' 1만송 염불은 곧바로 이어졌다. 북과 목탁이 신심을 북돋으며 신명나는 염불정진 한마당이 펼쳐졌다. 엄중하고 정적인 염불에서 탈피해 '나무 아미타불' 염불과 함께 상생과 소통, 화합이 시작됐다. 염불에 장단과 강약이 들어가고 박수를 치거나, 몸을 흔들거나, 절을 하기도 하는 염불정진은 한편의 장엄한 공연이었다. '나무 아미타불' 1만송 염불은 7차례 나눠 매회 80여 분간 진행됐다. 힘들거나 지루할 것이라는 생각과는 달리 도반들과 함께하는 염불정진은 시간가는 줄 모른다.

염불정진대회에는 염불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염불신행 발표, 행선염불, 촛불의식, 호마천도의식을 비롯해 국내 정상급 출연진들로 구성된 다도(茶道) 퍼포먼스, 바라춤, 사물 영남농악, 찬불가 및 천고 · 천수북 공연, 전 참가자가 어우러진 회향 대동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됐다.

특히 둘째 날 대웅전에서 미황사 사리탑전까지 달마산의 새벽을 깨우는 행선염불은 불자들의 신심을 고취시켰다. 참가자들은 행선염불과 철야정진이 정진대회의 하이라이트라고 입을 모았다.

전국염불만일회 이상우 대회장은 "여름 휴가철 용맹정진 끝에 깨달음을 이루겠다고 나선 회원들의 열정이 만들어낸 인연에 감사한다"며 "염불행자로서의 가정과 직장에서의 삶을 되돌아보며 신심과 마음가짐을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해 부지런히 예배 공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또 "염불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수행으로 여러 도반들과 고성일념(高聲一念)으로 하면 정토에 앉은 듯 깊은 환희심이 생긴다. 앞으로 젊은 층부터 노년층까지 계층별로 염불수행이 이어져 가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이번 대회까지 12회 모두 빠짐없이 참여한 이천 영원사 이재인 어르신은 90세의 연세에도 철야정진까지 참석하는 신심을 보여줘 참가자들을 놀라게 했다. 이재인 어르신은 초록 조끼에 찍힌 12개의 참가확인 도장을 자랑스럽게 보이며 "살아오면서 2번 부처님의 가피를 받았다. 늘 부처님을 염하면서 둥들둥글 세상을 살면 된다"며 "2025년 회향하는 날까지 참가를 장담할 수 없다. 앞으로는 젊은이들이 많이 참가해 염불수행을 이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염불대회는 지난 11년 동안 전국 염불성지인 유명사찰을 찾아 염불을 하는 '성지대회'의 가피력에 의존하는 것을 피하고, 스스로 염불정진을 다짐한다는 '염불정진대회'로 탈바꿈하며 언제 어디서나 한결 같이 한마음으로 수행정진한다는 각오를 다졌다.

전국염불만일회는 신라 경덕왕 17년(758)에 발징 화상이 염불만일회를 개설한 것을 효시로 역사적으로는 6차 염불결사운동 단체다. 전국염불만일회는 1998년 금강산 건봉사에서 처음 개최된 이후 올해로 12번째 대회를 개최했다.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는 염불수행은 지극한 신심만으로도 성불할 수 있다는 믿음과 희망의 가르침으로 불교 초심자부터 성불에 이르기까지 불자에게는 중요하고 필수적인 수행이다.

이상언 기자 un82@buddhapia.com

손짓 한 번에 부처님 자비 담아요

조계사 원심회 청각장애인과 봉사자 길상사 수련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길과 눈빛이 오가는 곳이 있다. 청각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과 더불어 깨달음을 추구하는 원심회원들이 모인 자리가 바로 그 곳.



지리산 뱀사골 숲길 탐방에 나선 원심회원들을 위해 원심회 엄재면 봉사부회장이 수화통역을 하고 있다.

조계사 장애인포교회인 원심회(회장 김장경) 청각장애인과 봉사자 30여 명이 7월 25~26일 남원 길상사로 여름 수련회를 다녀왔다. 본격적인 휴가를 맞아 제각기 나만을 위한 휴식시간을 찾아 떠나는 때에 참가자의 절반 이상이 봉사자들로 채워졌다. 수화로 짧은 대화만이 가능한 수준의 봉사자들이 대부분임에도 교감과 소통이 이뤄지는 그곳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날 캠프는 조계사를 출발해 지리산 뱀사골 숲길 탐방, 함양 서암정사 답사, 길상사 둘러보기, 마음나누기, 108배, 숲속 걷기 등으로 진행됐다. 단순한 휴식을 넘어 신행을 도반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었다.

수련회는 아주 사소한 대화에도 수화통역이 그림자같이 따라야 했기에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예상 시간을 넘기는 경우가 많았다.

"자 여기를 보세요(두손을 흔든다)"라며 공지사항 전달을 위해 주의를 집중시키는데도 청각장애인들 사이사이에서 봉사자들이 감각으로 뜻을 전해야 한다. 특히 이번 하계수련회에는 통역 봉사자가 부족해 원심회 엄재면 봉사부회장이 행사의 총 통역을 담당했다. 20여 분 정도 수화통역을 해도 어깨가 아프고 많이 지친다는 통역을 엄 부회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콩죽 같은 땀을 흘리며 친절하게 진행했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에 대해서 묻자, 엄재면 부회장은 "종교를 떠나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소외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고 원심회에 와서 모두가 마음이 편해져서 돌아가면 좋겠다"며 성글한 웃음으로 답을 대신했다.

원심회 수련회가 따뜻하고 즐거운 분위기로 연출된 것은 여러 봉사자들과 청각장애인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도우며 너와 내가 아닌 함께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원심회 지도법사 소임을 맡은 지 2개월 남짓인 고경 스님(조계사 사회차장)은 아직 '안녕하세요,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세 마디가 아는 수화의 전부다. 스님도 아직 원심회원들과는 어색한 사이지만 몸으로 부딪히며 교감하기 위해 행사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함께하는 열정을 보였다.

마음나누기 시간에는 고경 스님이 "남을 통해서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많이 아쉬워 기초수화를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하자, 원심회 모범회원인 김금자 어르신이 "스님 수화 배우세요"라며 해맑은 표정으로 스님과의 깊은 대화를 간절히 원하는 듯 손짓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한다. 김 어르신의 수화가 끝나기도 전에 주변 청각장애인들이 일제히 고경 스님에게 청법가를 청하듯 간곡히 수화로 마음을 전한다. 스님은 이에 "앞으로 마음의 교감을 시도하고 기초 수화도 배우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여름 수련회에는 처음 참가하는 봉사자와 청각장애인들이 예상보다 많았다. 서로 의사소통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그들의 대화는 시끄러울 정도였다. 서로가 서로의 마음으로 교류하는 이들은 이미 천이통(天耳通)에 도달한 수행자들이었다. 이상언 기자

신행게시판

●**간화선 집중수행=**서울 상도선원은 8월 9~16일 대법당에서 안국선원 수불 스님의 지도로 간화선 집중수행을 실시한다. 8월 5일 저녁 7시 30분 대법당에서 간화선 집중수행을 위한 사전 오리엔테이션 법회에서 가행정진과 용맹정진을 위한 마음다짐 및 동기부여를 위해 상도선원장 미산 스님의 특별법문이 열린다. (02)815-3391

●**사마타-위빠사나 여름집중수행=**명상선원 오솔길은 8월 7~16일 다보사 다보수련원에서 '사마타-위빠사나' 여름집중수행을 실시한다. 평등 스님이 교재 <숫타니파타>(전재성 역주, 한국빠알리성전협회)로 지도한다. 수행은 대부분 아나빠나사띠 좌선수행으로 진행되며, 수행점검을 위해 하루 한 차례 스님과 개인 인터뷰를 할 수 있다. 1일 보시금은 1만5000원. (043)833-7789

●**단기출가학교=**평창 월정사는 9월 23일~10월 22일 단기출가학교를 실시한다. 단기출가기간 동안 참가자는 삭발염의를 하고 행자생활을 체험하게 된다. 8월 25일까지 접수받으며, 수행비는 60만원이다. (033)339-6616

●**어린이를 위한 명상 위빠사나=**'고엔까 위빠사나'를 닦는 담마코리아는 8월 23일 오전 9시 경주 동국대학교 정각원에서 '어린이를 위한 명상' 위빠사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선착순 40명 접수 받는다. (054)536-9820

'사람들이 꿈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신구의 삼업을 바꾸지 않고 결과만을 바꾸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慈悲無敵

"자비명상 지도자" 모집

마음의 노예에서 벗어나 마음의 주인이 되세요.
하고자 하는 일이 순조로울 것입니다.

마가스님의 안내로 진행되는
붓다의 리더쉽 "자비명상 지도자"로 초대합니다.



화가 많고 급하신 분! 수행이 잘 안되시는 분!
새로운 포교 방법을 찾고자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참석하시면 좋습니다.

공개강좌 : 9월 9일(수요일) 오후 1시
장 소 : 템플스테이정보센터 3층
교육 기간 : 9월 9일 부터 8주간(매주 수요일 오후 1 ~ 4시, 30시간)
집중 교육 : 11월 중 3박4일 집중훈련(30시간)
보강 교육 : 월1회 10회(40시간 / 중앙대 내마음 바로보기 참관)
총 교육 시간 : 100시간
모집인원 : 선착순 20명 내외
수 강 료 : 200만원(1년 과정)

문의 : 041)622-1190 (천안 만일사) / cafe.daum.net/jurira

- 청담 스님 글 -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 성화미술원 내 전시관 : 031)591-1022
● 휴 대 폰 : 011-302-1022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산37번지
성화미술원 공장내 불교전시관

주 · 야 상담 합니다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전시관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화불교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114 서비스] 검색 →
114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첩 클릭

조선시대 승과시험터 공원 '변신'

남양주 봉선사 승과원 개원 연꽃축제 · 음악회로 기념해

무더위가 한창인 요즘, 한여름 소나기보다 시원한 여름축제가 열려 눈길을 끈다.

남양주 봉선사(주지 인묵)는 7월 25~26일 승과원(僧科園) 개원을 기념한 연꽃축제를 개최했다. 행사는 승과원 표지석 제막식을 시작으로 연꽃축제 개막식, 산사음악회 순으로 펼쳐졌다.

이날 문을 연 승과원은 조선시대에 승과를 치루던 봉선사 경내 연못 인근 승가평터를 공원으로 단장해 선보인 공간으로 8000여 평 규모에 연못과 야외광장, 체육시설 등을 갖췄다.

연꽃축제 개막식에서 봉선사 조실 월운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연꽃은 꽃과 열매가 동시에 형성돼(花果同生) '발심이 바로 성불(發心卽成佛)'임을 강조하는 불교의 교리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며 "연꽃축제를 통해 생활수준 만큼 문화적인 정서를 함양하는 계기를 갖자"고 당부했다.


승과원 표지석 제막식.



봉선사 연꽃축제 공연 모습.

이에 앞서 봉선사 주지 인묵 스님은 인사말에서 "경기도와 남양주시의 지원으로 승과가 치러지던 곳을 승과원으로 새롭게 단장해 지역민들에게 역사적인 의미를 알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도 축사를 통해 "봉선사는 마음의 때를 씻어내는 청정도량"이라며 "광릉숲을 간직한 봉선사가 승과원과 함께 더욱 불교문화를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봉선사 회주 밀운 스님(조계종 원로회의 부의장)을 비롯한 봉선사 본 · 말사 스님과 주광덕 국회의원,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노승철 남양주 부시장, 공명식 남양주 시의회 의장 등 30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2009 연꽃 어린이 연합캠프' 성료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회장 송묵)는 '2009 연꽃 어린이 연합 캠프'를 7월 25~27일 충남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에서 성료했다. 7월 25~27일, 7월 27~29일 2차례에 걸쳐 진행된 캠프에는 1차 250여 명, 2차 150여 명이 참가했다. '함께하는 부처님세상'을 주제로 열린 이번 연합캠프는 어린이 여름불교학교 운영이 어려운 소규모 사찰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맨발로 걸어보며 자연을 느껴 보기, 주위의 돌멩이로 친구들과 돌탑 쌓기, 녹차 마시며 마음 가다듬기 등 자연스럽게 불교에 접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눈에 띄었다. 연합캠프 지도교사인 김진아(화계사 어린이법회 지도교사)씨는 "어린이들이 여름불교학교와 어린이 법회에서 즐겁게 놀면서 불교를 자연스럽게 배우고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된 후에는 또다시 어린이 포교에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언 기자

"우리도 부처님 될 거예요"

공주 영평사, 제20회 어린이 숲속학교 열어

"우리도 부처님이 될 수 있어요."

미래 한국불교 주인공인 106명의 천진불들이 부처님 앞에 모여 힘껏 외친 첫 합성이다.

제20회 어린이 숲속학교(교장 현관)가 충남 공주 영평사(주지 환성)에서 7월 25일 입교식을 시작으로 2박3일 여정에 들어갔다.


영평사 대웅전을 참배하는 천진불들.

어린이 숲속학교에서는 자원봉사로 참가한 대학생과 고등학생들 30여 명이 교사로 참여해 '여래십호(如來十號)'를 반명으로 가르친다.

학교 첫날 부처님께 인사하기, 찬불가 율동 배우기, 사찰예법 배우기, 담력훈련 등이 진행됐으며 이튿날 호흡명상, 기체조, 불교공부. 마지막 날 5계설법 수계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영평사 주지 환성 스님은 "21년 동안 숲속학교를 운영하면서 한 때는 200여 명이 넘게 참석했었는데 요즈음은 자꾸 참여 숫자가 줄어 안타깝다"며 "좀 더 알찬 교육 프로그램으로 많은 불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혜철 충청지사장

사이버 종교평화 우리가 지킨다

대불련, '종교평화 모니터요원연수' 참가

대학생들이 사이버상의 종교평화 수호를 위한 종교평화모니터요원으로 나섰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이경환, 이하 대불련)는 8월 1~2일 공주 전통불교문화원에서 범불교대책위원회(위원장 승원)가 주관한 '종교평화 모니터요원 연수'에 참가했다.

종교평화모니터요원은 인터넷을 중심으로 발생되고 있는 훼불 및 종교편향에 대해 정기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전개하고 종교의 자유, 정교분리의 관점으로 개신교와 정부, 공공영역에서 벌어지는 종교차별의 움직임을 감시한다.

이번 연수를 통해 배출된 20여 명의 종교평화모니터요원은 정기적으로 사이버상에서 공직자 종교편향 등 종교평화감시 활동을 하고 월 1회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이번 연수에서는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박광서 대표의 '종교차별 근절을 위한 바람직한 종교문화',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정웅기 차장의 '국가복음화의 실체와 전략에 대한 이해', 법무법인 김형남 변호사의 '종교차별에 대한 사례와 법령 이해' 등의 강좌와 퀴즈를 통한 종교차별 이해하기, 기도 세러모니 등에 대한 주제토론, 모니터 활동 계획세우기 등으로 다양하게 진행됐다.

범불교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현 정권에서 다양한 종교 편향 사례와 정교분리 위반 사례로 종교평화를 저해하는 일련의 행위가 발생해 왔다"며 "친 개신교 여론조성을 위한 움직임과 정부 복음화 및 성시화운동 등을 위해 오래전부터 진행돼온 개신교계의 '인터넷 요원양성'에 대한 빠른 대처로 불교계의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들이 바른 견해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02)732-0239

이상언 기자

"이주민 정착, 제가 도와요"

꿈을이루는사람들, 통번역상담원 현장실습



7월 22일 꿈을이루는사람들이 주최한 이주민 통번역상담원 양성교육을 마친 이주 외국인들.

구미 꿈을이루는사람들(대표 진오)은 7월 21~22일 '유쾌 · 상쾌 · 소통 이주민 통번역상담원 양성교육' 현장실습을 실시했다.

구미시가 후원하는 '행복한 구미 만들기' 일환으로 열린 이번 사업에서 상담원들은 계명대 국제교육센터와 김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 실생활에 맞춘 현장교육을 체험했다.

이번 '유쾌 · 상쾌 · 소통' 사업은 이주외국인과 소통을 원하는 시민 및 공공기관에게 무료로 통번역 서비스를 지원하고, 이주외국인에 대한 사회복지영역 개발과 이주민 인권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전자공업 등이 발달한 구미시에는 3000명이 넘는 외국인 근로자 및 다문화 가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이주여성 왕영(31)씨는 "잘 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 됐는데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통번역사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는 기회였다"며 "어려움에 처한 이주민을 위해 희생정신을 살려 잘 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꿈을이루는사람들은 2000년부터 이주노동자 복지를 위해 상담센터와 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혜철 충청지사장

노천 박물관 '경주 남산'을 불국토로

경주시 2052년까지 1219억 들여 남산 정비

경주시가 '노천 박물관' 남산에 산재해 있는 불상과 탑 등 신라불교 유적을 정비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남산을 불국토로 재현하는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경주시는 올해 1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문화재 탐방로 및 유적지를 정비하고 창림사지 복원을 위한 토지 매입과 발굴조사, 남산신성(南山新城) 복원을 위한 시 · 발굴조사 및 토지매입에 들어갔다고 최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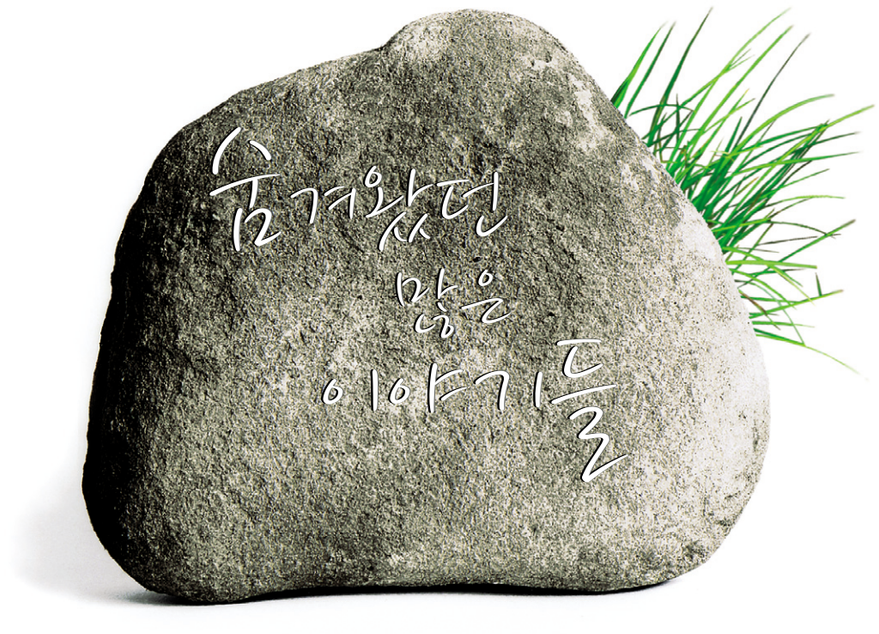
경주시가 지난 1998년부터 2052년까지 총 사업비 1219억4000여 만원을 들여 추진하는 남산종합정비사업은 5만6198㎡ 규모의 주차장 21개소를 조성하고, 유적지 291개소와 탐방로 19개 노선 56km, 안내판 및 이정표 179개소를 정비한다.

폐탑과 폐사지 및 유적정비를 위해 149개 지구 118만㎡의 사유지를 매입하고, 서남산 주차장 인근 2314㎡의 부지에 2층 규모의 전시관 1동을 건립키로 하는 등 경주남산에 산적한 문화유적을 지속적으로 복원해 신라인의 지혜와 숨결을 체감하는 탐방코스로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

김성우 기자

도서출판 國芙카르마

삼중큰스님께서 처음으로 들려주는
진실한 삶, 인생이야기와
구도자의 이야기를 적은 자전에세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알리는 일에 일생을 바치며, 평생동안, 사랑의 나눔을 강조해 온 삼중큰스님!
많은 사형수들과 그들의 가족들의 고통을 함께하고, 남들이 꺼리는 궂은 일을 온 몸으로 실천해 온
삼중큰스님의 이타행은 많은 불교인들의 가슴에 남아있습니다.

노인은 나를 원망하지 않았다. 나를 찾아오는 것까지가 그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모든 것을 운명에 맡겨버렸다.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그나마 남은 돈으로 수박이나 사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정도였던 셈이다. 삶은 그러나 사정을 봐주지 않았다. 노인 역시 그런 삶의 실상을 탓하지도 않았다. 따지고 보면 다른 사람들의 삶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알다시피 경제적으로 풍족한 사람도 때가 되면 죽는다. 지인들에게 둘러싸여 여유 있는 죽음을 맞는 사람도 다를 바가 없다. 어차피 죽으면 육체는 비슷한 과정을 밟기 마련이다. 거기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다 부질없는 일이다.
그러나 노인은 말년의 마음 씀씀이로 박복한 삶의 빚을 다 갚고 떠난 것이다.

– 본문 중에서 –



숨겨왔던 많은 이야기들 | 삼중스님 저 | 신국판 변형 335쪽 12,000원
이 책의 수익금은 노인복지시설 후원금으로 쓰여집니다.
구입신청 051)583-9923~5
우체국 : 601161-01-006913 (예금주 : 삼중원)

이웃 종교 RELIGION

원불교, 본격적인 해외포교 나서

미주지역에 첫 해외총부 … 2010년 11월 완공 예정

원불교가 미국에 첫 해외 총부를 마련함으로써 본격적인 해외 포교에 나설 전망이다.

원불교신문 7월 17일자 보도에 따르면 원불교 미주 교당 및 국내 원불교 관계자들은 7월 5일 미국 뉴욕주 컬럼비아 카운티 클래버락에서 원불교 미주 총부(Won Dharma Center) 기공식을 개최했다.

2010년 11월 완공예정인 미주 총부는 172만 2600㎡(약 52만 2천여 평)의 대지에 선방과 행정빌딩, 숙소가 위치하는 종교활동구역과 선의 정원, 숲속기도터 등 야외활동 구역, 청소년시설과 노후 수양관, 대법당으로 개발될 계획이다.

미주총부 건설은 2015년 원불교 창시 100년을 맞아 원불교100년기념성업봉찬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이번 사업은 원불교의 세계화를 향한 본격적인 시도로 앞으로 정신개벽도량, 생활훈련도량, 미주교화지원센터, 종교연합운동의 근거지 역할을 하게 된다.

원불교 교단은 "미주총부를 통해 미국 현지에 정착 가능한 각종 교화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연구·지원하고 서양사회에 적합한 종교 문화와 제도를 마련하는 초석을 만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원불교는 국내에서는 익산 중앙 총부 아래 16개 교구에서 505개의 교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미주 지역 등 해외에는 65개의 교당을 두고 있다.

원불교 교도수는 국내외를 포함해 출가교역자는 1911명, 재가교도는 27만1000여 명 정도다.

한편 원불교 미주교화 역사는 40여 년으로 현재 25개의 교당과 필라 미주선학대학원대학교 등 11개 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70여 명의 출가 교역자들이 교당과 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나은 기자

지금은 '진리 안의 사랑'이 필요한 때

교황 베네딕토 16세 첫 사회회칙 반포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취임 후 처음으로 사회회칙인 '진리 안의 사랑'(Caritas in Veritate)을 공식 반포했다.

베네딕토 16세는 7월 7일 교황청 정의평화평의회 의장 레나토 마르티노 추기경과 사무총장 지암파올로 크레팔디 주교가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교황은 사회회칙을 통해 "경제 발전을 포함한 참되고 총체적인 인간 발전을 위해서는 '진리 안의 사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황의 이번 회칙은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그 해법을 찾고자 이탈리아에 모인 선진 8개국 정상들의 회담 개막일에 맞춰 발표돼 더욱 관심을 모았다. 이는 회칙에 대한 환기와 주의를 더욱 효과적으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교황은 기자회견 이후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각국 정상들과의 연이은 만남을 통해서 재차 회칙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설명했다.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첫 사회회칙 '진리 안의 사랑'을 엮은 책자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제공=평화신문)

사회회칙은 사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공동 복지에 장애가 되는, 그리고 개인·가정·공동체 및 국가의 존엄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경제·문화적인 문제들을 보다 직접적으로 언급한 교황의 회칙을 일컫는다.

19세기 말 가톨릭 교회는 중대한 위기에 처해있었다. 자유주의·사회주의 등 사상적 흐름이 고조되자 당시 교회의 중요성에 대한 의미는 점점 더 상실돼 갔고 사회로부터 점점 더 고립되는 진퇴양난의 늪에 빠진 상태였다.

이러한 혼잡한 상황에서 신자들은 그러한 상황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가톨릭 교회와 교황청의 권리를 다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로 분열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교황 레오 13세(재위 1878~1903)는 가톨릭 교회의 완전성 안에서 교회의 전통을 현대의 정신과 화해시키는 길을 모색했다. 즉 레오 13세 교황은 사회의 위기 상황에 요구되는 예언자적 임무가 무엇인지 직시하고 당시의 교회와 사회를 위해 하느님의 성령이 맡긴 예언적 메시지를 자신의 노동 회칙을 통해서 선포했다. 이후 100년 동안 역대 교황들은 여러 사회 회칙들을 통해 그리스도교 사회 교리를 세상에 널리 알려 왔다.

한편 회칙 '진리 안의 사랑'은 20여 년 만에 반포된 사회회칙으로, 선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지난 1991년 교황 레오 13세의 '노동헌장'(Rerum Novarum) 반포 100주년에 즈음해 '백주년'(Centesimus Annus)을 반포한 바 있다.

이나은 기자

"산 좋고 물 좋고 가족 다 모여서 더 좋아요"

승가원 산하 5개시설 너리굴 마을서 여름통합캠프 열어

"나는 1박 2일간의 승가원 여름통합캠프 기간 동안, 가족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먼저 배려하고 양보하는 자세로 캠프가 끝날 때 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선서합니다."

길은엽(승가원 장애복지타운)씨와 유태호(승가원 장애아동시설)어린이가 우렁찬 목소리로 입소식 선서를 한다.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이사장 태원)은 7월 28~29일 경기도 안성 '너리굴 문화마을'에서 '제1회 승가원 여름통합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캠프는 승가원의 장애가족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인 첫 행사로, 승가원 산하기관인 장애아동시설·자비복지타운·삼전종합사회복지관·한솔종합사회복지관·성북장애인복지관 5개 시설의 장애가족과 직원 및 봉사자 등 500여 명이 참가했다.

행사에 대해 법인사무국 유정화 총무행정팀장은 "이번 캠프는 장애로 인해 이동이나 나들이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장애 가족들에게 자연을 느끼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색다른 추억을 전해주기 위해 계획됐다"며 "승가원 가족들만을 위한 공간으로 확보하기 위해 안성 너리굴 마을 전체를 임대했다"고 설명했다.

입소식 전, 산 좋고 물 좋은 캠프장 대강당에 모인 승가원 가족들은 흥겨운 마음에 신나는 음악에 몸을 흔들며 노래를 따라 부르는 장관을 연출하기도 했다.

입소식에서 승가원 장애아동시설 관장 동욱 스님은 개회사를 통해 "1년 전부터 통합캠프를 준비하며 전국 곳곳을 다니며 장소를 답사했다. 마침 장애가족 모두가 원활하게 활동 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았다"며 "날씨가 참 좋아 다행이고 1박 2일 동안 좋은 추억 많이 만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캠프에는 동욱 스님을 비롯해 현관·묘전·성화·동준 스님 등 각 기관별 관장 전원이 참여했다.

성북장애인복지관 관장 현관 스님은 "올해 처음인 통합캠프는 진작에 이런 규모로 진행됐어야 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 통합캠프를 매년 진행해 가족들이 좋은 추억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올해 첫번째로 열린 '승가원 장애가족 여름통합캠프'. 승가원 가족들은 1박 2일 동안 물놀이, 댄스배틀, 비누만들기 체험등에 참여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자비복지타운 원장 묘전 스님은 "이번 첫 캠프가 단순한 통합캠프가 아닌 법인의 슬로건인 '불교장애복지의 리더, 승가원'을 구현하는 캠프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입소식 후, 승가원 가족들은 숙소에 짐을 푼 뒤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준비운동 끝나기가 무섭게 풀장으로 뛰어들었다. 김장수(11·장애아동시설) 어린이는 "물놀이 하니까 시원하고 기분이 좋아요!"라며 소리쳤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아동에게는 1:1로 봉사자가 붙어 다녔다. 손태욱 자원봉사자(고려대 사회학과 4학년)는 "10번째 찾은 자원봉사활동인데 캠프에 참여한 것은 처음"이라며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고 보람도 느낀다"고 말했다.

이번 통합캠프는 너리굴 마을 전체가 승가원 가족들을 위한 공간으로 준비된 만큼 식구들이 맘껏 뛰어놀기에 안성맞춤이었다. 또한 기관 직원들이 팥빙수 기계를 가져와 손수 팥빙수를 만들고, 찐 찰옥수수, 토마토 등 다양한 먹거리를 준비해 무릉도원이 따로 없었다.

물놀이 활동이 끝나고 각 기관들은 개별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장애아동시설은 노래자랑을, 한솔종합사회복지관은 장애·비장애 통합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레크레이션 게임을 준비했다. 장애를 가진 청소년들과 1:1 짝을 지어 캠프에 참여한 비장애 봉사자가 친구이름 맞추기, 과자 많이 갖다 놓기 등 다양한 게임을 했다.

한솔복지관 이종희 사회복지사는 "장애 청소년들은 또래 친구를 만들고 싶어 하나 기회가 흔치 않기 때문에 이런 통합프로그램을 통해 좋은 친구를 만들 수 있고, 비장애 청소년들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설명했다.

저녁식사 후, 장애가족들은 대운동장에 모여 캠프파이어를 열고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자비복지타운 사물놀이 팀의 신명나는 국악공연을 시작으로 승가원 가족들은 둥글게 모여 신나는 율동과 가위바위보 게임, 짝짓기 게임, 기차놀이 등에 참여했다. 캠프파이어 도중 갑자기 비가 내리자 가족들은 모두 대강당으로 이동, 장기자랑 및 댄스배틀로 실력들을 뽐냈다. 강경열(35·자비복지타운)씨는 "시원하고 경치 좋은 곳에 오니 기분이 좋고 수영하는 것이 재밌었다. 캠프파이어를 할 때 사물놀이공연으로 북을 쳤는데 사람들의 흥을 돋우어 기분이 좋았다"고 말했다.

이튿날에는 각 기관별로 와이어공예, 떡메치기, 비누만들기, 칠보공예, 축구·농구게임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했다. 박창수(16·장애아동시설)양은 예쁘게 칠한 나비모양 동(銅)판을 보여주며 "제가 칠보공예로 목걸이 팬던트 만든 거예요 이쁘죠?"라며 자랑을 했다.

체험활동이 끝난 후 가족들은 대강당에서 퇴소식을 가진 뒤 아쉬움을 뒤로 한 채 해산했다.

이번 통합캠프를 총괄지휘한 법인사무국 이현철 전략사업팀장은 "통합캠프가 처음이다 보니 안전사고가 날까봐 걱정됐지만 무사히 식구들이 즐겁게 시간을 보내 뿌듯했고, 모든 행사가 수월하게 진행돼 흐뭇하다"며 "앞으로도 승가원 가족들의 욕구에 맞춘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캠프를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나은 기자 bohyung@buddhapia.com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
천/년/초를 아십니까?



천년초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노지에서 자연상태 그대로 자라는 다년초 식물로 혹한의 영하 20℃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토종 선인장입니다.
특히, 어떠한 병충해에도 죽지 않고 농약, 제초제,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 자연식품이며 "자연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식물"이라 불릴만큼 어떤 식물과도 비교할수 없는 높은 성분을 함유한 소중한 우리의 자원입니다.

직접 몸으로 느껴 보십시오.

한겨울 영하 20℃의 혹한 속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의 천년초!
천년초의 놀라운 생명에너지를 직접 체험해 보십시오.

*천년사랑에 사용하는 천년초는 유기농 천년초 100%를 사용해 만듭니다.

천년사랑 무료샘플신청 02)780-3989
(천년초 책자와 농축액 2일분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돌고래 슈퍼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1호!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기름값 대비
80% 이상 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

사찰, 포교당, 수련원, 교육시설, 복지시설,
호텔, 모텔, 펜션, 가든 등에 설치 최적합

사찰·포교당·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시공 뛰어난 내구성, 30년 이상 반 영구적.

♣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봉 -

돌고래 슈퍼 에너텍
공급원 : 서울시 강동구 길동 334-5 / 사무실 : 02)471-2356
상담전화 : 1688-334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m

과학과 만난 佛法 한나무 인성교육 '인기'

전국 초등학교 16곳, 중학교 4곳, 고등학교 8곳서 운영… '동체대비' 담겨

#공교육시스템 이용한 마음교육

아동 및 청소년 문제가 사회화되면서 주목받기 시작한 심성교육은 현재 특별교육과 학교교육 등으로 나뉘어 시행중이다. 학교교육은 공교육시스템인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심성교육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인 관심도 크다.

심성교육에는 봉사활동과 역사문화 탐방을 통한 체험 방식과 동 · 식물 기르기 방식 등 다양한 방식이 있다.

심성교육 모델의 하나로 꼽히는 인천 강화고는 자연체험학습과 봉사활동을 통한 인성교육으로 학교폭력이 감소하고 학생의 학습능력이 향상되는 효과를 거뒀다.

가톨릭재단이 운영 중인 논산 대건고는 가톨릭의 영적 개념을 도입해 마음교육에 성공한 사례다. 대건고는 강석준 신부가 고안한 PESS프로그램을 활용해 재학생의 인성계발과 학력신장을 이뤘다.

PESS프로그램은 학생의 신체적(Physical) 정서적(Emotional) 영적(Spiritual) 지적 · 봉사적(Study · Service) 균형을 이루는 방법이다.

한마음과학원의 '한나무 인성교육프로그램'은 초 · 중등 공교육시스템을 이용한 마음교육 프로그램으로 전국의 초등학교 16곳과 중학교 4곳, 고등학교 8곳에서 운영 중이다.

#초등-마음 다스리기 중등-주인으로 살기에 중점

초등생에게 마음은 1차적으로 '우리 속의 또 다른 나'로 전달된다.

초등 대상 프로그램은 마음 다스리기에 중점을 두고 구성됐다. 마음 다스리기는 △마음을 관찰해 알아차리기 △그 마음을 맞장구치며 인정하기 △마음을 다스려서 용광로에 던져 녹이기 순으로 진행된다.

받아쓰기 시험을 앞두고 초조한 아이가 마음관찰을 통해 "곧 시험인데 망치면 어쩌지?"라는 자신을 발견하고, "이런, 내가 쓸데없는 고민을 하고 있구나"라고 자신의 마음을 인정하며,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하면 시험을 잘 치룰 수 있을거야"라고 걱정하는 마음을 용광로에 던져 녹여 다스리게 된다.

초등학교 담임을 맡고 있는 원정화 교사는 "아이들의 마음을 잘 다스리기 위해 마음수첩 쓰기, 명상하기, 마음일기 쓰기를 병행하고 있다"며 "마음수첩에는 주로 쓰고 싶은 마음, 녹여야 할 마음을 쓰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등 대상 프로그램은 △고정관념깨기(지켜보기, 알아차리기) △주인되기(믿고 맡기기) △주인으로 살기(더불어 행복하게 살기)로 엮어져 있다.

'고정관념깨기'는 고정관념 속의 '나'를 인식하고, 세상을 달리보며, 내 안에 큰힘이 있는 것을 자각하는 시간이다.

'주인되기'는 세포에도 의식이 있음을 깨닫고 내 안의 우주를 보고 우주는 하나임을 느끼는 과정이며, '주인으로 살기'는 마음은 모두 연결돼 변화하고 있으며, 마음먹기에 따라 쓰는대로 에너지가 나온다는 것을 익히는 단계다.

특히 '한나무 인성교육프로그램'은 도덕 등 특정과목에서만 한정되지 않는다. 이미 다수의 교사들이 일선 교육현장에서 중 · 고등학교 도덕, 수학, 국사 등 여러 과목에서 실시해 효과를 거둬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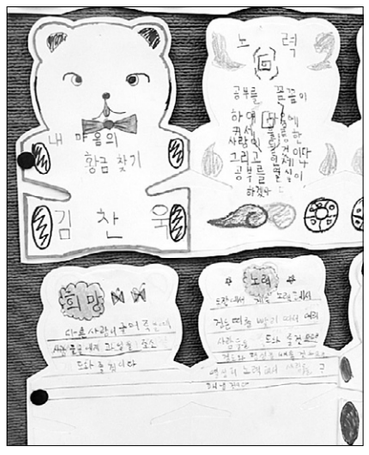
고교에서 국사를 가르치는 홍은화 교사는 "'나'를 바로 세우는 길이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는 생각으로 아이들을 지도해왔다"며 "'한나무 인성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내 마음→내 행동→우리 가정→ 우리 사회→우리나라→우리 역사의 변화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이해하고, 스스로 변화하는 모습에서 환희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모든 것 갖춘 인간, 자신 찾도록 도울 뿐

'한나무 인성교육프로그램'은 미성년인 청소년도 모든 것을 갖춘 완전한 존재로 바라보는데서 출발한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한마음과학원의 '한나무 인성교육프로그램'에 따라 아이들이 명상을 하는 모습(위), 명상후 아이들은 알록달록한 종이(마음의 여행노트, 오른쪽)에 마음 속에서 무엇을 녹일지, 케낼지를 적는다.



때문에 프로그램은 본래 갖춰진 성품을 온전히 드러내 발현할 수 있도록 돕고, 폭넓은 안목을 갖추도록 돕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나무 인성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학생은 자아와 세계를 개체성과 전체성을 통일적으로 인식하도록 유도된다. 자연, 생명, 인간이 어우러진 공생(共生)의 열린 세계관을 갖춘 학생들이 전체가 조화롭게 살아가는 실천행으로 자아계발을 삼도록 설계돼 있다.

김용환 실장은 "'한나무 인성교육프로그램'은 자유와 평등을 하나로, 내재된 무한의 잠재력을 스스로 발현하게 돕는다"며 "이는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이 둘 아닌 동체대비(同體大悲)의 실천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했다. (031)471-6926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한나무 인성교육 프로그램 구성

'나'를 시작으로 다른 생명과의 교류 공간 확대에 따라 가족, 친구, 주변의 생명, 사회, 지구공동체 등 6개 생명의 장으로 구성돼 있다.

나 공동체
↓
가족 공동체
↓
또래 공동체
↓
주변의 생명
↓
사회 공동체
↓
지구 공동체

마음일기

어제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었다.

대화는 내 일상생활이나 앞으로 해야 할 일, 반성할 일 등을 말했다.

하지만 이 대화는 평범하지 않은 대화였다. (그동안 아버지와 대화할 때는 사고 치거나 반항할 때 빼고 오래 이야기 해본 적은 없었다.)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에 나는 화가 나기도 하고 감동 받기도 했다.

아버지 말씀이 꼭 내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내게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 말씀을 생활화한다. (솔직히 말하자면 아버지 말씀을 꼭 따라 해 본 적은 그렇게 많지 않다.)

아버지가 내게 그런 관심을 갖는 것처럼 나도 잘해 드려야 겠지만 나는 마음이 열리지가 않아서 아버지에게 그런 말씀을 해 본 적이 없다. 이제는 아버지가 아니라 내가 먼저 마음을 열어야겠다.

선생님의 답변

두현아! 정말 좋은 마음을 냈구나. 바로 그거야. 상대방에서 먼저 배려하고 상대방이 마음 내줄 때를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마음을 내고 녹여 나가면 돼. 그러면 마음이 서로 통해서 내가 낸 마음처럼 된단다. 마치 전기스위치를 꽂은 전구처럼.

한마음과학원 '한나무 인성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한 한 초등학생의 마음일기와 교사의 답글이다.

교사 · 학생간 소통과 마음 돌아봄을 강조한 '한나무 인성교육프로그램'은 한나무 사이트(hannamu.org)와 교재를 활용해 마음일기를 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프로그램은 2004년 한마음과학원 회원 및 공생실천과정 졸업생을 중심으로 초등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팀이 구성되면서 시작됐다. 같은 해 중등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팀이 꾸려지며 수차례의 사례발표회와 연수를 거쳐 완성된 '한나무 인성교육프로그램'은 참가 학생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07년 EBS '똑똑교육충전소'에 소개돼 학부모들의 폭발적 관심을 끌기도 했다.

김용환 기획조정실장은 "얼마 전 일식에서 보이듯 태양은 본래 있으나 달이 가리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번뇌가 덮고 있는 것"이라며 "'한나무 인성교육프로그램'은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를 현대적 의미로 과학화해 대중에게 도움이 되도록 연구해 온 결과"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한나무 인성교육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체험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돕고 △'나'를 단순한 개체가 아닌 생명공동체로 인식해 주인의식을 갖게 하며, △'나' 뿐 아니라 주변의 모든 것이 하나의 생명공동체임을 인식시켜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심을 길러준다"고 설명했다.

한나무 사이트는?

한나무 사이트(hannamu.org)는 초 · 중 · 고교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마음공부를 할 수 있도록 개발된 인성교육 전용 사이트다.

사이트는 학생간 소통의 공간인 '우리반'과 교사간 수업자료를 모은 '인성교육', 동영상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한 '자료실', 마음일기 등을 적을 수 있는 '과외활동', 교사끼리 소통할 수 있는 '나눔마당'의 다섯가지로 구성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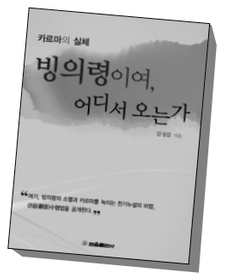
한마음과학원 기획조정실 곽은선씨는 "한나무 사이트를 통해 학생은 선생님과 친구를 만나고 마음일기를 쓰고, 이를 공유할 수 있다"며 "한나무 사이트는 교사 · 학생간 소통에 그치지 않고, 학급에서의 인성교육을 가정으로 잇는 역할도 한다"고 강조했다.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게재 · 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지사장명	연 락 처
부산지사	오 세 룡	051)632-0064 / 011-847-1211
대구지사	손 문 철	053)768-8008 / 016-813-8008
충청지사	혜철스님	043)732-5560 / 010-9422-8453
경남 동부지사	혜봉스님	055)353-1196 / 017-650-1196
경남 서부지사	영민스님	055)355-7472 / 011-9312-2228
광주전남지사	양 행 선	062)384-3009 / 016-629-1508
전북지사	조 동 제	063)910-8977 / 011-9642-7733
영주지국	박 영 애	054)634-3429 / 011-9373-3778
경남 남부지사	청운스님	055)746-9778 / 011-870-0021

화제의 신간
〈카르마의 실체〉
빙의령이여, 어디서 오는가?
마음공부는 마음을 비우는 것. 그때 맑음이 온다. 맑음은 법신이다. 여기, 빙의령의 소멸과 카르마를 녹이는 천기누설의 비법, 관음(觀音)수행법을 공개한다.


김성갑 지음 / 신국판 / 336쪽 / 정가 12,000원

〈관음과 수식관 氣〉
행여, 깨달음을 얻으시려거든
법신(法身)은 순백의 맑음. 기(氣)는 법력이 아닌 에너지일 뿐이다. 생각을 작게 하는 것은 일심법의 핵심. 하지만 무상정득정각은 무심만이 얻을 수 있다.


김성갑 지음 / 신국판 / 288쪽 / 정가 12,000원

숨이 배꼽근처에서 멈춘다 오쇼 라즈니쉬 지음 / 길연 옮김 신국판 / 242쪽 / 12,000원

육임이 보인다 功念 지음/4×6배판/양장본/70,000원
이게 풍수다 신국판/성재권 지음/15,000원
新사주학 핵심비결 신국판/송월스님 지음/50,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김백만 편저/신국판/양장본/50,000원
그림 당사주 대전 4×6배판/이선암, 전호일 공저/25,000원
한국인의 신 사주팔자 신국판/양장본/김성진 지음/35,000원
적천수 형의(上·下) 신국판/양장본/공유성 지음/40,000원

관음출판사 Tel. (02)921-8434 Fax. (02)929-3470 신한은행 110-012-066080 예금주(소광호)

일주문



라오스 친선협회 구인사 예방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은 7월 26일 단양 구인사에서 한 · 라오스의원친선협회 사야론 회장 등 라오스 대표단의 예방을 받았다.



인성형 비만치유학교 개강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은 8월 14일까지 '인성형 아동청소년 비만치유학교' 입학생을 모집한다. (02)2011-1903



관음성지 합창단 단원 모집

경주 불국사 주지 성타 스님은 '관음성지 합창단'을 수시 모집한다. (054)746-2211



금강경 수기법회 회향

범어사 주지 정여 스님은 7월 28일 설법전에서 마지막 강의를 끝으로 5월 26일부터 진행한 금강경 1250제자 수기대법회를 회향했다.



제주불교 중흥 특별기도정진

제주 관음사 주지 원종 스님은 7월 22일 입재식을 갖고 제주불교 · 관음사 중흥 100주년 특별 기도정진에 들어갔다.



안성 하나원 수계 법회 봉행

천안 만일사 주지 마가 스님은 7월 16일 안성 하나원 통일법당에서 새터민 55명을 대상으로 수계식을 개최했다.



선재사찰음식문화연 사찰음식특강

선재사찰음식문화연구원 원장 선재스님은 7월 28~29일 성균관대 여름학기 수업에 참여한 독일 슈타인바이스대 대학원생들에게 사찰음식 특강을 했다.



동국대 카누부 카누선수권 금메달

동국대 경주캠퍼스 손동진 총장은 7월 16~20일 싱가폴 2009아시아대학 카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4개를 획득한 동국대 카누부를 치하했다.



제28차 한국불교1600년대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이경환 회장은 8월 6~9일 여주 신륵사에서 '제28차 한국불교1600년대회'를 개최한다. 02)723-02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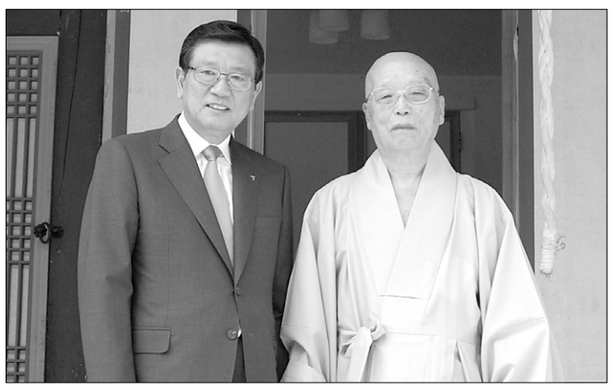
인사

▲불교방송: 정치외교팀장 김봉래 CP, 경제산업팀장 박경수 차장 8월 1일자 임명.

"송광사 오니 마음 편해지고 새 힘 납니다"

송광사 방장 보성 스님 친견 금호아시아나 박삼구 명예회장

최근 명예회장으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7월 22일 그룹창업자인 부친 박인천 회장 25주기를 맞아 영가가 모셔진 순천 송광사(주지 영조)를 찾았다.



일선 퇴임 기자회견을 5일 앞둔 이번 송광사 참배는 그룹 유동성 위기 속에 관계악화로 인한 동생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퇴임 등 형제공동경영이 25년 만에 막을 내린 터여서 더욱 눈길이 갔다.

박 회장 친가와 외가, 처가 등 일가는 이름난 불교집안으로 백양사 범어사 화엄사 불갑사 송광사 등에 전각 및 동종 시주 등 신심이 깊은 것으로 유명하다. 특히 송광사는 박인천 회장 별세 후 초재와 49재를 모신 곳으로 고인이 생시 지장전 건립에 전액 시주하는 등 인연이 깊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참배에서 박 명예회장은 송광사 부친 위패와 형인 고 박성용, 박정구 회장 영가등을 차례로 둘러보고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이어 박 회장은 방장실을 찾아 보성 스님을 친견했다.

보성 스님은 "팔만대장경 등에 있는 부처님 말씀은 마음을 편히 가지라는 것"이라며 "회장 마음이 불안하면 아랫사람들이 아무 것도 못하니 특별히 마음을 편히 먹어달라"고 당부했다.

보성 스님은 이어 "창업회장과 형님회장들도 욕심이 없었던 분들"이라며 "회사가 번영하고, 가족이 화합하기 위해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또 스님은 올해 100세를 맞은 박 회장의 모친 이순정 여사의 안녕을 위해 오대산 상원사 문수보살상을 담은 사진액자 등을 전했다.

액자를 받은 박 회장은 "어머니가 120세까지 사실 수 있게 스님께서 기도해달라"고 했고 보성 스님은 "아들 하기에 달린 것 아니냐"고 답해 좌중에 폭소가 일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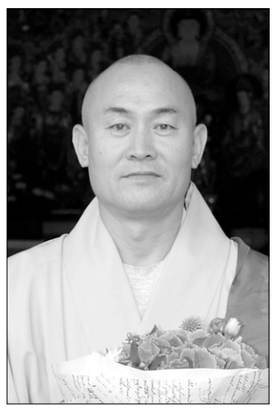
참배와 친견을 마친 박 명예회장은 송광사 국사전 등을 둘러본 후 주지 영조 스님에게 학인스님 학습지원용 45인승 버스 1대를 기증했다. 박 명예회장은 귀경길에 "마음이 참 편하다. 새 힘이 나는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명예회장은 28일 그룹내 사내망에 '그룹임직원에게 드리는 글'에서 "책임을 부인하지 않겠다"며 박인천 회장님의 창업정신과 도전정신이 가장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남북 민간교류 물꼬트기 앞장"

민추본 신임 사무처장 진효 스님



7월 24일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명진, 이하 민추본) 신임 사무처장으로 임명된 진효 스님(사진)은 "남북 경색국면에서 민추본이 불자들에게 평화와 통일의 중요성을 알리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진효 스님은 남북 민간교류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불교계가 물꼬를 터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통일부의 대북강경정책 등 정권에 따라 바뀌는 정책기조와 관계 없이 불자들은 꾸준히 서로 화합하고 뭉쳐야 한다"며 "같은 민족임을 되새겨 인도적 차원에서 끊임없이 경색국면을 풀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스님은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력, 남북불교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불자들을 대상으로 통일교육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해 인식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진효 스님은 "2010년 민추본 10주년을 맞아 기념백서 발간과 심포지엄 개최 등으로 그동안의 성과를 정리하고, 새로운 비전을 밝힐 것"이라며 "불교계가 새로운 시대에 민족의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민추본 스스로의 도약을 준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진효 스님은 1980년 해인사에서 일타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87년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1996년부터 조계종 총무원에서 상임감찰, 사서국장, 사회국장, 재정국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동두천 서광사 주지를 맡고 있다.

노덕현 기자

"정대불사 가피력으로 경제회생 기도"

보현사, 패엽경 정대불사 대법회 봉행

태고종 통영 보현사(주지 묵원)는 7월 12일 보현사 경내에서 중앙사정원장 월운 스님을 증명법사로 국가경제 회복을 기원하는 '패엽경 정대불사 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정대불사 대법회에는 충남교구 종무원장 혜산 스님과 비구니회장 행득 스님, 비구니원로 혜득 스님 등 30여 스님들과 1000여 불자들이 동참했다.



전국 각지에서 온 1000여불자들이 패엽경 이운으로 발심서원하고 있다.

패엽경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말씀을 패다라 나뭇잎에 철필로 새기고 먹물로 입힌 경전이다. 이번 보현사 정대불사에 모셔진 패엽경은 보현사 회주 혜화 스님이 17년 전 미얀마 종교성으로부터 기증받은 350여 권과 남원 관음사에 모셔진 150여 권 등 총 500여 권이다.

정대불사 법회는 제1부 영산법회와 제2부 국가경제회복기원 법요식, 제3부 정대의식의 순서로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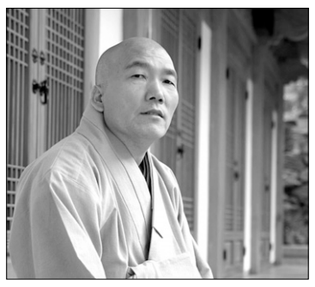
중앙사정원장 월운 스님은 법어를 통해 "고려시대 해인사 팔만대장경 조성으로 전 백성이 대통합을 이뤄 국가적 어려움을 극복한 것처럼 패엽경전 정대불사의 가피력으로 국가 경제가 회생되길 기도하자"고 당부했다.

주지 묵원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패엽경전이 보현사에 봉안된 인연을 설명하고 "정대불사로 부처님 가르침을 되새기고 서원을 발원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법회에는 윤달을 맞아 경기도 부천 보현사, 충남 당진 대호사, 전남 영광 은선암, 경기도 양평 보광사, 송덕암 등 지역 사찰의 불자들도 동참해 법석을 더욱 빛냈다.

혜철 충청지사장

푸른아카데미 초청강좌 원명 스님 법문



푸른아카데미에서 강연한 원명 스님

제천시와 사단법인 인간개발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는 제148회 푸른 제천 아카데미강좌가 7월 23일 제천시 문화회관에서 500여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강사로 초청된 원명 스님(원각사 주지)은 '참 좋은 인연입니다'를 주제로 인연의 소중함을 깨달아, 보다 행복한 삶을 이어가도록 강의했다. 스님으로는 유일하게 강사로 초청된 원명 스님의 주옥같은 법문은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푸른 제천 아카데미강좌는 시민과 공무원 군인 유관기관 단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매달 둘째주, 넷째주 목요일 오후3시부터 5시까지 국내 저명한 강사를 초청해 시민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는 교양강좌이다.

혜철 충청지사장

'소나무향기와 더불어' 고운사, 초등생 수련회



수련회를 마친 고운사 스님들과 어린이들.

의성 고운사(주지 호성)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보시바라밀 실천 수행 프로그램 '소나무향기와 더불어'가 이목을 끌고 있다.

100여명의 3~6학년 학생들이 자비명상 등 사찰문화 체험, 생태체험을 진행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부모님상장 만들기, 야생화관찰, 걷기명상 등이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돼 큰 호응을 받았다.

호성 스님은 입재식에서 환영사를 통해 "이번 수행으로 나의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박영애 영주지국장

2009년도 2학기 신입생모집 동방대학원대학교 문화교육원

특별 최고 과정	책임교수
풍수지리학 최고지도자과정	최병용
명리학 최고지도자과정	유방현
실상철학 최고지도자과정	안병철
한국전통 국악지도사	이정석

전문 최고 과정	책임교수
실전 사주명리학 영업 전문가과정(정규반/토요반)	김동현
육효학 전문가과정	최대환
타로카드 전문가과정	김희수

일 반 과 정	
건강과 양택 풍수인테리어	정안석
고미술품 감정학	정 황
관 상 학	최인영
구궁통기	나광영
구성기학	김도희
기문둔갑	신정균
논리로 푸는 사주학 Ⅰ	김윤연

일 반 과 정	
논리로 푸는 사주학 Ⅱ	박성희
논리로 푸는 사주학 Ⅲ	소재학
도가경전강독	윤무학
명리학 기초	정재혁
명리학 용신론	유경진
명리학 현장강의	장순옥
명상음악치료	보경스님
민 화	권청자
민속음악	이생강
문 인 화	하영준
불교전통의식(기초)	상진스님
불교전통의식(전문)	상진스님
사랑과 연민의 대화	김점란
사주내정법	윤예지
성 명 학	윤예지
실전치유기공	박형용
실전 추나(교정)요법	조혁태
실전 테이핑 요법	조혁태
인 상 학(야간반)	박정희
인 상 학(주간반)	박정희
약선요리와 전통요리	우신자
역점독해	조주은

일 반 과 정	
요가치유	임동호
유가경전강독	윤무학
육 임(실전반)	조태운
육 임(초급반)	최용균
육 효 학	김도희
이름으로 푸는 사주학	안희성
주역원전	신성수
최면치료	설기문
카이로프랙틱	정지문
한국무용(기본반, 살풀이춤, 민요춤)	한주연
한방과 사주학	한승철
현공풍수학	한승철

학점은행제		
동양화 전공 (12과목)	문인화 Ⅰ	하영준
	문인화 Ⅱ	박병배
	서예 Ⅰ	곽노봉
	서예 Ⅱ	곽노봉
	수묵화 Ⅰ	최현익
	동양화기법	이용석
	기초동양화	하영준
	동양화론	하영준
	서화론	곽노봉
	채색화 Ⅰ	박만규
	현대회화론	하영준
	미학개론	하영준

학점은행제		
불교문예	불교학개론	심상현
	불교문화의 이해	주명철
자연치유	명상과 단전호흡	김형록
	스포츠댄스	천수정
외 국 어	영어	백원기
	생활중국어	조숙주
문화정보	공연기획과 실행	정달영
	인공지능의 이론	김두완
동양철학	중국철학사	윤무학
	유가철학	윤무학
전통공예	옻칠의 성분분석	권순섭
	옻칠기법	권순섭
미래예측	생활역학	박영창

등록기간
2009년 9월 1일 화요일 까지

등록방법
방문 및 전화접수(과목별 선착순마감)

개 강
2009년 9월 1일 화요일

지원자격
학력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가능
(단, 학점은행제과목은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의 학력 인정 자)

문 의 처
■ 전 화 : 02)3668-9890, 9872
■ 주 소 :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292-1
■ 오시는 길: 4호선 한성대입구역 6번 출구 → 버스환승 1111번, 2112번 → 동방대학원대학교 정류장 하차

※ 본 교육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시면 동방대학원대학교 총장명의의 수료증이 수여되며, 풍수 · 명리분야는 자격기본법에 의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02)3668-9890, 9872 www.dongbang.ac.kr

자장 스님의 초가(草家) 월정사

문수보살이 빗속에서 선지식을 기다리네 • • •



오대산을 넘어온 젖은 구름이 보슬비를 뿌린다.
천년 숲이 비에 젖고,
비에 젖은 전나무숲길 끝에는 천왕문이 열려있다.
월정사다.

딱새들이 이리저리 날아다닌다.
적광전 앞 구층석탑은 젖은 풍경(風磬)을 털고,
자장 스님이 그토록 기다렸던 문수보살은
언제부터인지 석탑 곁에서 비를 맞고 있다.
그 옛날 당나라에서 돌아온 자장 스님은
이곳에 초가를 짓고 문수보살을 기다린다.
스님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입적한다.

스님 한 분이 적광전에 들어 백팔배를 올린다.
스님도 자장 스님처럼 문수보살을 기다리는 것일까.
스님은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문밖에선 문수보살이 보슬비를 맞고 있다.

하늘이 다시 맑아진다.
도량엔 햇살이 돋고,
햇살을 따라 나온 육수암 스님들이 숲길을 걷는다.
천년 숲은 한 순간처럼 서있고,
앞서간 발자국들은 빛바랜 단청처럼 세월을 보탠다.
발자국들이 길 끝으로 사라지고 날이 저문다.
종각의 범종소리 멀어지고,
월정사 현판으로 달빛이 다가온다.

글 · 사진=박재완 기자





월정사는…
신라 선덕여왕 12년(643)에 자장 스님이 창건했다. 자장 스님 입적 후 신의 스님이 암자를 세워 머물렀으며 이후 한 동안 머무는 스님이 없어 황폐해졌다가 유연 스님이 암자를 세우면서 사찰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했다. 고려 충렬왕 33년(1377)에 화재로 모두 타버린 도량을 이일 스님이 중창했으며, 조선 순조 33년(1833)에 다시 화재로 타버린 도량을 헌종 10년(1844)에 영담, 정암 스님이 중건했다. 1950년 한국전쟁의 참화로 17동의 전각과 소장 문화재가 모두 소실됐으나 1964년 이후 탄허, 만화, 현해 스님 등이 중건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불경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실물크기 (소) 3.5 × 5cm
(중) 5 × 7cm

금강경 천수경 반야심경
지장보살본원경요품
관세음보살보문품
묘법연화경 요품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 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오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복장의식 불상량식 소장사 영가천도용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며 세세생생 선근의 인연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108염주, 단주
흑단무늬목 / 흑단무늬목천주
크기 : 8mm×10mm×12mm 55,000원
10mm×10mm×12mm 65,000원
12mm×10mm×12mm 85,000원
흑단무늬목염주는 가격이 저렴하여 보시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대) 26×16×16cm ~~155,000원~~
→ 할인가 12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없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복받을 마음을 이루어 주며 입에서 향이 뿜어져 나와 예불시에도 사용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氣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향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 입니다.

◈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온열뜸기 의료기인증. 의료용전자기발생기
전기용품 안정인증. LIG 배상보험 가입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실용실안출원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청소년 나들이

두송복지관 여가지원

(사)늘기쁜마을 두송종합사회복지관(대표이사 지현)은 7월 25일 놀이공원에서 청소년 여가지원 프로그램 'Light! Right!'로 지역 내 저소득가정 청소년들에게 특별한 나들이를 선사했다.

청소년에게 올바른 여가문화를 마련해주기 위해 열린 이번 프로그램에는 지역 내 저소득 가정 및 일반 가정 청소년 13명과 인솔교사 등이 함께 대구 우방랜드에서 지친 일상과 학업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색다른 여가문화를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

박지원 기자

5박6일 용맹정진

여래선원 8월 11~16일

부산 도심 속 참선도량 여래선원(선원장 황갑규)은 8월 11~16일 5박6일간 용맹정진 법회를 연다.

여래선원 도량은 북구 화명동 신시가지 내에 자리하고 있어 수행 틈틈이 벗 삼을 자연은 없지만, 오직 '참선'에만 전념할 수 있기 때문에 참선수행을 하기에 탁월한 기도처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번 용맹정진법회의 일과는 입제 및 해제일을 제외한 기간에는 하루 12시간 정진한다. 매 식사는 발우공양으로 하며 점심과 저녁공양 후에는 식후 포만감으로 찾아올지 모르는 게으름을 108배로 다잡는다.

황갑규 선원장(58 · 현담)은 "용맹정진은 참선공부의 비결과 스스로의 공부를 비추는 거울이며, 도량 및 도반과 선지식의 공덕을 깨닫는 것"이라며 "경전을 읽고 참선하고, 법문을 듣고, 실참하는 등 여러 수행방법에서 좌절과 어려움을 겪었다면 이번 용맹정진은 분명 앞으로 나아갈 길을 여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051) 362-0339 박지원 기자

외국인 포교·불교영어 강좌 "맡기세요"

부산국제포교사회, 제14기 국제포교사 양성과정 개강

부산국제포교사회는 7월 27일 오후 7시 홍법사(주지 심산) 대웅보전에서 입제식을 갖고, 제14기 국제포교사 양성과정을 개강했다.

이번 교육과정은 대한불교조계종에서 실시하는 국제포교사 선발고사에 응시해 그 품수를 받기 위한 준비단계로, 공인된 국제포교사가 단 4명 밖에 없는 부산에서 국제포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전문 교육과정이 개설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은 입제 법문에서 "이웃종교는 획기적이고 집요한 선교전략으로 빠르게 전도하고 있지만, 불교는 기도 등 사회와 동떨어진 주먹구구식 포교로 현대인의 공감을 얻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한국불교의 희망을 부산에서 찾는다는 격려를 많이 듣곤 하는데, 오늘의 마음이 회향하는 날까지 이어져 희망을 이끌 원력을 모아 함께 공부해나가자"고 설했다.





부산국제포교사회는 7월 27일 홍법사에서 입제식(오른쪽)을 봉행하고 제14기 국제포교사 양성과정을 개강했다.

연수기간은 7월 27일 입제식 및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12월 17일까지 매주 월 · 화요일 오후 7~9시까지 2시간씩 총 5개월 과정으로 진행된다. 커리큘럼은 포교사로서 갖춰야할 기본 소양인 불교 기본 교리와 경전, 인도 · 중국 · 한국 · 티베트 · 미국 등 국가별 불교역사, 불교수행방법론, 이웃종교와의 비교 및 철학적 비판, 호스피스와 포교, 한국 불교의 현재와 미래 등에 관한 깊이있는 내용을 배우고, 영어로 표현할 수 있는 자질을 기르게 된다.

외국인 포교와 불교영어 전문강사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된 만큼 참가자 전원은 사전 면접을 통해 영어의 기본지식은 물론, 포교사로서의 자세와 불교에 대한 기본 소양 등을 엄중한 심사를 거쳐 선발됐다.

부산의 모 중학교에서 영어교사로 재직 중인 정상숙(52)씨는 "영어는 자신 있지만, 불교를 너무 몰라 외국인을 만났을 때 사찰과 불교문화에 대해 더 깊이 있게 소개하고 싶어 참가했다"며 이번 교육에 의욕을 보였다.

또 범어사에서 사찰안내 관련업무를 맡은 오세찬(48)씨는 "평소 전통사찰 범어사 등에서 방문객들과 사찰안내 · 문화재해설사로 만나고 있지만, 영어능력이 향상되면 외국인들에게도 보다 효과적으로 포교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기대했다.

30년 전 호주로 이민 간 후 잠시 한국에 머무는 동안 참가한 임진삼(50)씨는 "우리 아이들과 멀리 호주에서 자랄 이민 2~3세들에게 한국의 불교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해외교포들에게는 영영 잊혀지고 말 것 같아 안타까워 참가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신과 의사 정성수씨는 "그간 알코올 중독증 치료에서 불교의 한 수행법인 위빠사나명상법을 활용했는데 큰 성과가 있었다"며 "이번 국제포교사 교육과정은 나뿐만 아니라 환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 같다"고 밝혔다.

추후 국제포교사 고시에 합격하면 국내 및 해외 거주 외국인과 해외교포들을 위한 불교 영문 자료 발간, 각종 국제행사, 국내 외국인 노동자 행사, 미8군 행사, 외국인 템플스테이, 통역 및 문서 번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게 된다. (051)508-0345 박지원 기자

"대북정책은 '국민적 합의'에 따를 터"

민불협, 홍양호 통일부차관 초청 종교지도자 상생공영포럼 개최

부산지역 종교지도자 및 시민을 위한 남북관계 현황과 대북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들어보는 포럼이 개최됐다.

(사)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의장 법혜)는 7월 24일 오후 2시 코모도호텔 그랜드볼룸에서 홍양호 통일부 차관을 초청해 부산지역 종교지도자 상생공영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부산종교인평화회의 상임대표 정각 스님과 부산기독교장로총연합회 명예회장 양원장로 등 각 종교 지도자 및 일반 시민 500여 명이 참석했다.



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는 7월 24일 홍양호 통일부 차관 초청 부산지역 종교지도자 상생공영포럼을 개최했다.

홍양호 통일부 차관은 '남북관계 현황 및 대북정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한 특강과 자료집을 통해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은 역대 모든 정부의 일관된 대북 포용원칙을 기반으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관계를 진전시켜, 남과 북이 공존 공영하자는 것"이라며 "대북정책 추진의 제1원칙은 '국민적 합의'라는 점을 인지하고, 정부가 힘있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민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나가자"고 밝혔다.

또한, 북핵에 관해서는 "핵 문제의 해결없이 남북관계가 순항할 수 없기에,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폭넓은 대북지원과 북한 경제발전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지원할 것"이라며 북한의 발전적 변화를 촉구했다.

박지원 기자

우리지역 부루나존자

(사)동련 대한불교교사대학 김광호 부학장

"어린이포교로 남은 생 회향하고파"

어린이 포교의 열정이 가득찬 뜨거운 가슴으로 어린이들에게 불법을 전하는 어린이포교계의 액션스타, (사)동련 대한불교교사대학 김광호 부학장(법명 현묵)을 만났다.

"제가 2005년 <엄마 따라 절에 가기>란 제목의 기초 불교 교양서적을 펴냈는데, 그후로 아무리 기다려도 거사님들은 감감 무소식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버님들을 절에 모셔오고 싶어서 이번에 <아빤 왜 절에 안 가?>를 출간하게 됐습니다."



이번 책은 <엄마 따라…>의 개정판이지만 전에 없던 '쓴 소리'를 새롭게 첨가했다. 사찰의 기원과 구조, 공양과 사찰예절, 석가모니 부처님과 십대제자, 부처님의 가르침과 실천, 불교미술, 불교의 세계 등 총6장으로 구성된 290여 페이지 곳곳에 김광호 부학장이 재가불자와 스님, 종단 등 불교계 전반을 지켜보며 느꼈던 아쉬움들을 애정어린 '쓴 소리'에 담았다.

"부모님 손잡고 절에 간 아이들이 '이건 뭐야?'라고 물었을 때 명쾌하게 대답해주는 보살님들이 얼마나 계실까요? 또, 불자라고 매일같이 법당에 드나들고 기도하는 신도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책 속의 제 '쓴 소리'가 '단 소리'가 돼 수많은 불보살님들이 지혜의 소리에 '얼씨구나!'하고 깨침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수십년을 절에 다녀도 법당 부처님 이름조차 모르는 이들은 '나일론 불자', 법당 청소를 게을리 해 곰팡이가 피거나 물잠자리의 알을 보고 우담바라라며 과대광고 하는 이에 일침을 가하고, 불교를 폄하하는 이웃종교인과 맞닥트렸을 때 대처하는 방법까지. 다음 쓴 소리가 궁금해 책장이 절로 넘겨진다. 몸에 좋은 약이 입에는 쓰다는 옛말이 꼭 맞다.

이러한 김 부학장의 '쓴 소리'는 1999년 대한불교조계종 포교대상 원력상 수상, 부산경남 포교사단 어린이분과위원장 및 상벌위원장을 거쳐 현재 부산 금화사 초등불교학교장, 대한불교교사대학 부학장에 이르는 포교의 행보로 쌓인 내공이다. 십수 년전 부산 금화사 불교교양대학을 다니면서 어린이불자를 양성하는 일로 남은 여생을 회향하기로 마음먹고 천자문교실을 열었지만 재정난과 운영의 어려움으로 반년 만에 문을 닫았다. 그때 어린이포교전문기관인 (사)동련의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에서 어린이포교의 노하우를 배워, 금화사 초등불교학교로 다시 문을 열어 지난 11년간 그 인기가 식을 줄을 모른다.

천진불을 위한 <일기로 배우는 영어, 한자 표현사전> <영어로 배우는 4개 국어> 등 유익한 학습참고서도 틈틈이 펴냈다.

'어린이포교' 한길을 걷는 김광호 부학장의 발걸음은 쉼이 없지만, 아직은 성공의 기쁨보다는 아쉬움이 많다. 바로 그가 우리 불교의 밝은 미래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될 부루나존자인 이유다.

"절에 아버님들이 안 오시면 불교의 미래는 없어요. 약주 대신 차 마시고, 등산 대신 108배 하고, 여행대신 템플스테이하러 오세요. 어린이 불교는 기초공사니까 당연히 중요하지만, 힘이 있는 아버님들이 안 오시면 우리 불교는 이대로 쓰러지고 맙니다."

박지원 기자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장사성공과 사업성공 축원불공 마쳐!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경기가 너무없어, 장사가 너무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않좋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풍수학적으로 보면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다.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건물 한지붕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을 볼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생활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장사 성공을 기원하는영험의 법구로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수 있다. 경제대국 일본의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 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수있다. 장사흥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가로8cm 세로3.5cm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금니로 제작해 품위도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린다.

보시가격: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02)741-4488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타,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곡상,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자동차용호신불

세상에서 평생 아름다운 선물



앞면 뒷면

호신불규격직경3.5cm,세로4.5cm



자동차사고 예방 점안식과 축원불공마쳐!

자동차를 타고가다보면 운전석위에 염주를 고정시켜 걸고 다니는 차를 종종 보게된다. 염주는 부처님께 예불을 드리는 공양법구로 차에 고정시키는 것은 잘못된것이다. 부처님 법구중에는 중생들이 사는동안 액운과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각종 비방의 법구들이 있다. 그중에서 달리는 자동차에 꼭 맞는 법구가 반가사유상 호신불이다. 우리나라 호신불의 역사는 삼국시대 신라부터 전쟁에 나가는 장수들과 귀족들이 지니고 다녔다. 신라가 통일전쟁을 벌일때에 화랑장수와 화랑장수의 말에 왕이 직접 전장에서 죽지말고 승리하고 돌아오라는 뜻에서 목각으로 만든 반가사유상호신불을 하사했으며 호신불을 몸에 지니고 전장에 나간 장수와 말은 죽지 않고 승리하고 왔다고 전해진다. 한치 앞도 모르는 험한세상 하루에도 교통사고로 수백명씩 사망 또는 중경상으로 편한날이 없는 오늘도 안녕을 지키는 수호신인 반가사유상 호신불을 운전하는 아내와 자녀에게, 운전하는 남편께, 존경하는 친지에게, 사고예방과 생명안전을 기원하는 선물을 한다면 평생 이름다운 선물이 될것입니다. 신라 화랑장수와 귀족들이 수호신으로 사용했던 호신불을 재현한, 반가사유상 호신불 뒷면에는 운전하고 가는곳마다 계획한 일들이 성공되게 비방의 "반장"과 백연화를 넣었다. 생명보호와 자동차사고 예방 축원불공을 마친 금동호신불을 자동차 운전석 위 룸밀러에 걸고 다니면 안전하고 품위가 있다.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이 있으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운전하는 가족친지에게 사고예방의 선물
차량구입시 사고예방과 생명보호의 선물

가격45,000원

신청전화 : (02)741-4488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영험의 구슬



보궁여의주

필승합격과 승진의 영험

여의주는 글자 그대로 원하는것이 이루워 진다는 구슬이다.

전설에 따르면 아들형제를 데리고 어렵게 살아가는 어머니가 남섬부주 바닷가에 떨어져 있는 구슬두개를 너무나 아름답고 신비해 집에 가져왔다.

집에는 관료가 되어 어머니를 편히 모시겠다는 형제가 시험만 보면 번번이 낙방을 하며 세월만 보내고 있었다. 아들에게 집에 오는길에 예쁜 구슬을 주었다고 보여주었다. 구슬을 본 형제는 참 신비한 구슬 같아요, 어머니는 아들 형제에게 하나씩 주었다. 그후 매번 낙방만 하던 형제가 그해 관료에 등과되어 어머니는 소원을 이루고 건강장수 하고 관료가된 형제는 큰 공덕을 쌓으며다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각종 불경 해설서를 보면 제석천왕과 아수라가 싸울때와 전륜성왕이 바위를 부술때에 남섬부주에 떨어져 변한것이라고도하고 용왕의 몸에서 나와 사람이 여의주를 집안에 두고만 있어도 독이 헤칠수 없고 불속에 있어도 타지않고 권세와 명예를 얻는 공덕이 있는 구슬로 사갈라 용궁에도 있고 여의륜관세음부처님 두손에도 들고있어 중생들이 뜻한바가 이루워지는 비방의 법구로 삼고 있다. 시험을 보고나면 꼭 1~2점차로 낙방을 한다. 수험생들은 한두문제로 인해 1년을 또 고통속에 시험준비를 하고, 승진시험도 승진심사날 심사위원의 마음이 누구에게 가느냐에 달려있다.

■ 시험을 보면 꼭 1~2점차로 낙방

보궁여의주는 부처님의 지혜인 금강의 지혜를 주고 부처님 가피로 승리하는 비방의 법구다.

필승합격과 필승 승진을 위한 축원불공을 마친 보궁여의주는 길상원목으로 품위있게 제작하고 수험생의 필승합격을 위해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일 축원불공을 해드리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준다.

(신용카드분할가)

보시가격 : 95,000원

문의(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고창복지관, 어르신께 삼계탕 공양

27일 요양보호사 취업지원센터 개소

고창군노인복지회관(관장 무공 스님)은 복날을 맞아 지역 어르신에게 삼계탕을 제공했다.

고창군노인복지관(관장 무공 · 운영위원장 법만)은 7월 24일 복지관 경로식당에서 중복을 맞아 지역 어르신 400여 명을 초청해 건강하게 여름을 이겨낼 수 있도록 삼계탕 나누기 행사를 진행했다.

식사 후에는 백발이 성성한 노신사들로 구성된 에버그린 밴드의 연주회도 열렸다.

무공 스님은 "복지관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어르신들에게 뜨거운 삼계탕 국물을 타고 마음속까지 시원함으로 전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어르신들에게 제공된 삼계탕용 닭 350마리는 해슬리치킨으로 유명한 성화식품(대표 이승준)에서 후원했다.

이어 복지관은 27일,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에서 무공 스님과 직원, 요양보호사 교육생 2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요양보호사 취업지원센터를 개소했다.

이번 사업은 전라북도에서 도내 지역주민의 일자리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2009년 지역고용특화사업에 선정된 결과로, 고창지역 내 실직여성이나 다문화가정 여성 100명을 대상으로 무료교육 및 취업이 연계된ONE-STOP 서비스가 동시에 이뤄진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완주 송광사 백련지 '인기'

전북 완주 송광사(주지 도영)가 작년부터 조성한 연지(蓮池)가 올해 들어 화려한 자태를 뽑내기 시작하면서 전북의 연꽃 명소로 새롭게 발돋움하고 있다.

6000여 평의 규모로 조성된 연지는 옛 송광사의 사명인 백련사에서 유래된 백련정이라는 정자를 준공한데 이어 백련지라 명명됐다. 송광사 백련지에서는 홍련, 백련, 황련, 홍백련, 청백련등 다양한 연꽃을 감상할 수 있다.

도영 스님은 "모든 이들이 자신의 삶을 뒤돌아 보고 마음을 닦으며 미래를 계획하며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백련지를 조성했다"며 "일체중생이 연꽃처럼 순수한 영혼을 간직하고 일심으로 송광사가 수행의 터, 깨침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도량이 될 수 있도록 정진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송광사는 8월 22일 송광사 백련지에서 인기가수 정태춘, 신형원, 강산에, 가야랑 등이 출연하는 산사음악회 '당신에게 연꽃향기를 전해드립니다'를 개최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군산 동국사, 다문화 가정 돕기 성금

군산 동국사(주지 종명) 불자들은 7월 24일 군산시청에서 108배로 마련한 성금을 다문화가정에 전달했다.

조계종 자비나눔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된 1배 100원씩 108배를 통해 마련한 성금 230만원은 수술비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정 셀마조이비씨(필리핀)와 춘부스틴씨(캄보디아)아들 조백호군에게 각각 100만원씩을 전달됐고, 농아인협회 군산지부에 30만원 기탁됐다.

동국사 총무 종걸 스님은 "적은 금액 이지만 지역의 소외 계층에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성금은 전국 조계종 사찰 신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백팔배를 통해 조성한 모금액으로 부처님의 대자대비하신 마음을 전하고자 해마다 소외계층 의료비, 긴급생활비 등을 지원사업을 펼쳐오고 있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미륵사지 사리친견 회향

7월 26일 회향법회… 문화복지연대, 달오름음악회 개최





7월 26일 열린 익산 미륵사지유물 전시회향 법회(왼쪽)와 25일 열린 달오름음악회.

6월 27일부터 한달간 진행된 부처님 진신사리 및 사리장엄 친견법회가 원만하게 회향됐다.

익산사암연합회(회장 우성, 백운사 주지)는 사리친견법회 일정이 마무리된 7월 26일 익산미륵사지유물전시관에서 스님과 불자 등 100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사리친견이 이뤄진 지난 한달간 전국에서 연인원 약 10만여 명이 미륵사지를 찾아 1400년전 백제인의 불심을 마음으로 느끼고 돌아갔다.

전시됐던 사리장엄은 문화재 연구소에서 보존처리를 거치게 된다.

익산사암연합회 회장 우성 스님은 "그동안 전국에서 오신 스님과 불자들을 맞이하느라 지역의 스님과 불자들이 노고가 많았다"며 "부처님 사리는 탑이 복원되면 다시 원래의 자리에 봉안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문화복지연대(대표 장용철)는 25일 '익산 미륵사지 달오름음악회'를 개최했다.

'I Love Temple 제 5회 전국 폐사지 투어'의 일환으로 열린 이번 음악회에는 2000여 시민들이 참석해 익산 미륵사지탑 모형 점등공연, 대중가수 안치환, 국악인 박애리, 오느름민족음악관현악단, 타악퍼포먼스 야단법석, 비보이 갬블러팀이 출연하는 음악회를 즐겼다.

문화복지연대의 폐사지 투어콘서트는 역사와 문화유산적 가치가 뛰어난 폐사지가 더 이상 도난, 도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함은 물론, 소중하고 올바르게 보존되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범 국민대상 폐사지 보호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익산 미륵사지 공연은 다섯 번째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한오르아세 음악회 부안 혜원사서

부안 혜원사(주지 정원)는 7월 25일 한오르아세 음악회(한국식오카리나로 만드는 아름다운 세상)를 개최했다.

완주 송광사 도영 스님, 선운사 법만 스님, 기획국장 종고 스님, 김호수 부안군수 등 500여 부안군민들이 참석한 행사는, 산사에서 영혼을 일깨우는 맑고 아름다운 오카리나 연주를 즐겼다.

전국에서 모인 김준모씨를 비롯한 한국식 오카리나 회원들이 '연꽃피어오르기' '여행을 떠나요'등 20여곡을 아련나래 앙상블, 한오르아세 앙상블이 아름다운 흙피리소리를 선사했다.

정원 스님은 "흙피리의 아름다운 음률과 함께 한국식 오카리나로 만드는 아름다운 세상이 오기를 기원한다"고 환영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또다른 나 발견한' 귀한 시간

금산사, 일반인 대상 선수련회 성황

김제 금산사(주지 원행)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마련한 '선 나를 깨치다' 수행 프로그램이 7월 20~26일 금산사 경내 서래선원에서 진행됐다.

간단한 사찰예법과 '수행이란 무엇인가'라는 강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정진에 들어간 수행자들은 부처님에 대한 존경과 자신의 수행의지를 다짐하는 예불, 스님으로부터 바른 호흡법과 좌선, 하심을 일으키는 108배, 명상, 간경, 고성염불, 걷기명상 등의 집중 수행을 통해 '나는 누구인가'라는 화두속에 또 다른 자기자신을 발견하는 계기를 가졌다.

특히 마지막날에는 3000배 정진 용맹정진을 회향하고 금산사 주지 원행 스님으로부터 미륵십선계를 수지했다.



금산사 템플스테이 장면.

금산사는 8월 4~6일에는 청소년 여름 불교학교를 8월 14~17일에는 '선 나를 깨치다'를 진행한다.

한편, 김제시청 불자들의 모임인 연우회(회장 김종규)는 7월 24~25일 김제 금산사에서 철야정진법회를 봉행했다.

30여 회원이 동참한 이날 철야정진은 옴마니반메훔 만트라 108배, 방등계단 탑돌이 촛불의식, 발우공양, 참선을 통해 신심을 다졌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우리지역 부루나존자

화엄불교대학 총동문회 상조위원장 신병균 거사

수행으로 다진 원력 포교의 동력

전주의 크고 작은 불교 행사에 가면 항상 남들 보다 항상 일찍 나와 행사진행을 돕고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돌아간 다음에도 끝까지 남아 뒷정리를 하는 거사가 있다.

바로 화엄불교대학 총동문회 상조위원장 신병균 위원장(사진)이다.



신 위원장은 전주지역 포교사 모임인 법륜회장과 김제 귀신사 신도회장을 역임했지만 단상 위에 앉기보다는 단상아래 보이지 않는 곳을 즐긴다. 묵묵히 자기 할 일만 하는 숨은 봉사자가 바로 신병균 거사이다.

신병균 거사는 항상 연장주머니를 허리춤에 차고 작업인부와 같은 모습으로 행사가 진행되는 중간에도 주변을 살피며 행사가 원만하게 진행되는지를 꼼꼼히 살핀다. 행사가 끝난 후에도 깔끔하게 뒷정리해 전주시 관계자들 사이에 '불교가 지나간 자리에는 흔적이 남지 않는다'는 칭찬을 듣는 것도 바로 신 거사의 보이지 않는 손길 덕이다.

신 거사는 어머니 등에 업혀 절에 드나든지 벌써 70년이 넘었다, 젊은 시절, 다니는 사찰의 송사에 발벗고 나서 삼보정재를 지켜내기도 했고 인근 건설현장의 발파작업으로 법당건물이 위험에 빠진 것을 송사를 통해 배상을 받아 낸 것도 신병균 거사였다.

평소 존경하는 청화 스님을 뵈러 김제 귀신사로 가게된 것이 인연이 돼 귀신사 신도회장까지 맡게 된 신 거사는 영산전 불사 당시 집 한 채가 넘는 돈을 남몰래 시주한 것이 뒤늦게 알려져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도 했다.

신병균 거사는 공사현장에서 떨어져 죽을 고비를 2번씩이나 넘기며 기사회생을 경험하기도 했다. 그런 경험 덕에 하심을 배웠다는 신 거사는 화엄불교대학 졸업 후 포교사 자격을 취득하면서 사회봉사에 눈을 떴고, 전북포교사단 사회봉사팀과 군법회팀에서도 활발하게 활동중이다.

최근에는 전북대 병원에서 실시하는 호스피스 교육도 이수해 전북대병원에서 호스피스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 신병균 거사는 전북불교자원봉사단 부단장과 화엄불교대학 총동문회 상조회장도 맡아 호스피스 활동과 염불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올해 71세인 신병균 거사가 젊은이 못지않은 열정과 신심으로 신행과 포교활동에 매진하는 원천은 무엇일까?.

신 거사가왕성한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까닭은 매일 퇴근 후에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경전을 독송하는 수행력 덕분이라고 말한다.

수행으로 다져진 원력은 신 거사가 화엄불교대학 동문회 상조회 활동과 전북대 병원의 법당건립에 매진할 힘이 되고 있다.

"죽을 고비에서 2번씩이나 살아난 것은 분명 부처님 가피입니다. 남은 여생은 덤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신병균 거사는 "남은 여생도 힘이 다하는 날까지 봉사하며 살겠다"며 오늘도 호스피스 활동등에 매진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업장소멸 법륜대 복장 행사 개최!"

지금 법당 탁자위에 한분 한분 명단이 적힌 경책이 쌓여가는 이유가 있다. 부처님이 새겨져 황금빛으로 빛나는 초소형 경책을 법륜대에 복장하기 위해서다. 집안을 위한 금강경과 건강발원으로 약사경, 수험생을 위한 반야심경에 이름을 붙여 복장하는 독특함이 있다고 한다.

한분 한분 제각기 다른 소원을 가지고 돌릴때마다 공덕을 쌓느라 법당에 줄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양쪽 법륜대의 1080분 명단이 돌아감은 물론 이름 수대로 경책을 할 수 있어 이 시대 포교와 사찰경제 지킴이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고 한다.



■ **법륜대 예약 대축제** (전시장에 직접 방문하시는 분에게 드리는 혜택)

1. 순금 개금비만 도착 시 지불하시고(봉안시) 나머지는 연중 4회 (정월, 봉축, 백중, 동지)로 나누어 지불하는 혜택을 드립니다.
2. 한분 한분 명단 및 주소를 적을 수 있는 카드형 권선문을 드립니다.
3. 법당 탁자 크기에 맞춤식 소법륜형, 보급형, 특대복장봉안작품이 있습니다. 직접 보시고 선택하시는 분에게 특별한 선물과 경책 견본을 드립니다.

한분 한분 수작업으로 법당 탁자 크기에 맞추어 직접 봉안하여 드립니다.

불사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중생의 업장 소멸법륜대를 가장 평안하게 봉안 할 수 있는 절묘한 기회입니다.
양쪽 법륜대 1080분의 명단과 복장 불사로(일억원) 사찰경제 기반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문의 덕유산 청다향 055)941-1083 / 010-4595-0017
생산지 :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1156-4 달마사

세상은 황금 우물 중생은 하늘 물고기… 아는 자 누구인가?

⑱ 선찰대본산 범어사



범어사 부도밭 전경(왼쪽)과 벽파 스님의 비.



방광탑. 소신탑 등 자세한 인물정보 없어 아쉬워

30기의 석종들 정연하게 장엄된 부도밭 습기 많아 '조치' 필요

일주문 오르는 길에 늘어선 비 절 역사 알려 줘

선찰대본산(禪刹大本山). 이 큰 이름은 아무 절에나 붙일 수 없습니다. 천하가 인정할 역사와 전통이 없다면 얻을 수 없는 이름입니다. 금정산 범어사는 선찰대본산입니다. 천하가 인정하는 선찰대본산입니다. 의상 대사가 세운 화엄십찰 중 하나인 범어사는 금정산의 수려한 산세를 배경으로 무성한 법림(法林)을 이루고 있습니다. 세상이 바로 황금 우물이고 일체중생이 다 하늘에서 내려온 물고기임을 알리려는 선지식들의 간단없는 정진이 오늘도 성성하게 살아 있는 도량인 것입니다.

장맛비가 그친 오후, 후텁지근한 속세의 더위를 뒤로하고 금정(金井)의 약수 한 바가지를 갈망하며 범어사로 오릅니다. 언덕배기 경사로의 초입에서 만나는 어둑한 수목의 그늘이 땀 냄새 나는 세간과 선향(禪香) 어린 출세간의 경계를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인지 적지 않은 인파가 범어사 오르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속진을 털어내고 마음에 법향을 가득 담아가려는 것이겠지요.

절의 역사는 찬연하고 당우들은 당당합니다. 일주문이 보이는 곳에서 오른쪽에 위치한 작은 숲에 범어사의 역사를 증거 하는 비(碑)들이 서 있습니다. 사리탑 조성에 시주한 불자들의 명단이 새겨진 비도 있고 사리탑 이건공덕비도 있습니다. 석가여래 사리탑비도 서 있습니다. 재가불자의 공덕비도 커다란 몸집으로 서 있고 그 위로 벽파 스님과 남전당 한규 대선사, 금하당 광덕대사비가 나란히 실개울에 발을 담그고 있습니다. 왼쪽에도 용성 스님과 성월 스님의 비가 서 있는데 사각의 철제 구조물로 경계를 그어 두었습니다. 바닥에 누운 자연석을 활용해 만든 성월 스님의 빗돌이 밟혀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일주문으로 오르는 길가에 도열한 비들의 외형만을 훑어보고 부도밭을 찾아 갑니다. 범어사 부도밭은 일주문 오르는 길 왼쪽 개울을 건너 있습니다. 그냥 생겨 먹은 대로 어우러져 있는 커다란 바위들 사이로 개울물이 흐르고 재주껏 바위를 딛고 건너 좁은 길을 따라 40여m를 내려가면 부도밭이 있습니다.

역사의 물줄기는 먼 발원지에서 비롯됐겠지만 유실되고 묻힌 이야기가 드러난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이 이 땅 절집들이 공통적으로 보듬고 있는 상처입니다. 범어사도 예외는 아니어서 고려대의 역사는 송두리째 산실됐고 그나마 조선 중기 이후의 역사가 푸짐하여 선찰대본산의 위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크지만 거만하지 않은 미덕으로 역사를 갈무리하고, 높지만 자만하지 않는 덕화로 부종수교(夫宗樹敎)의 미풍을 베풀고 있는 도량이 범어사입니다.

범어사 부도밭은 범어사를 닮아 있습니다. 30기의 석종들이 정연한데, 어느 하나도 튀어 오르거나 위축되지 않습니다. 당대 제일의 솜씨를 자랑할 만 한 걸작으로서의 부도들이 아니라 '그렇게 왔다가 그렇게 살다 간' 고승들의 초연한 가풍을 타이르듯 전해주는 석종들이 보는 이의 눈길을 낮추게 합니다.

맨 앞줄에는 열 한 기의 부도가 서 있는데 왼쪽 모서리에서 前 동국대 이사 벽파 스님과 불광사 창건주 광덕 스님의 부도를 친견합니다. 수더분한 조형이 선지식들의 군더더기 없는 삶을 응축하고 있으니 우짖는 산새 소리조차 법문으로 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맨 앞줄의 부도 가운데 일곱 번째부터 열한 번째 부도의 몸돌에는 방광탑이라는 탑명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다섯 기의 부도 주인은 성규 찬윤 성진 석전 지홍 스님입니다. 자세한 인물정보를 찾지 못해 아쉽지만, 그들의 수행력이 얼마나 높았으면 몸 혹은 부도가 방광을 했을까요? 수행은 흐트러짐이 없는 것입니다. 휩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러나 날뛰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지런하고 중심을 잘 지키고 은연중한 수행자에게서는 우주의 좋은 기운들이 빛으로 스며들게 됩니다. 그렇게 안으로 쌓인 서기(瑞氣)가 밖으로 발휘되는 것을 방광이라 하는데, 옛날 범어사의 스승들은 스스로 빛이 될 때까지 수행정진에 오롯했던 것이 '방광탑'이란 부도의 이름이 입증하는 겁니다.



소천 스님의 부도

두 번째 줄에도 열 한 기의 부도가 긴 침묵의 법석을 시연하고 있는데, 왼쪽에서 세 번째와 네 번째 부도에 눈길이 머물게 됩니다.

세 번째 부도는 소천 스님의 것으로 석종의 몸에 매우 다양한 문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랫단의 영기문과 연화문은 거스름 없이 조화를 이루고 윗단 연잎들은 매끈합니다. 몸통에는 톱니바퀴도 있고 해와 달도 있습니다.

네 번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부도는 좀 오래된 것으로 몸돌에 '樂安堂 浪伯大師'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랑백수좌 혹은 만행(萬行)수좌로 불렸던 낙안당 스님은 범어사로 출가해 평생 보시행을 펼쳐 그 행적과 이름이 전설로까지 전해지는 인물입니다. 그의 시대는 아마 임진왜란 이후인 듯합니다. 그는 길가에 나무를 심고 샘을 파 지나가는 사람들이 땀을 식히고 목을 축이게 했습니다. 고갯마루에 오두막을 짓고 살면서 짚신을 삼아 지나가는 이들에게 무료로 나눠 주었습니다. 또 길가에 외밭을 가꾸어 행인들에게 외를 나눠 주었으며 마지막 늙은 몸뚱이는 짐승에게 보시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나눔의 삶을 살았던 랑백수좌는 입적을 앞두고 머물던 방 앞에 '개문자시폐문인'이라는 글귀를 남겼습니다. '문을 닫은 사람이 열게 되리라'는 뜻인데 랑백수좌가 입적한 뒤 그 문은 누가 열어도 열리지 않았다 합니다. 그런데 수좌는 한양의 조씨 가문에 환생해 순상(巡相)의 지위에 오른 뒤 범어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닫혀 있던 문을 활짝 열어 보임으로써 그가 랑백수좌의 후신임을 입증했습니다. 그는 임진왜란 이후 스님들에 대한 부역과 사찰에 대한 공출의무가 지나치자 몸을 바꾸어 폐단을 없애고자 발원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동래와 기장 지역에는 랑백수좌의 보시행을 알리는 나무와 우물 등이 남아 있고 비석도 있습니다.

세 번째 줄 맨 왼쪽에는 '도원선사소신공양지탑'이라 새겨져 있습니다. 어느 때의 스님인지는 몰라도 그 스님은 금강석 같은 불심으로 온 몸을 부처님께 바친 모양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소신공양의 사례가 그리 많지 않지만 전혀 없지도 않아서 근래에도 태고종의 충담원상 스님이 소신으로 평화통일 등의 큰 서원을 부처님께 공양한 적이 있습니다.

부도밭에서 못내 아쉬움 하나가 지워지지 않습니다. 범어사 부도밭의 위치는 한적한 곳이지만 지나치게 습한 느낌입니다. 개울가에 있기도 하고 숲이 우거져 습한 기운이 가득합니다. 장마철이라 더 그런지는 몰라도 옛 석종들이 두꺼운 이끼를 뒤집어쓰고 있고, 모신지 그리 오래지 않은 광덕 스님의 부도마저 푸른 이끼자국이 있는 것으로 보아 평소에도 습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숲의 잡목들을 정리해 바람이라도 잘 통하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개울을 건너와 다시 일주문 아래 즐비한 비들을 살펴봅니다.

용성 스님의 비와 나란히 서 있는 성월(性月 1866~1943) 스님은 많은 일화와 드높은 선지로 유명합니다. 일타 스님이 찬한 비문에는 근현대사에서 오늘날 범어사의 기초를 다진 성월 스님의 수행이력과 업적이 자세히 기록돼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월 스님은 범어사를 중심으로 안양암, 계명암, 원효암, 대성암 등에 선원을 설립하고 선회(禪會)를 베풀었습니다. 선학원 설립에도 주도적 역할을 한 성월 스님은 선풍진작과 조국의 독립운동 범어사의 중흥 등에 빛나는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졸졸 흐르는 실개울에 발을 담근 듯이 서 있는 비들은 근래에 단장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경주 불국사 강원의 어른이신 덕민 스님이 찬한 벽파 스님의 비와 서울 불광사 창건주이며 바라밀운동의 선구자인 광덕 스님이 찬한 남전 스님의 비, 그리고 광덕 스님의 비가 위쪽에 나란히 서 있습니다.

불교의 현대화와 생활화를 외치며 현대사회 포교사업에 큰 획을 그은 광덕 스님이 찬한 남전 스님(1868~1936)의 비문은 한글이 많습니다. 고유명사와 연도 등 숫자가 아니고는 거의 한글로 쓴 것입니다. 이 역시 광덕 스님의 정신을 반영한다 하겠습니다. 비문이 전하는 남전 스님의 생애는 참으로 올곧습니다. 곤고한 시절인연을 헤치고 선불교의 정신을 깊고 튼튼하게 지탱시키려는 선사의 노력이 글자마다 빛나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선지식의 생애를 받들어 찬문을 지었던 광덕 스님의 비는 일타 스님이 찬했습니다. 비를 쓰다듬다가 비문의 말미에서 광덕 스님의 열반송을 만납니다.

울려서 법계를 진동하니
철위산이 밝아지고
잠잠해서 겁 전에 봄소식이
겁 후에 찬란해라.
일찍이 형상으로 몰형상을 떨쳤으니
금정산이 당당하여 그의 모습 영원하리라.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2010 불교달력출시
국6절 · 12절 · 두달 · 차걸이 · 미니 · 다이어리 · 탁상 · 한지
창립 35주년 기념으로 달력가격 대폭인하 !!!
불서보급 35년 전통과 제품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하여 불교달력과 불교용품을 직접 생산, 판매합니다. [공장직영]
불교용품/불교서적/불교달력
침향/주목/염주/염주주머니
4·8용품/등표/전선·전구
공단등/바림등/만월등/청사초롱
봉축카드/생일카드/프린트용지
예수재용품/영가옷/탑다라니
사경책/사경지/한지108사경
양초/향/고급다포/타올다포
※ 달력카다록 · 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주셔서 주소를 알려주세요.
동진기획 · 붓다쇼핑
검색창에 [붓다쇼핑]을 치세요!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번지
TEL (051)515-8888 FAX (051)508-0101
H.P 011-554-2988, 011-879-0889
E-mail dongjin8888@naver.com
※ 대량구입시 가격은 인터넷 또는 전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토원 초코파이고봉스님
당뇨의 혈당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탁월한
당뇨에 좋은 웰빙 당조고추 개발
제일종묘사와 농촌진흥연구소 및 강원대와 공동으로 3년 연구 끝에 혈당치의 상승을 억제하는 AGI(A-Gluosidase Inhibitor)라는 기능성 물질을 다량 함유한 신 기능성 고추를 개발하였습니다.
AGI는 십이지장 등에서 탄수화물의 소화 흡수율을 저하시키는 효과가 있어 당뇨 등 각종 성인병의 예방과 치료에 이용되고 있는데 당조고추를 당뇨에 걸린 쥐에 투여한 결과 식후 30분 후 혈당치가 120-150mg/de로 평소 180mg/de에 비해 상당한 혈당강화 효과를 거두었다.
정토원 주지 고봉 스님의 당조고추
"현시대 불교는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지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농사를 찾던 중 새롭게 개발된 기능성 고추인 당조고추를 재배하게 되었다." 평소 농사를 수행처럼 생각하시던 스님은 대중들이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 수 있도록 당조고추에 천연항생물질(프로폴리스)을 살포하여 기능을 강화시키고 고추작물에게 나무아미타불 염불과 명상음악을 듣게하여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이 세상에 황금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고 있다. 또한, 일체 친환경농법을 사용하여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7월 초 첫 출하를 앞두고 농협중앙회 식품검사소에서 농약잔류검사를 의뢰하여 280성분수의 농약을 검사한 결과 잔류농약이 검출 되지 않아 적합 판정을 받았다.
당뇨에 좋은 고추라 하여 "당조고추"
크기 및 색상
고추명은 당뇨에 좋은 고추라 하여 "당조고추"라 하였고, 이 당조고추는 다른 고추에 비해 20-50% 가량 크고 색상은 파피색이나 연노랑에서 오렌지색으로 크며 익을 땐 일반고추와 같이 빨강색으로 익습니다.
맛
당조고추의 맛은 일반 고추 맛과 똑 같으며 안 매운 것과 약간 매운 맛으로 구분됩니다.
혈당저하 체험
당뇨환자들이 식사 전후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식사를 하면서 당조고추 3-4개를 먹고 40여분 경과 후 혈당을 측정하여 보면 혈당 수치가 현저히 떨어져 있는 것을 직접 확인 할 수 있으므로 자신이 체험하면서 먹을 수 있습니다.
성인병 예방에 효과
성인병 예방을 위하여 장기 섭취를 하면 각종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고 된장이나 쌈장에 찍어 먹어도 되며 파프리카와 같이 생식용이나 샐러드로 만들어 먹어도 좋습니다.
품종
우리나라 고추산업의 미래를 책임질 기능성고추입니다. A-Gluosidase Inhibitor 기능성 성분이 다량함유되어 혈당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으므로 세계최초 기능성 당뇨고추입니다. 농림부 산하 농림기술관리센터의 농림기술개발사업지원으로 육성된 품종입니다. 강원대학교 이해익 교수와 원예연구소 조명철 박사가 제일종묘농산과 공동으로 연구, 육성한 품종입니다.
■정토원 : 경북 군위군 소보면 복성리 22
☎ 054-383-0407
7월 첫 출시를 앞두고 "당조고추"가 필요하신 불자님들 전화주시면 "당조고추"에 대해 자세한 설명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월서 스님의
주련 이야기 27

끝없이 정진해 '대자유' 얻으라

[원문]
찰나생명무상법(刹那生命無常法)
취산순환유루인(聚山循環有漏因)
금오출몰촉년광(金烏出沒促年光)
옥토승침최로상(玉兎昇沈催老相)
인수정고어소수(忍受井枯魚少水)
영용상핍서침등(寧容象逼鼠侵藤)
도자취경조수행(覩玆脆境早修行)
근념미타생극락(勤念彌陀生極樂)
–단양 방곡사

[번역]
찰나에 생하고 멸하는 것이 무상의 법이며
모였다 흩어졌다 하는 것은 유루가 원인이다
금 까마귀는 떴다 졌다 연광을 재촉하고
옥토끼는 올랐다 잠겼다 하며 늙음을 재촉한다.
우물이 말라 고기가 어찌 참고 있을 것이며
코끼리가 핍박하고 쥐가 덩굴을 갉아 먹으니
취약한 경계를 일찍 깨달아 수행을 해야 한다
부지런히 아미타불 염불해 극락에 왕생하자

[선해(禪解)]

모든 것은 변하고 시간도 멈추지 않으니 '무상'
자신의 '취약' 알고 부지런히 염불하면 '극락왕생'

나는 한국전쟁이 끝날 무렵인 1953년, 지리산 토벌대에 참여해 수많은 죽음을 곁에서 직접 목격한 사람이다. 당시 지리산의 한 초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 때 빨치산의 습격으로 인해 대원들이 모두 죽고 나는 포로가 됐다. 다행이도 동료 한 명과 함께 빨치산의 근거지인 지리산으로 끌려가다가 도중에 천신만고 끝에 탈출했다. 그 후 시즙(屍汁)이 흐르는 죽음의 현장에서 진저리를 치다가 실상사 약수암에서 금오 스님을 만나 출가를 했다.

그 때 만난 금오 스님의 눈빛은 참으로 형형했다. 그 자리에서 그동안 지리산에서 겪었던 이야기를 말씀드렸다. 나는 당시 어린 나이로서는 견디기 힘든 죽음의 공포에 매일 시달렸다. 그런 나에게 금오 스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다.

"나고 죽는 것보다 큰 사건도 없지만 우주의 섭리에서 보면 이 또한 풀잎 위의 이슬처럼 허망한 것, 마땅히 대장부라면 수미산처럼 높은 깨달음을 얻어 생사해탈에 이르러야 한다. 청년이 만약, 번뇌의 망상에서 벗어나 대자유를 얻으려면 출가를 해야 한다. 절에 들어와 수행할 생각은 없는가?"

스님의 말씀이 귀에 와 닿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대자유라는 말에는 귀가 솔깃했다. 나는 며칠 동안 고민을 하다가 결심을 하고 금오 스님을 찾아갔더니 나를 보시자 말자 하시는 말씀이 "올 줄 알았다"고 했다. 나는 금오 스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스님, 힘이 들어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출가를 해야겠습니다."

"그래 너를 힘들게 했던 것이 무엇이더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무엇인가 모르게 둔중한 것으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스님은 말씀을 이어 나갔다.

"맑고 깨끗한 유리창에 서면 만상(萬象)이 모두 깨끗하게 보일 테지만 흐리고 더러운 유리창에 앞에 서면 모든 사물이 더럽게 보일 것이다. 선악미추(善惡美醜)의 기준은 어디에서 생기는가? 오직 모든 것은 마음 하나에서 만들어진다."

가슴을 울리는 말씀이었다. 어느새 어지러웠던 모든 망상이 사라지고 평안한 마음만 남았다.

"스님, 저도 부처가 될 수 있습니까?"

"이 세상 부처가 아닌 것은 하나도 없다."

그 후 나는 탄성 스님께 무명초(無明草)를 깎았다. 머리카락과 함께 오래 동안 내 발목을 잡았던 모든 망상들도 모조리 땅에 떨어졌다. 그리고 그 후 나는 불가에서 많은 세월을 보냈다.

오늘 내가 출가의 이야기를 떠올리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다. 요즘 출가를 하는 젊은이들은 너무 편안하게 생활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수없이 많은 고난과 고뇌를 만난다. 때론 일순 좌절을 할 때도 있으며 극복할 때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마음 한 번 제대로 먹으면 세상 못할 일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어려움이 조금만 닥치면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많다. 수행자의 길은 멀고도 험하다. 잘만하면 한없이 좋은 길이지만 잘못하면 이중의 죄를 짓는 게 바로 스님 노릇이다. 우선은 부모님과 연을 끊고 떠나니 자식도리 못하는 것이 첫째요. 신도들이 바친 지극정성의 시주를 탕진하는 것이 두 번째 죄이다. 이를 명심하고 출가의 마음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주련여행은 주로 명찰이나 고찰들만 해왔다. 이번에는 단양의 방곡사를 소개할까 한다. 방곡사의 회주는 묘허 스님이다. 묘허 스님은 부처님의 인과법인 '인과이야기'와 '49재 법문'으로 널리 알려진 큰스님이다. 지금도 스님의 법문을 들으려고 전국 사찰 곳곳마다 요청하고 있다. 불자들에게 알아듣기 쉽고 명쾌하게 인과 법문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교계나 불자들에게는 명법문으로 유명해 호응이 실로 엄청나신 분이다.

묘허 스님의 수행과정도 나와 같이 만만찮다. 스님은 일본 오사카 의대 전문의 과정을 밟다가 군의관에 강제 징집돼 군복무 중 해방돼 출가한 화엄 스님에게서 득도(得度)하셨는데 출가 후 무려 십년 동안 매일 오십 번 씩 법당 마루를 닦는 혹독한 수행을 했다고 한다.

"당시만 해도 은사스님을 이해하지 못해 화도 치밀었지만 지금은 그 은혜에 깊이 감사드린다"

덕분에 단양의 방곡사는 충북뿐만 아니라 전국에 이름 있는 도량으로 가꾸어 놓았다. 스님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풀과 꽃들을 좋아해 언제나 직접 넓은 밭에 물을 주고 가꾼다. 스님이 방곡사를 창건한 것은 10년 남짓이지만 전국 제일의 기도도량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주련도 직접 지어 걸었다고 하신다.

'찰나생명무상법 취산순환유루인.'

이 세상에 살아 있는 것은 찰나에 반드시 멸하는 것은 불교의 무상법이다. 하지만 생사가 '있다 없다' 하는 것은 유루가 원인이다. 여기에서 루는 샐 루(漏)자를 뜻하는데 말하자면, 주상보시가 공덕으로 돌아와도 유루(有漏)의 복에 그치지만 무루(無漏)의 복인 무주상보시는 셀수 없이 많아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중생들은 이 유루가 원인이 되어 항상 생사윤회를 거듭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오출몰촉년광 옥토승침최로상.'

금 까마귀는 하늘의 태양을 뜻하고 옥토끼는 달을 말한다. 즉, 태양과 달이 연광을 재촉하듯이 인간은 자신의 자성을 보지 못하고 스스로 죽음을 재촉한다는 뜻이다.

'인수정고어소주 영용상핍서침등.'

우물의 물이 말라 고기가 살지 못하고, 코끼리가 핍박하고 쥐가 덩굴을 갉아 먹듯 인간의 생명은 생사의 굴레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므로 '도자취경조수행 근념미타생극락' 해야 한다는 스님의 전언(傳言)이다.

오늘날 인간의 목숨은 살아도 살아 있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이 생로병사를 깨닫고 출가를 결심했듯이 우리들도 '고기가 물이 마르고 코끼리가 몰려오고 쥐가 생명의 덩굴을 갉아 먹고 있듯' 이 취약한 경계를 바로 알아, 일찍부터 부지런히 아미타불을 부르고 수행해 극락왕생을 하자는 깨달음의 경구(警句)이다. 이 속에는 그 어떤 고승의 게송 못지않은 깊고 오묘한 진리가 숨겨져 있다.

우리의 삶은 '쥐가 덩굴을 갉아 먹듯이' 남은 생들을 야금야금 파먹고 있다. 때문에 그 누구도 이러한 죽음의 한 때를 결코 피하지 못한다. 때문에 어서 자기 마음을 닦고 수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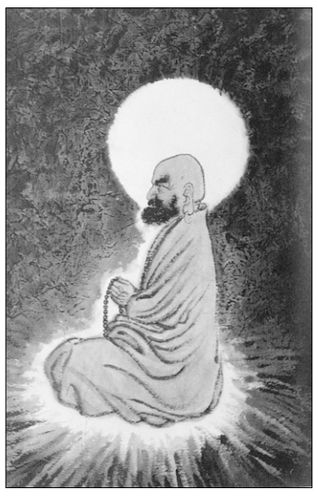
■ 조계종 원로의원

덕산 스님의 달마록 선해
달마혈맥론 27

보이는 것은 다 마음의 그림자

[원문]
我心空寂 本無如是相貌 若取相 卽是魔攝 盡落邪道 若知幻從心起 卽不用禮 禮者不知 知者不禮 禮被魔攝 恐學人 不知故 作是辨 諸佛 本性體上 都無如是相貌 切須在意 但有異境界 切不用採捨 亦莫生卟 怖 又不要疑惑 我心 本來淸淨 何處 有如許相貌 乃至天龍夜叉鬼神帝釋梵王等 亦不用生敬重 亦莫 懼 我心 本來空寂 一切相貌 皆是妄相 但莫取相.

나의 마음은 공적하며, 본심은 이와 같은 모습인데 만약 상(相)을 취하면 곧 마구니에 붙들리어 삿된 도에 떨어지게 되느니라. 허깨비가 마음에서 일어난 줄 알면 절을 할 필요가 없느니라. 절을 하는 사람은 모르고 하는데, 아는 사람은 절을 하지 않느니라. 절을 하면 마구니에 붙들리는 것이니라. 학인이 알지 못할까 염려돼 이렇게 풀이하노라. 부처님들의 본성 위에는 이와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없으니 반드시 명심할지니라. 기이한 경계가 나타나거든 절대 붙들려 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의심하지 말지니라. 내 마음이 본래 청정한데 어디에 이런 모습이 있겠느냐. 천인이나 용이나 야차나 귀신이나 제석천이나 범천왕에게라도 공경할 생각을 내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나의 마음이 본래 공(空)한지라 일체의 모습이 모두 허망하니 상을 취하지 말지니라.


성원부(盛元富) 作 달마도.

[해설]

'만약 상(相)을 취하면 곧 마구니에 붙들리어 삿된 도에 떨어지게 되느니라.'

우주의 근본실상은 문자나 언어로 표현 할 수 없는 모양을 떠난 마음자리인데,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모양을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마구니, 즉 삿된 기운이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휘둘리는 것은 도하고는 거리가 멀며, 그것은 불교가 아닙니다.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허깨비가 마음에서 일어난 줄 알면 절을 할 필요가 없느니라.'

달마 스님께서는 절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아직 중생이기 때문에 절을 하되 우주의 근본실상, 모양이 없는 자리에 마음을 두고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본래 마음 자리에서 보면 눈앞에 펼쳐진 모든 존재는 물질이 아닙니다. 우주가 그대로 본래 청정한 불성 자리와 똑같은 자리입니다. 마음에 모양이 없기 때문에 나눌 수 없고 그대로 하나의 생명으로 돼 있는 실상을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부득이 일원상(一圓相)으로 표현했던 겁니다. 우주의 근본실상 자리에서 달마 스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삿된 허깨비와 같은 상대를 마음에 두고 절하지 말라는 얘깁니다. 그러나 절을 아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부처님 경지에 가 있다면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그런 경지에 이르지 못한 범부이기 때문에 수행을 하는 입장에서 본래 실상자리와 하나가 되기 위해 절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귀의(歸依)'는 '돌아갈 귀'자, '의지할 의'자를 쓰지요. 그런데, 돌아간다고 했을 때 누구한테 돌아갑니까? 여러분 본래 마음자리에 돌아가서 그 자리를 의지한다 그런 얘깁니다. 귀의한다 했을 때, 불 · 법 · 승 삼보에 귀의한다고 하면 역사적으로 출현했던 부처님으로 과거, 현재, 미래의 삼천불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극락에 아미타불이 계시고, 동방에 약사여래 부처님이 계시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것은 방편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부처님 자리는 모양이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방편상 이름을 붙여놓은 겁니다. 본래는 어떤 이름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이든 우리가 편리한대로 이름을 붙여놓은 겁니다. 처음부터 이름으로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얘깁니다.

'절을 하면 마구니에 붙들리는 것이니라 … 부처님들의 본성 위에는 이와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없으니 반드시 명심할지니라.'

달마 스님께서 수행자들에게 실상자리에서는 어떤 문자나 언어로도 용납이 안되는 부분이니 그렇게 알고 공부를 하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진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알아듣는 분들은 전생에 공부를 했던 분이고 도저히 알아듣지 못하는 분들은 전생에 공부를 하지 않은 분들입니다. 부처님 공부를 전생에 많이 하신 분들은 부처님 얘기만 하면 신바람이 나는 겁니다. 상근기는 받아들이기 편한데, 중근기는 의심을 하고, 하근기는 전혀 와닿지 않기 때문에 도망을 간답니다.

선(禪)에서 보면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들은 모두 번뇌입니다. 그 가운데 본래 자리를 놓치지 않고 마음을 쓴다면 도인입니다. 원효 스님께서도 무애행(無碍行)을 하셨던 분이신데 그때 당시에는 파계승이요, 온갖 말들을 했거든요. 하지만 원효 스님께서는 본래자리에 마음을 두고 행한 것이기 때문에 걸림이 없어요.

'기이한 경계가 나타나거든 절대 붙들려 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의심하지 말지니라…,'

정진 중에 환영이 보이는 경우보이는 것은 다 마음의 그림자라 굳게 믿고 정진하셔야 됩니다. 진리의 세계에서는 그 어떤 상(相)도 용납이 되지 않으니 어떤 경우라도 상을 취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 청주 혜은사 주지

나의 체질을 알고 계시나요?

지금시대는 정확한 체질에 맞는음식.맞는과일.맞는차를 알고 먹어야내몸에 균형을 이루어서 큰병을 만들지 않고 사는 동안은 건강하게 살아갈수 있어요!

내몸에 맞지 않는 음식은 내몸을 병들게 하는 원인으로 나의 체질을 알고 먹는게 아주 중요하지요?

40년넘게 얼굴생김새.목소리.체형.성격을 본후 피부를 만져보면 체질을 정확하게 알려주고.유전적인병명.현재앓고 있는병등을 만나는대로 알수있고 체질한약차로 병을고치는 분을 만나로 오세요.끝없이 연구하고 공부하는분을 만나보면 인생이 바뀌지는 행운이 열립니다.지금전화주세요? 스님들은 수행에큰변화를 얻을수있어요!

누구나 무료로 오시면 정확한 체질을 알려드립니다
수행하시는 스님들께는 모든 특혜를 드립니다

상담연락처 011-9373-3778

매일경제신문 인체경영학 연재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은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감량이 된다는 20년간의 임상 경험!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해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 02)523-0708
www.chorokwon.com

사주.퇴마.빙의.작명(신생아 이름)
수강생 모집


달마스님
KBS. MBC 방송출연

◆사주풀이 구궁팔괘법 ◆심령을 통하는 기도
◆하루일진 래정법 ◆육혼법
◆제갈공명 천비술서 ◆귀신뽑은 신통술

전생요법 모습의 접괘로 왜 왔는지, 무슨 조상 귀신이 붙었는지 마음을 꿰뚫어 보는 비법술

※스님들도 꼭 알아야 인기가 있고 신도가 많다 ■모집인원 : 10명 ■교육비용 : 200만원

❖부부인연 원진살 살풀이법 ❖신년운세, 직장취직운
❖조상원귀법 영가천도 ❖귀문관살 푸는 법
❖병을 일으키는 악령귀신 푸는 법 ❖백호대살 부는 법
❖육효점, 육임점, 하루일진 래정법

작명(신생아 이름) 음양오행 이름을 지어주면
만사형통, 건강, 재물, 학업성취

경기 성남시 성남동 2318번지 공설운동장 후문 입구(주차장은 공설운동장)
묘음정사 (달마 스님)
031)755-3775. 011-857-3775

화두 공부는 거문고 줄 타듯 조화롭게 해야

상원사 용문선원장 의정 스님



선원청규위원회 이끌며 한국형 '선원청규' 제작
"깨달음의 길 수만갈래… 혼자 못 찾아 스승 중요"

깊은 골을 타고 흘러내리는 물소리는 한여름의 더위를 날려 보낼 정도로 시원했으며, 세상의 모든 소리를 흡입해 버린다. 용문산 깊은 골짜기에 자리 잡고 있는 상원사로 가면서 짙푸른 풍광에 눈이 멀고 물소리에 귀가 멀어버렸다. 마음은 잠시 세속으로부터 떠나 온 시간을 잊어버렸다.

신라 때 세워진 상원사는 고려시대 말에는 태고보우 선사가 수행했던 도량이었으며, 태조의 왕사였던 무학 선사가 말년에 이곳에서 수행했다. 또 효령대군이 원찰로 삼고 수도생활을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애석하게도 상원사는 두 번의 아픈 상처를 지니고 있다. 한 번은 일본군에 의해, 한 번은 한국전쟁 중에 소실됐다. 우여곡절 끝에 호산 스님과 사제들이 상원사를 중창했고, 의정 스님은 용문선원을 열었다. 폐허 속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찰이기에 대웅전과 3층 석탑을 비롯한 당우들이 귀하게만 여겨진다. 보랏빛 비비추꽃과 검자줏빛 여로꽃, 분홍빛 봉숭아꽃이 청정한 도량을 더욱 환하게 맑히고 있다.

선원 입구에서 방문객의 발목을 잡는 벽보와 마주쳤다.

'회색 걸망, 바루 한 벌에 무명초를 끊고 백운에 뜻을 심으며 용문산에 마음을 가두니 태고보우의 선풍과 선지가 남아 죽비 삼성에 생사해탈해 일언에 만법이 열리고 돈각(頓覺)에 삼라만상이 들어오더라….'

납작납작한 예서체로 정성 들여 쓴 벽보의 요지는 '이 도량에는 눈 푸른 납자들이 수행정진 하는 공간이니 출입을 말아 달라'는 간곡한 부탁이다. 글귀를 통해 선원장의 결연(決然)한 의지와 원력을 읽을 수 있었다.

다행히 삭발일이라 선원장인 월암의정(月庵義正) 스님을 만날 수 있었다. 2005년 조계종단에서 수행지침서인 <간화선>을 펴냈는데, 이때 전국선원수좌회를 대표하는 다섯 분의 선원장스님이 편찬위원이 됐다. 이 중 한 분이 의정 스님이시다. 스님은 선가에서 존경받는 분으로 선방 좌복 위에서 서른 하안거를 성만했다.

스님께서 요즈음 추진하는 일이 또 하나 있다. 전국선원수좌회 스님들이 주축이 돼 '선원청규 위원회'를 5년 전에 발족했는데 의정 스님이 편찬위원장을 맡고 있다. 중국의 백장 선사가 처음으로 총림(叢林)을 만들고 총림에 맞는 '선원청규'를 만들었다. 중국에는 11종의 청규가, 일본에는 9종의 청규가 전해지고 있다. 그런데 한국 불교는 1700년의 역사를 가졌지만 아직까지 한국에서 만든 '선원청규'가 없어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간화선의 전통을 오롯이 잇고 있는 나라이기에 우리 실정에 맞는 선원청규가 더욱 절실한 것이다.

"경허 스님 이후로 자유분방한 수행을 많이 했는데, 법도가 없으면 오히려 수행하기가 힘듭니다. 선원에는 천명의 대중이 산다면 천명의 대중 각자마다 맡은 소임이 다 있어요. 대중이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공양 · 교육 · 복지 · 의식 · 다비식 등 모든 것이 필요하잖아요. 이때 청규에 의해 움직인다면 아주 조화롭겠지요. 선원청규는 수행의 모든 것을 담는 지침서이기에 한국 불교가 세계화가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작업입니다."

화합의 매개체가 되는 지침서가 없어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지만, 한국 실정에 맞는 선원청규가 나오면 많이 달라질 것이라 했다.

"수행을 하게 되면 의식이 바뀌기 때문에 인식 자체가 변합니다. 수행을 하면 높고 낮다, 고통과 즐거움, 피안과 차안 등 이렇게 끊임없이 둘로 나누는 이분법(二分法)적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손바닥의 앞뒤처럼 부처 쪽에서 보면 반야, 지혜, 열반이고 중생 쪽에서 보면 고통, 망상, 번뇌입니다. 중생과 부처, 어느 쪽에서 바라보는 가에 따라 달라지지요. 수행을 해 초월해버리면 괴로움과 번뇌가 반야로 바뀝니다. 육조 스님은 '자성을 본 사람은 부처'라고 했으며, 한쪽을 보는 사람은 중생이고, 양변을 다 보는 사람은 부처라고 했어요."

인생을 고(苦)로 인식하는 것은 무명에 의한 어리석음 때문이란다. '수행을 하면 한쪽만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게 돼 괴로움은 물론이고 즐거움까지도 이미 초월하게 된다'면서 수행을 통해 자신의 삶을 전환하는 계기로 삼으라고 했다.

스님은 어떤 연유로 대학시절에 출가를 결행했는지 궁금했다.

"일찌감치 철이 들었어요.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인생이 과연 무엇인지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에 눈을 떠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두고 깊은 고민을 많이 했지만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여러 종교와 철학을 공부했는데, 불교책을 보고 나서 그 고민에 대한 해답이 보였지요. 선(禪)수행을 보고는 이렇게 뛰어난 종교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의 원초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신에 의지하지 않고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에 환희심을 느꼈습니다. 구도의 삶이 나에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스님은 선수행처럼 스스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하고 양명한 그런 수행 방법이 타종교에는 없기 때문에 불교와의 인연을 가장 수승한 복이라 여긴다'고 했다. 수십 권의 불교 서적을 읽고 크게 발심해 의정부 포교당을 찾아갔다. 그곳에서 은사 운경 스님을 만났고 출가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받았다.

"은사스님은 자비보살의 화현이었어요. 한국전쟁 때 불타버린 봉선사를 평생에 걸쳐서 복원하셨으며 군포교를 최초로 하신 분입니다. 군인들 수계식과 군부대 위문 또한 많이 하셨는데, 요즈음 와서 돌이켜 보면 시대를 앞서서 볼 줄 아는 예지력을 갖추었어요. 저와는 다른 길을 걸었지만 은사스님을 정말로 존경합니다."

스님은 강원을 마치고 송담 스님을 존경했던 터라 인천 용화선원에 방부를 들였다. 젊었을 때는 한 번 들어가면 2~3년씩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고, 오직 공부에만 몰두했었다. 선수행이 너무나 좋아서 출가를 했기에 가행정진, 용맹정진 등 어떤 수행도 거뜬히 다 해내었다. 의정 스님은 지금까지도 송담 스님을 평생의 스승으로 모시고 있다. 스님은 간화선 수행에 있어 무엇보다 스승이 중요하다고 했다.

"간화선을 스승 없이 혼자서 공부한다면 열두 명이 하면 열 명은 망가집니다. 마음 길은 수억만 가지가 있기 때문에 깨달음을 찾아가는 길 또한 수억만 가진데 혼자 가면 거의가 바로 가지 못합니다. 자신이 한 번도 깨달음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가는 길이 옳다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우리 스승님은 '깨달음을 찾아가는 길'을 두고 '부산 삼랑진에서 서울 가는 것과 같다'고 했어요. 삼랑진에서 출발한 기차로 서울에 가는 사람이 있는데, 대구쯤 가면 책에서 본 서울처럼 느껴지겠지요. 책에서 본 대로 빌딩도 많고 사람도 많고 번쩍거리는 네온사인도 많고 해서 서울을 가보지 않은 사람은 누구든지 서울로 생각하기 십상이지요. 대구를 서울로 생각하고 내린 사람 또는 대전을 서울로 착각하고 내린 사람은 그것으로 공부는 끝입니다. 잘못 착각해 내리려고 할 때 스승의 가르침을 받았다면 목적지까지 갈 수 있겠지요. 역사 속의 보우 스님이나 경허 스님 등 몇 분은 선지식 없이도 깨달았지만, 스승 없이 깨닫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더구나 현대인들은 다른 유사 공부가 많기 때문에 또 너무 영리해서 스승 없이 공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공부하다 보면 유사 깨달음이 오는데 이때는 반드시 깨달음을 경험한 선지식에게 가서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의정 스님은 ...

1973년 봉선사에서 운경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 수지. 1974년 법주사에서 석암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 수지. 1976년 해인사 강원 졸업. 인천 용화사 선원에서 송담 스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안거. 이후 극락암, 송광사, 불국사, 운문암, 봉암사, 수도암 등 제방선원에서 수십 안거 성만. 2000년 양평 상원사 용문선원을 사제스님들과 함께 복원하고 개원하면서 선원장 취임.

2005년 조계종단 수행지침서 〈간화선〉 편찬위원 역임. 2007년 조계종 전국선원 '선원청규' 편찬위원장.

해성불원(海成佛院) 자비회(慈悲會)

삼보에 귀의 하옵고
부처님의 자비의 광명이 온누리에 비추어 중생들의 소원성취 이루도록 발원 하옵니다.

베트남, 중국(한족), 필리핀, 캄보디아, 네팔, 몽골 아가씨와 짝지어 주기 운동

- 결혼정보 초혼 · 재혼 -

중국(한족)아가씨 신랑 한 사람 당 신부 열 명의 선을 보고 일일이 궁합을 보고 궁합이 좋은 아가씨 자택 방문하여 부모들을 만나보고 사는 모습과 미진한 점등을 묻고 살펴서 완전 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 (스님의 직접 통역 하에)

□ 의심점이 있으신 분 먼저 중국에 결혼한 신랑들과 연결하여 투명하게 연결도 하여 드립니다. (원하시는 분들께)
□ 한족은 태국, 필리핀, 베트남 아가씨들과 똑같습니다. 우리말을 전혀 모르니까 (한국말을 나오면 가르쳐야 합니다)
□ 자격 : **직장이 있는 자, 전세방이라도 있는 자**
(직장 확인서 1통, 갑근세 증명 1통, 전세 계약서 사본 1통)

초혼 · 재혼 일본으로 결혼 하실 여성분

해성불원자비회는 봉사단체로서 실비로 여러분의 인연을 맺어 다문화 가정을 이루어 국가 발전에 이바지 하라고 노력하는만치 완전 무결함을 우선으로 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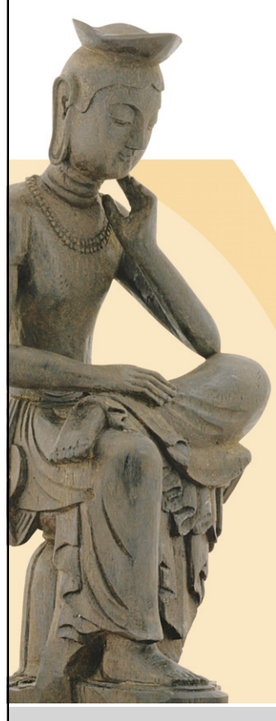
왕복항공료, 호텔숙박비, 식대, 국제결혼 서류 작성비

신부 입국 모든 제반 일체를 책임성 있게 일괄 처리

감사의 안내말씀

삼보에 귀의하옵고,
각 사암 스님네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저희 해성불원자비회가 발족 한지도 어언 4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각 사암스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 오늘날까지 많은 발전을 가져와 농어촌 노총각 들을 대과 없이 짝을 이루어 살매, 근원을이루어 주었고 현재는 더욱 발전하여 여러 국가 여성들 중국, 베트남, 네팔,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등 다수 국가의 아가씨와 폭 넓게 발전하게 됨은 오로지 스님들께서 다 같이 염려하여 주시는 은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문화 가정을 이루어 노총각들의 삶의 보람과 굳건한 한국 인구 발전에 더욱 협조하여 주시기를 기원 하옵니다.

◆ 담당 : **만해 스님** 합장 인천 광역시 남구 용현동 463-57 우.402-202 (**전등사** 내)
주 · 야 핸드폰 **010-5494-9595** / 전화 **032)886-1661**
서울사무실 :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지하도 1번출구 옆 (아쟈빌딩 1505호)



이제 사찰도 화재보험 가입할 수 있다!

현존 대부분의 사찰은 전통적인 목조건물로 축조되어 있고, 초 · 향 · 장작등에 노출되어 있어 항상 화재 위험이 상존합니다. 또 대부분 산지에 위치하는 관계로 화재 발생 시 초기진화가 어려워 막대한 재산손실을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불의의 사고에 대한 대비책은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비단 화재 뿐만 아니라 사찰을 운영하며 교화표교활동을 벌이다 보면 온갖 사고와 자연재해, 신도들의 인적 물적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찰도 합리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 **사찰 종합 보험 상품 안내**

담보내용

구분	화 재	화 재	상 해
기본담보	화재손해	시설소유 배상책임	24시간 상해
선택담보	구내폭발손해 풍수재해손해 지진손해 악의적인 파괴행위 손해 협정보험가액	물질손해확장담보 구내치료비 주차장배상책임 생산물(음식물) 배상책임	교통상해 간병비 질병사망 수술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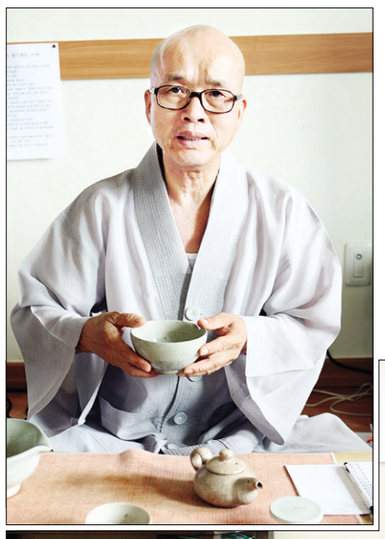
유의사항 : 보험회사의 현장위험 실사(실측)후 보험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시 필요자료 : ◆각 건축물의 건축(증개축)년도 및 면적
◆각 보험목적물의 종류 및 수용장소
◆각 보험목적물의 구입년도 및 단가

사찰화재보험
서일석(圓明) 합장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203호 **011-648-1203 | 010-7344-1881**

개인의 완성이 곧 세계의 완성





스승은 제자가 화두를 들면서 어디엔가 매달리고 의지하면서 조금이라도 분별을 낸다면 그 분별의 근거를 여지없이 무너뜨려 그것을 박탈해 버린다. 스승은 제자가 어떤 분별과 미세한 알음알이에도 속지 않도록 화두를 들고 은산철벽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단다. 한 번에 대견성(大見性)하기는 힘들다면서 보우 선사의 예를 들었다.

"태고보우 선사는 이곳 상원사 선원에서 초견성(初見性)을 하고 감로사에 가서 이차 견성을 하시는 등 네 번에 걸쳐 견성을 하고서 대오(大悟)를 했어요. 스승이 없는 사람은 초견성을 하고서 깨달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람은 외도로 빠지기 십상이지. 그것은 자신을 망치는 길입니다."

의정 스님은 당신의 경험담을 들려주었다.

"처음 경계에 부딪혔을 때 너무 큰 환희심이 났어요. 스승을 찾아가 탁마를 해야 하는데 내 경지가 너무 수승하다고 여겨 그때는 스승의 말을 부정했어요. 그러다 상기병에 걸려 아주 고생했어요."

상기병에 걸리면 기(氣)가 위로 올라와서 머리가 깨질듯이 아픈 증상이 나타나는데, 의정 스님은 수행자는 모든 것을 인내해야 한다는 생각에 더 열심히 수행에 전념했다. 나중에는 명치가 막혀서 밥을 먹지 못해 몸이 장작개비처럼 마르기 시작했지만, 부처님의 육년 고행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라면서 계속 정진했다. 결국은 피를 토하면서 쓰러졌다. 스님은 자신이 상기병인 줄도 모르고 죽기 살기로 공부에만 매달린 것이었다. 급기야는 생명줄을 놓아야할 만큼 위급해서야 송담 스님을 찾아갔더니 상기라고 하더란다. 상기병은 별다른 치료방법이 없다. 일본의 백은 선사가 연소호흡법으로 상기병을 치료했음을 알고 스님도 연소호흡법으로 병을 다스렸다. 그 세월이 십년이라고 하니 스님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감히 짐작이나 할 수 있으랴 싶다.

"화두 공부는 거문고 줄 타듯이 조화롭게 해야 합니다. 분심이 확 일어나면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공부하게 되는데, 그러다 기가 위로 올라오는 등 병이 나지요."

몇 생에 걸쳐서 경험할 것을 한 생에서 경험한 탓인지 공부에 대한 스님의 생각과 열정은 남다르다.

"간화선의 생명은 화두 의심인데, 화두 공부는 발심한 만큼 화두 의심이 생깁니다. 발심을 한 사람에게는 화두 의심이 쉽지만, 발심이 안 된 사람에게는 어려워요. 발심이 부족하더라도 꾸준히 계속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깊은 의심이 일어나서 공부에 진척이 있습니다."

계곡의 물소리는 스님의 거처까지 차고 들어왔다. 물소리와 더불어 솔바람이 불어오고 향기로운 차를 앞에 두고 있으니 이 순간 세상 부러울 것이 없다. 요즈음 사회의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청년실업에 관해 여쭈었다.

"삶을 살다보면 우리 생은 흥망성쇠가 계속되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아도 때로는 흥하다가 때로는 쇠하는 흥망성쇠의 연속입니다. 이러한 현상계에 집착하면 더 괴롭지요. 경제대란이 일어나서 받는 고통은 크겠지만, 젊은 사람들이 뜻이 크면 다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옛 사람들은 흉년 들면 죽 먹고 풍년 들면 밥 먹고 그렇게 살아도 마음 편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인간의 최고 가치를 물질, 명예, 쾌락 등 낮은 것에 두기 때문에 고통이 더욱 큽니다. 첫째는 뜻이 원대해야 합니다. <금강경>에 보면 수보리 존자가 '보리심을 낸 사람은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까?' 라고 묻는 구절이 있어요. 부처님은 우리 마음을 사심(四心)에 두라고 하셨어요."

사심이란 대심(大心), 광대심(廣大心), 상심(常心), 부전도심(不顚倒心)이다. 대심은 일체 중생들을 다 제도하겠다는 마음이요, 광대심은 일체 중생을 무여열반으로 이끌어주겠다는 것이며, 상심은 그러한 마음이 영원히 변치 않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부전도심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의 마음을 사상(四相: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걸리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사람은 어디다 뜻을 두느냐에 따라서 행복의 척도도 달라지고 삶의 질도 달라져요. 자기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그런 사람은 평생을 가도 마음의 평정을 한 번이라도 느끼지 못할 겁니다. 사홍서원을 한 번 보세요. 중생을 다 제도 하겠다, 불도를 다 이루겠다, 그 뜻이 얼마나 큽니까? 자기 안위를 위해서 수행하거나 화두 참선한다면 공부가 안 되요. 불법(佛法)은 장마 때 소나기 오는 것과 같은데 작은 뜻을 가지고 공부한다면 소나기 올 때 자그마한 간장종지를 가지고 비를 받는 것과 같아요. 뜻이 적은 사람은 바람에 나부끼는 나뭇잎처럼 흔들리고 늘 괴로워하고 방황하지만, 뜻이 큰 사람은 바람 불어도 태풍 불어도 끄떡 없어요. 자기의 뜻이 큰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를 닦아갑니다."

의정 스님은 '개인의 완성이 곧 세계의 완성'이라면서 스님들이 자기 개인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참보살이란 '끊임없이 수행에 전념하고 세상에 머물면서도 세상일에 탐착하지 않고 또 성인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열반에 들지 않고 늘 중생을 생각하는 것'이라 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산중에서 대사회적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비난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참으로 모르는 말입니다. 선을 한다는 것은 하화중생을 전제로 한 상구보리입니다. 내가 빨리 공부해서 이것을 사회와 중생들에게 회향하겠다는 마음으로 수행에 전념합니다. 장님이 장님을 안내한다면 올바른 길잡이가 될 수 없듯이, 중생 사회에 더 큰 것을 선물하고 싶기 때문에 그때를 기다리면서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성은 작용하는 그곳에 있으며 두루 나타나면 항하사(恒河沙) 세계에 고루 퍼지고, 거두어 들이면 한 티끌에 들어가는 것이라 했다. 저마다 지닌 불성을 크고 좋은 그릇에 담아서 잘 쓰고 있는지를 한번쯤 뒤돌아 볼 일이다.

글·사진=문윤정(수필가·본지 논설위원)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55. 제헌 국회의원 이종욱 큰스님

지암 이종욱(智庵 李鐘郁, 1884~1968) 큰스님은 동국대 이재창 교수님의 아버지다. 고성 국회의원 최갑환씨와 함께 제헌 국회의원으로 유명했기 때문에 월정사 스님 보다는 국회의원 이종욱씨로 더 많이 알려져 있다.

강원도 양양 출신으로 본 이름은 이응윤이고, 호는 지암, 아호는 해광 · 해운 · 고경이다. 태어난지 13일 만에 어머니를 잃어 6세에 양어머니를 정해 갔으나 이듬해 양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다 돌아가시자 계모 밑에서 자랐다.

1896년 13세에 양양 명주사 백월 스님 영향으로 득도하고, 1906년 명진학교에 입학했다. 1908년 설악산 백담사 오세암에서 설경 스님의 법을 잇고, 한일강점 후 월정사에 들어가 소작인들에게 빼앗겼던 30여 정보의 밭과 5000여 정보의 산을 찾아 주다. 다시 상해로 망명, 임시정부 내무부 참사관, 입법의회 의원으로 활약했다. 이렇게 서울 상해 연락부장을 지내면서 청년외교단, 애국부인회를 조직했다가 발각돼 3년 옥고를 치루고 월정사에 들어가 25년간 월정사 주지를 지내면서 1932년 조선불교 중앙



꿈이고, 독립운동을 하면서 월정사 전답(田畓)을 찾아 주고 국회의원을 한 것도 꿈이고, 상해에 들어가 연통제를 조직해 조국광복운동을 했던 것이나 국회의원을 하면서 국정을 좌지우지 했던 것도 꿈이었다.

"사람들은 내 풍채만 보아도 기가 질려 말도 잘 하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이 무거운 몸뚱어리를 이리 두치고 저리 두치며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것이 제행무상(諸行無常)이고 제법무아(諸法無我)가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낙성식 법회에 갔다가 진짜 이종욱 스님의 진심이 어린 법문을 듣고 감동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돼 백성들의 억울한 일을 밝혀주고 나라의 답답한 일을 들어주었지 않았나 생각됐다.

나는 여러 스님들에게 그런 말씀을 들었다.

상해 임시정부서 활약… 평생 화내지 않으며 '자리이타' 지켜

총무원 서무이사로 피선돼 사실상 31본산 중앙행정을 담당하게 됐다. 1941년 종무총장이 되고, 1950년 강원도 평창군에서 출마해 3회 의원이 되고, 1941년과 1951년에는 동국대학교 이사장을 지냈다."

그때 어떤 스님이 말씀했다.

"세상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스님께서 1944년 강태동, 유식현 등과 회동해 미군이 제주도에 상륙할 것을 예측하고 무장봉기를 획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그래, 그때 일본군이 예상외로 빨리 항복했기 때문에 실현되지 않았지."

스님의 두 눈에서는 불이 번쩍했다. 그러나 지금 와서 생각하면 모든 것이 꿈이었다. 어머니께서 일찍 돌아가시고 양자가 됐던 것도 꿈이고, 다시 계모 밑에서 성장했던 것도 꿈이고, 열세 살에 절에 들어와 사찰 이력을 마치고 일본 유학을 했던 것도 꿈이었다. 모두 이것은 용문사 천장사 동학사 선암사 범어사 통도사 건봉사 대승사 법주사 등에서 내전을 익힌 힘이었다.

필자와의 만남은 1962년 강원도 원주 불심원에서였다. 초종파 범불교운동으로 강상준 스님께서 불심원을 만들었는데, 낙성식에 당시 유명한 고승들이 많이 참석했다. 나는 기산 스님과 김동화 박사님, 그리고 권상로 박사님을 모시고 갔는데, 풍채가 잘 생기신 분이 거동을 잘 하지 못해 누워계셨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빠짐없이 인사를 하고 문안했다. 그때는 이미 스님께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주문진에 동명사를 짓고 포교하실 때다. 몸은 불편했으나 말씀은 잘 하셨다.

"내가 1917년 조국광복을 위해 상경해 2 · 7결사의 대원으로 활약하다가 3 · 1운동 당시에는 인천 월미도에서 이규갑 · 한남수 등과 함께 임시정부를 수립했

"이 스님은 평생에 화를 내지 않는데, 무슨 일을 하던지 자리이타(自利利他)거든.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하니 모든 일이 풀리지 않을 수 없어."

그렇지만 스님을 에워싸고 있는 주위 환경이 좋아야 위신이 서게 돼 있다. 내가 월정사 수도원에 있을 때 스님의 가까운 친척되는 분의 자제가 수도원 학생과 인연이 돼 아기가 생김으로써 모처럼 계획했던 월정사 수도원이 똥물을 뒤집어쓰고 폐지되는 난국을 겪게 됐으니, 그 모든 업장이 스님에게 돌아갔던 것이다.

나는 대학 2학년 때 이제창 교수님에게 '사원 경제사'와 '왕오천축전'을 배웠는데, 그분이 저렇게 훌륭한 스님의 자제인 줄은 미처 몰랐다. 대처 · 비구 분쟁 때문에 많은 불교인재를 잃었지만, 그가 아버지의 정신을 계승해 불법으로 회향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했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1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자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30,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55,0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기본 배송비 2,500원 (5만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부산지역은 부산농협 각지점 "신토불이 매장"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주문전화 :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1-327-7697
전라도 : 010-2311-0157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한국 불교 최고의 신문!

현대불교신문사 충청지사는
최고를 지향합니다

불교의 소식을 가장 빠르게 보도하는 현대불교신문은

연합뉴스, 뉴시스, 충청뉴스, 한국불교신문, BBS 청주불교방송, HCN 충북방송, 충청권 일간신문(충북일보,충청매일, 충청타임즈, 동양일보, 중부매일, 충청타임즈, 대전일보)에 실시간으로 기사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사 충청지사
대전,충남,충북
+ 사찰의 법회, 행사 취재 보도
+ 사찰의 홍보 및 광고
+ 신문사(통신사)에 기사작성 제공 (연합뉴스, 뉴시스, 충청뉴스)

제보 · 구독 · 광고문의
• 충북지사 : 043-732-5560 • 대전지사 : 042-223-8214
• 지사장 : 010-9522-8453 (혜철스님) / E-mail : ksson108@hanmail.net
• 기자 : 010-5078-9748 (이한배 기자)

현대불교신문 1인 1부 구독하기 운동에 동참합시다.
최고를 지향하는 충청지사가 되도록 저희 임직원 일동은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지동이체를 신청 하시면 편리합니다. (통장번호 / 주민번호 / 주소 / 연락처)

현대불교신문 충청지사

김옥암 교수가 쓰는
자족의 경제학 <9>

탐욕과 부의 양극화, 신 빈곤층과 소비 부족 낳아

자본가와 노동자간 입장차이 대화아닌 힘만이 관계 결정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폐해의 원인을 라다아트 운동과 같이 기계에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자본주의의 구조에서 찾아냈다.

자본에 고용된 노동은 늘 약자의 위치에 있었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구조에 직면했다. 자본가 측에서 본다면, 노동자가 만들어 내는 상품의 가치보다 싼 임금을 지불함으로써 이윤(잉여가치)을 올릴 수 있다. 마르크스는 그것을 노동자를 짜먹는(착취) 것이라고 말했다. 본래 경제는 정당한 거래여야 하는데도 자본가는 적게 주고 많이 받는다. 이래서는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나쁜 것은 자본의 힘이고, 이것이 개인의 자유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가 빈곤하게 된다는 분석이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사유재산제를 폐지해 전 인민의 공유물로서 관리한다면, 빈곤도 불황도 없는 사회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사유재산을 폐지하는 것이 '사회주의'이며, 전 인민의 공유물로서 관리하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라는 의미였다.

그러면 거기에 이르는 길은 어떠한 것인가? 이대로 자본주의가 계속해 간다면, 노동자는 점점 가난해질 것이다. 노동자를 가난한 그대로 둔다면 구매력이 떨어지고 상품은 팔리지 않게 되기 때문에 불황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자본주의는 대불황으로 인해 스스로 붕괴한다고 마르크스는 생각했던 것이다.

마르크스 경제학의 또 하나의 특징은, 우리가 제창하는 불교경제학과 같이 경제학뿐만 아니라 철학이나 문화적인 사항까지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점이다. 당시 독일의 철학은 정신의 문제에 논의를 집중해 독일관념론이 되는 일대 체계를 쌓아 올리고 있었다. 인간의 정신(관념)은 사람과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 발전한다. 그렇게 만들어진 인간관계나 사회관계는 정신의 구체화이며, 그 궁극이 국가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근대국가야 말로 인간정신(관념)의 최고걸작이라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와 같이 정신이 평가됐던 것에 대해, 마르크스는 인간은 먹는 것이 근본이기 때문에 정신이나 마음은 생활에 의해 변화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생활이 가난하다면 마음도 가난해지지 않을 수 없다. 이제까지는 '정신이 인생을 리드한다'고 생각됐지만, 마르크스주의(marxism)에서는 '경제가 인생을 리드한다'고 생각했다. 그야말로 물신(物神) 사상이다. 자본가와 노동자간에는 근본적으로 경제적 입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인생의 가치관도 서로 다르다. 그 때문에 자본가와 노동자 간에는 대화가 성립되지 않고 힘만이 그 관계를 결정하게 된다고 한다. 마르크스는 스스로의 철학을 독일 관념론에 대해 '유물변증법'이라 불렀다.

마르크스 경제학의 생각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⑴자본가는 돈의 힘에 의해 상대적으로 약한 처지에 있는 노동자를 고용해 노동력이 기여한 가치보다도 적게 지불하고 많이 일하게 함으로써(착취) 이익을 올린다. 그 차액이 잉여가치(이윤)이다. 생계비 이하의 적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구매력은 떨어지고, 결국 그것이 불경기나 공황을 발생시킨다.

⑵인간은 먹고 생활하는 것이 인생의 근본이 되고 있으며, 그 생활상황이 정신 본연의 자세를 결정해 간다. 가난한 생활환경에 있는 노동자는 결국 인간성을 상실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소외).

⑶자본주의 경제는 성숙하면 결국은 침체한다. 그 침체와 자본의 집중이 과학적 필연성을 가지고 사회주의를 초래한다(과학적 사회주의). 인간의 선의로 새로운 이상향(utopia)을 만들고자 하더라도, 그것은 공상이며 실현 불가능하다.

또한, 자본주의가 발전해 간다면 자본의 집중이 진행해가기 때문에, 소수의 자본가를 제외하기만 한다면 즉각적으로 인민에 의한 관리가 가능해 진다고도 생각한 것이다. 마르크스 자신은 영국적인 의회정치가 공산국가에도 변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믿었던 것 같다. 이러한 마르크스 경제학은 이론적으로는 가장 걸맞지 않는, 자본주의가 미숙한 단계에 있었던 제정(帝政)러시아에서 현실화됐다. 레닌(N. Lenin)이 주도한 노동자 폭력혁명과 독재정치가 그 후의 소비에트 연방의 운명을 결정지었다.

<자본론>에서 그린 빈곤과 불황이 없는 장밋빛의 이상 사회, 그러한 매력은 한 때 복음이기조차 했다. 그런데, 이러한 마르크시즘은 과연 그후의 자본주의 체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과연, 그렇게 노동자 혁명으로 이상적인 사회가 건설될 수 있었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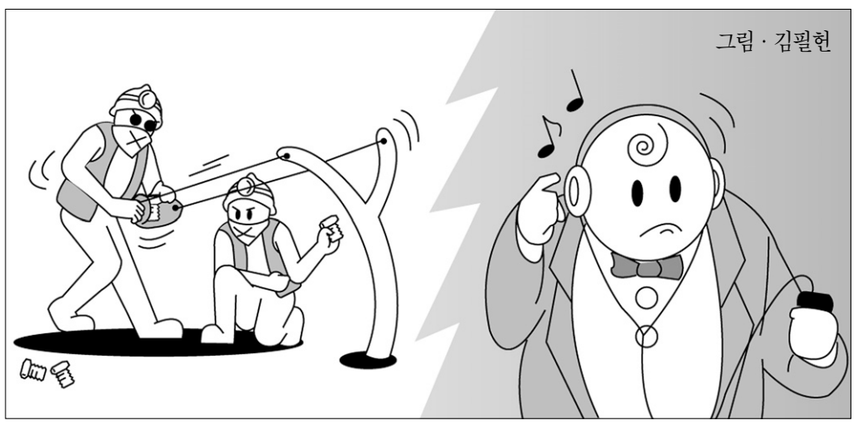
한때 세계의 절반이 사회주의 체제로 바뀌고 세상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체제 양진영이 서로 경쟁하는 시대가 도래한다. 경쟁자의 존재가 거슬리긴 하지만 경쟁자가 존재할 때 자기 자신도 슬럼프에 빠지지 않고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이 진리인지도 모른다. 사회주의와의 경쟁으로 자본주의도 훨씬 활기차고 건강해지기도 했다. 어쨌든,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은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이후 자본주의 체제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책이다.

마르크시즘이란 경쟁자의 존재로 인해 자본주의 체제는 야수적인 탐욕을 절제하기 시작한다. 자본주의는 마침내 사회주의의 장점을 적극 흡수해 '수정(修正)자본주의' 체제로 나아간다. 한편, 유럽에선 사회민주주의가 자리 잡게 된다.

1920년대에 이르면 유럽 각국에서는 사회보장제도를 도입, 이를 통해 소득의 재분배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거친다. 그에 비해 지역적으로 고립돼 있던 미국에서는 약탈 자본주의의 체제가 더 오래 지속된다. 미국은 여전히 약탈자본가들(Robber Barons)이 판을 치고 있었고, 사회계층의 양극화는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자거나 합리적인 조세제도를 통해 불평등한 개인적 부(富)를 재분배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힘을 얻지 못했다. 1929년, 결국 대공황이 발발한다.

지금도 그렇지만, 어찌보면 1930년대의 대공황은 시장 자체가 지니고 있는 시장 고유의 원리에서 초래된, 모순의 진화과정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나친 탐욕과 부의 양극화는 필연적으로 신 빈곤층과 소비의 부족을 낳았고, 이는 경기후퇴에서 공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숙명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 안동대 경제학과 교수


그림 · 김필헌

⑨ 코칭의 언어학 3 - 메시징

허달의 불교와 코칭

인정과 칭찬으로 고객에게 메시징하라

침묵이 경청의 일부가 되기도 하고, 강력한 질문이 되기도 하는 경우를 앞에서 들었지만, 침묵은 때로 강한 메시지가 되기도 한다.

상응부 경전에 있는 고행자 바챠고타의 이야기를 읽어 보자.

그가 부처님을 찾아가 뵙고 물었다.

"고타마 현자(賢者)이시여,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자아(自我-self)라는 것이 존재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렇다면 당신께서는 자아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부처님께서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셨다. 마침내 바챠고타는 떠났다. 질문하는 바챠고타를 연민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며 묵묵히 침묵을 지키시는 고타마 현자를 눈앞에 그려보시라. 이 대목은 '우레와 같은 침묵'이라는 찬탄을 받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메시징 장면이다.

코칭을 받는 대상인 고객이 스스로 주제에 접근하지 못해 헤매거나, 또는 주제를 찾기는 찾았으나 그 솔루션을 찾는 과정에서 자기기만의 함정에 빠져 헤어나지 못할 때, 코치는 고객을 도와주기 위해 간결하고 중립적인 언어를 사용, 고객의 사고 전개 과정에 개입하게 되는데, 이를 메시징이라고 부른다.

올바른 메시징을 하는 데에는 몇 가지 중요한 법칙이 있다.

첫째, 메시징은 절대로 고객과의 신뢰관계 형성이 만족스러운 수준에 형성됐을 때만 사용 가능한 기법이라는 것이다.

둘째, 메시징을 하는 코치가 '에고가 개입하지 않은 상태(egoless)'에 놓여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코치가 메시징 기법을 사용해 개입할 때에는 철저히 자신의 아젠다를 놓아버리고 상대방의 아젠다에 집중해야 한다는 뜻이다.

셋째, 자신이 활용한 메시징을 고객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이에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직관이 고객에게 공명을 일으키지 못하는 것이 느껴지면 선선히 그 직관에 의한 메시지를 거두어들여야 한다.

하나 더 추가 한다면, 메시징을 하고자 할 때는 가급적 고객에 대한 인정, 칭찬을 선행시키라는 것이다. 이것은 첫 번째 래포(Rapport) 형성과도 일맥 상통하지만 그보다 더 적극적으로 고객의 마음의 빗장을 풀어 마음 속의 작은 울림 현상까지도 지각할 수 있도록 열어 놓아야 한다는 뜻이다.

아이들이나 부하를 꾸짖는 경우에도 이를 늘 상기하면 효과성이 높아지는데, 한 마디로 아이들이나 부하를 개선시키고 육성시키려는 충정(衷情)에 조금이라도 다른 의도가 섞인다면 절대로 꾸짖기를 시도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된다.

선어록에서 보듯 방망이로 두들기거나(棒), 꽥 소리를 지르는(喝) 행위도 자신을 있는 그대로 나타내어, 상대방이 스스로 자신의 미혹을 깨치도록 도우려는 간절한 마음을 내보인 것이니, 이들 역시 대표적인 메시징이라 하겠다.

인정 · 칭찬에 관해 자주 사용하는 사례이지만 되풀이 해보기로 하자.

2002년 월드컵 축구 포르투갈 전에서 결승골을 성공시킨 박지성 선수가 골 세레모니를 하는 대신 곧바로 히딩크 감독에게 달려가 온몸으로 안기는 장면을 TV에서 몇 번이고 되풀이 해 보면서 눈시울을 붉힌 축구 팬들이 많았을 것이다. 도대체, 히딩크가 코치로서 박지성에게 어떻게 했기에 이런 장면이 연출된 것일까? 또 어떤 히딩크의 마법이 작용해, 그때까지만 해도 별로 각광 받지 못하던 선수 박지성이 마침내 영국 프리미엄 리그(EPL)에 이름을 떨치는 대선수로 성장하게 됐던 것일까?

월드컵 준비를 위한 합숙 훈련 시절, 연습을 마친 박지성이 락커 룸에 혼자 앉아 쉬고 있을 때 히딩크 감독이 다가와 어깨를 치며 던진 다음 한 마디가 오늘의 박지성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통설이다.

"지성, 너는 정신력만큼은 세계 최고인 선수이다."

히딩크가 찝어서 세계최고라고 인정해준 정신력이야말로 박지성이 스스로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역량이었다는 것이다.

칭찬과 인정은 어떻게 다른가? 칭찬은 행동과 그 결과(doing)에 대해 하는 찬사임에 비해, 인정은 그러한 행동과 결과가 있게 한 상대방의 본질과 덕목(being)에 관한 찬사이다.

■ 한국코칭센터 고문

사) 대승불교 조계종 부산교구
범음, 범패 의식 불교대학
제1기 학인 모집 안내

◆ 교 육 과 정 ◆
이론교육 : 본 종단 총무원장 한파스님 직강
실기교육 : 본 종단 강주 교육부장 성각스님
1. 기본과정 : 각단, 각청 불교제반의식
2. 49재 및 천도재 의식
범음범패, 상단권공 및 대령, 관욕, 시식
천수바라무, 오공양 작법무
⊙영남 의식을 기준으로 함.

◈ 개 강 일 : 양, 8월 21일 금요일
◈ 수강일정 : 매주 화, 수, 금요일
◈ 수강시간 : 오후 3시
◈ 교 육 비 : 개강일로부터 1개월 무료
◈ 타 종단 스님도 환영합니다.
◈ 범음대학 : 홍은사 대웅전
부산시 서구 서대신동 3가 31-153번지
◈ 문의 및 접수처 : 홍은사 (051)243-3165
본 총무원 (051)527-7733
종단홈페이지 http://dsbuddha.org 참조 인터넷 검색사이트 (다음, 네이버) 에 대승불교조계종 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부산교구 범음범패 불교대학 학장 유초 합장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중생구제와 자비실천을 함께하실 스님, 포교사, 법사님을 모십니다
종정대행 총무원장 월산 혜봉
※ 준비서류 및 서류 발급
◆ 종단 입종신청서,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장
◆ 입종하시면 사찰등록증, 주지 임명장, 승려증, 법사증, 포교사증 발급
※ 각 지역별 간부직 소임자를 우선 모십니다. 연락바랍니다.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 연봉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매산리 556-1번지
전화 054)262-5060 / 팩스 054)262-0067
혜봉스님 직통 011-545-5060

한방(韓方)치료로
간경화, 간질
갑상선항진증, 결핵성 임파선염
백납, 뇌수종
산후풍, 수족냉증
불임, 갱년기(울화)병
한솔한의원
031)555-7780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847번지 타워크리닉 3층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90423-중-5041호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향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숨어서 거지 되더라도 참선만 잘하면 부자인 것을…”



혜암은 6.25전쟁의 종전을 오세암에서 맞았다. 물론 휴전이 된 지도 모른 채 오세암에서 보냈다. 봉정암이나 오세암 스님들이 모두 피난을 가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누구한테서도 종전 소식을 들을 수 없었다. 다만 어느 날부터인가 공비들이 자취를 감추었고, 백담사에서 한 스님이 경찰과 함께 올라와 종전 소식을 전해주었기에 알 수 있었다. 백담사 주지스님이 좌선하고 있던 혜암을 보더니 소리쳤다.

“스님! 인민군들이 물러갔습니다. 보름 전에 휴전이 됐습니다. 아직도 모른단 말입니까. 그동안 빨갱이들 때문에 얼마나 고초가 많았습니까.”

“밤손님들이 불단에 식량을 놓고 가곤 하여 굶지는 않았습니다.”

혜암은 공비들을 밤손님으로 불렀다. 그러자 경찰이 믿어지지 않는 듯 되물었다.

“빨갱이들이 식량을 주었다는 말입니까.”

“나에게는 관세음보살님이었소.”

백담사 주지스님이 고개를 저으며 이해하지 못했다.

“스님, 믿어지지 않습니다.”

“밤손님들이 주었다고는 하지만 제석천왕이 제 모습을 보고 먹을 것을 갖다 주라고 시킨 것이겠지요. 하하하.”

혜암은 웃으면서 화제를 돌렸다. 가만히 돌이켜보면 무모했다는 생각도 들었다. 전쟁 중에 아무 준비 없이 오세암에 들어 공비들이 있거나 말거나 상관하지 않고 정진했던 것이다.

“스님, 백담사로 갑시다. 스님이 몇 분 들어와 이제는 살만합니다.”

“오세암에 스님이 들어올 때까지 있겠습니다. 암자를 비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오세암은 모기나 파리가 없어 정진하기에 더 없이 좋습니다. 도량신이 정진 잘하라고 모기나 파리를 쫓아주는 것 같습니다.”

훗날 혜암은 이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자들에게 ‘숨어서 도 닦는 사람이 제일 위대하다’라는 법문을 들려주곤 했다.

‘고인들 말씀에 큰절 스님네들 백 명이라도 숨어서 토굴살이 하는 스님 하나를 못 당한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토굴살이를 하기 전에 도인 스님들한테 토굴살이를 해도 하자가 없다는 인증을 받아 했기 때문에 틀림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토굴 생활을 지 멋대로 합니다. 공부 잘하려고 토굴 가는 것이 아니라 대중 생활 규칙을 지키기 어렵고 대중처소에서 살기 귀찮으니까 편하고자 갑니다.

참선 하나 잘해버리면 종정스님보다 어른이고, 방장 하는 것보다 제일이고, 벼슬하는 사람보다 높은 사람인데 이것을 모르니까 밤낮 감투만 쓰려고 해요.

재가신도들도 명심해야 해요. 숨어서 거지가 되더라도 참선만 잘하면 부자인 줄 알아야 돼요. 도 닦다가 죽을지언정 도를 떠나 오래 살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관세음보살에게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관세음보살이 되라’ 고 당부했다. 오세암이 관음도량이라 하여 모든 스님과 신도들이 관세음보살의 가피를 받으려고 기도를 해왔지만 혜암은 오세암을 자신만은 참선도량으로 바꾸어 정진했던 것이다.

‘참선만 하면 우리가 부처님도 될 수 있고, 문수보살도, 관세음보살도 될 수 있습니다. ‘관세음보살 부르는 것이 이 뭣고’ 하면 ‘내가 무엇인고’ 하는 화두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 나를 찾는 공부를 하게 됩니다.

전에는 관세음보살한테 의지하려고 했지만 스스로 내가 관세음보살이 돼야 합니다. 그렇게 자기를 바꾸어야 합니다. 내가 관세음보살 같은 마음 쓰고 행동만 하면 화두공부 안 해도 저절로 관세음보살 마음자리가 나옵니다. 그 자리가 나한테 드러납니다.’

백담사 주지스님은 가끔 오세암에 올라와 양식을 놓고 갔다. 덕분에 혜암은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두 철을 더 오세암에서 홀로 정진할 수 있었다. 혜암은 백담사와 오세암 사이의 수렴동계곡을 오가며 행선했다. 아주 천천히 두 번만 왔다 갔다 하면 하루가 지나갔다. 봉정암 골짜기에서 발원하여 천년을 하루같이 흐르는 수렴동계곡물을 무심코 바라보며 하루 종일 행선의 즐거움을 누렸다.

이따금 화전민을 만나지만 그들은 혜암이 누리는 행선의 정복(淨福)을 알지 못했다. 늘 말없이 오갈 뿐인데도 혜암의 얼굴에는 미소가 어려 있었다. 한 화전민이 무심히 산길 너머로 사라지는 혜암을 보고는 말했다.

“꿀 먹은 벙어리 같구먼.”

무엇을 물어도 간단하게 대답하고 입안에 꿀을 머금은 것처럼 미소를 지은 채 산길을 걸어갈 뿐이었다.

“스님, 초하룻날에 불공드리러 가도 되겠습니까.”

“아무 때라도 좋습니다.”

혜암이 들어선 경지는 ‘어째서 개에게 불성이 없다고 했을까’라는 의심이 낮이나 밤이나 순일하게 계속되는 단계였다. 자연스럽게 화두삼매가 지속되었다. 혜암은 그런 상태 속에서 행선을 했다. 벌써 세 번째의 경험이었다. 봉암사 결사기간 동안에 그랬고, 천제굴에서 한 번 그랬고, 이번에 또 그런 경지가 드러나고 있었다. 행선은 수마를 쫓는 방편 중에 으뜸이었다. 더욱이 행선을 하다 보면 자신이 자연과 동체가 되는 무아(無我)를 체험했다. 내가 비어지는 아공(我空) 상태 속에서 자연과 합일이 되는 경지였다. 오세암 둘레에 자생하는 산벚나무 꽃을 보면 자신이 산벚나무 꽃이 되고, 수렴동계곡을 흐르는 물을 보면 자신이 계곡물이 되고, 구름 한 점 없는 허공을 보면 자신이 광대무변한 허공이 되었다.

삼매가 주는 재미가 있다면 마음의 밀도를 높여주는 무형의 충만함이었다. 깨어있는 마음 자체가 넉넉한 충만이었다. 불법을 만난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지 새삼 부처님과 선지식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그렇다. 이러한 정복이 어찌 나 혼자만의 정진의 결과이겠는가. 불은(佛恩)이고 선지식들께서 나에게 베푼 시은(施恩)이다.’

어느 날 혜암은 또 다시 오대산 암자들이 그리웠다. 생각이 들면 바로 실천에 옮기는 것이 혜암의 성격이었다. 설악산을 지나가던 비구름이 소나기를 퍼붓고 있는 날이었다. 혜암은 사미승이 된 지 두 달도 안 된 백담사 스님의 만류를 뿌리치고 있었다. 오대산 적멸보궁으로 나아가 삼천배를 하고 난 뒤, 통영 천제굴로 가 성철을 만나 자신의 경지를 점검하고 싶어졌다.

“혜암스님, 비라도 그치면 가십시오.”

“적멸보궁으로 가서 삼천배를 하고 싶소. 지금 내가 부처님께 은혜를 갚는 길은 그것뿐인 것 같아요. 오세암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소.”

사미승은 천일기도를 하기 위해 올라온 백담사 주지 상좌였다. 천일이 되기 전까지는 백담사를 내려가지 않겠다고 발원하고 기도에 들어간 사미승이었다. 혜암은 암자살림을 인수인계하는 것이 번거로워 오세암을 몰래 떠나려고 했지만 들키고 말았다.

“적멸보궁으로 가시어 정진하시려고 합니까.”

“참배한 뒤에는 성철스님이 계시는 천제굴로 가려고 해요. 성철스님께서는 정진하되 늘 선지식의 점검을 받으라고 했지요. 그래야 참선의 길에서 일탈하지 않고, 법집(法執)에 걸리지 않는다고 말씀했소.”

“스님, 법집이 무엇입니까.”

“스님들이 참선해서 득력 좀 했다고 자랑하고 자만하는 것이 법집이지요. 스님도 나중에 천일기도 했다고 드러내고 다니면 안 되지요. 그것도 법집이에요. 말하자면 기도해서 가피를 좀 받았다고 자만하는 것도 법집이지요. 법집도 따지고 보면 아집과 같은 것이오. 나를 비우지 못하고 과신하는 그것이 바로 아집이란 것이오.”

사미승은 알고 싶은 것이 많은지 혜암에게 이것저것 물었다. 혜암은 그때마다 자상하게 얘기해주었다.

“나는 여기서 전쟁을 났소. 전쟁은 나에게 결제기간이었소. 그렇다고 여기 있는 동안에 먹을 것을 걱정해본 적은 없었어요. 스님도 참선을 하면 더 좋겠지만 이왕에 기도하러 왔으니 기도만 하시오. 도인스님들 말씀이지만 먹을 것 걱정하면 귀신들이 이놈은 먹을 것부터 걱정하는 놈이라고 얕본다고 해요.”

“스님, 또 오십시오. 스님을 모시고 참선공부하고 싶습니다.”

“또 올 것이니 기도 잘하고 있어요. 적어도 내 나이 마흔까지는 오대산과 설악산을 떠나지 않겠다는 서원을 세웠어요. 중이 됐으니 설악산에 살아봐야 오세암 관세음보살이 어떤 분인지, 오대산의 오대 암자를 다 살아봐야 오대산에 계시는 문수보살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지 않겠소.”

실제로 혜암은 34세부터 42세까지 설악산과 오대산, 태백산을 오가며 정진했다. 살림이 넉넉한 대중처소보다는 스님들이 왔다가 슬그머니 도망쳐버리는 산중암자가 자신의 성정에 맞았기 때문이었다.

혜암은 빈 암자를 찾아가 마당에 난 풀을 뽑고 부엌에 장작을 쌓고 해서 누군가가 정진할 수 있게끔 만들어놓고는 그곳을 떠나곤 했다. 수좌가 공덕을 쌓는 길은 오로지 참선하는 일이요, 복덕을 짓는 길은 뒷사람이 공부 잘하도록 암자에 식량이나 땔감을 쌓아두고 떠나는 것이라고 혜암은 믿었다. 혜암이 설악산을 떠나 오대산 적멸보궁에 갔을 때도 상원사에서 조금 먼 서대 같은 곳은 텅 비어 있었다. 수좌들도 가지 않으려고 했다. 종전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암자들이 호젓하고 괴괴했던 것이다. 그러나 혜암의 생각은 달랐다. 그런 곳이 마음 닦는 공부가 잘되었고, 도량 신장들이 외호를 더 잘해 주는 것 같았다. 적멸보궁을 참배하고 나서 중대 사자암에서 하룻밤을 묵는데, 상원사 주지스님이 오히려 혜암에게 사정했다.

“아무도 서대에 가지 않으려고 하니 스님이 살아주시오.”

“주지스님, 고맙습니다. 방금 적멸보궁에서 삼천배를 하면서 서원을 하나 세웠습니다.”

“무슨 서원을 했소.”

“오대산의 오대, 다섯 암자 모두에서 살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스님이 살아만 주면 고맙지요. 스님들이 살지 않으니 암자의 도량신들도 떠나는 것 같아 암자들이 을씨년스러워요.”

“주지스님, 걱정 마십시오.”

“서대와 북대가 비어 있으니 언제라도 오시오.”

특히 북대 미륵암은 고려시대 때 나옹선사가 숨어 살던 암자로 전쟁 전 만해도 수좌들이 서로 가려고 하던 암자였다. 그런데 공비들의 출몰이 잦았던 6.25 전쟁 후유증으로 지금은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모양이었다. 주지가 혜암에게 다시 부탁했다.

“오대산에서 함께 정진하십시다.”

“주지스님, 성철스님을 뵌 뒤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혜암수좌가 온다고 하니 마음이 놓이오. 아무래도 스님은 다생(多生)에 걸쳐 오대산에서 살았던 인연이 있었던 것 같소.”

“주지스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대산에 들어오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햇중일 때 저를 격려해주셨던 한암 큰스님도 그립고요 고향에 돌아온 듯 모든 것이 낯이 익습니다.”

혜암은 중대 마당가에 심어진 단풍나무를 보고 합장했다. 한암이 서울 봉은사에서 들어와 적멸보궁을 참배하고 난 뒤 심었다는 단풍나무였다. 〈계속〉



수렴동계곡물 바라보며
천년을 하루같이 행선
천제굴 성철 스님만나
자신의 경지 점검하고 싶어져

마흔살까지 오대산,
설악산 떠나지 않겠다 서원
주지 스님께 다시 돌아와
정진할 것 약속



◇ 서평 ◇ ····· 한국사상과 불교 . 박성배 지음 . 혜안 . 3만원

종교에 대한 '學問', 그 치열함의 모범

박성배 교수가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에 교수로 재직하다가 느닷없이 미국 유학길에 오르고 아예 거기에 눌러앉아 활동해온지가 벌써 40년이 되었다. 버클리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스토니부룩 뉴욕주립대학교 종교학과에 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학과와 한국학연구소를 설립하여 키워왔다. 한편으로, 방법론은 일본과 유럽의 불교학에서 많은 영향을 받고 주로 인도와 중국, 일본, 티베트 불교 연구에 치중해온 미국 불교학계에 한국불교의 이슈들을 소개하는 데 막중한 기여를 해왔다.

하지만 한국에는 이른바 돈점논쟁(頓漸論爭)의 와중에 국내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들 이외에는 그의 학문이 중견 학자들 사이에나 좀 알려져 있을까 말까 할 정도여서 아쉬웠다. 근래에 박 교수의 글들이 한국에서도 속속 출판되고 있어서 그 아쉬움을 좀 덜 수 있게 되었다.

철학과의 한 동료 교수가 이런 푸념을 하는 것을 들었다. 요즘에는 철학을 '하는' 철학자가 아주 드물고 대개는 철학에 '대해' 연구할 뿐이라는 푸념이다. 칸트니 헤겔이니 하이데거니 하는 서양의 철학자들, 또는 공자나 맹자, 주자, 왕양명 등 동양의 철학자들이 남긴 글을 통해 그네들의 철학에 대해서 공부하느라 바쁘니, 철학을 한다면서 사실은 철학사를 연구하고 있을 뿐이라는 얘기이다. 학생들이 제출하는 글에 학문(學問)을 학문(學文)이라고 잘못 쓰는 경우를 심심찮게 볼 수 있는 것도 그 푸념과 겹쳐서 새삼스럽게 씁쓸함을 더해준다. 철학뿐 아니라 어느 분야에서나 학문(學問)보다는 학문(學文)이 대세다. 심지어 그 둘을 구별하는 감각조차 희미해져, 학문(學文)을 할 뿐이면서도 학문(學問)을 한다고 착각한다. 학생들의 그런 실수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그런 현실을 반영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박성배 교수가 성철 스님 회상에서 수행하던 1967년 해인사에서 하안거를 기념해 찍은 사진. 뒤에서 두번째줄 왼쪽 두번째가 박성배 교수다. 사진제공=혜안출판사

순자(荀子)를 비롯해서 옛 문헌에도 가끔 학문(學問)이라는 말이 나오기는 하지만, 우리가 요즘 쓰는 그 말은 근대에 서양의 개념들과 동아시아 한자문화권의 개념들을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는 와중에 탄생했을 터이다. 학문에 상응하는 서양 개념 중에 근원적인 것으로는 studium이라는 라틴어를 꼽을 수 있겠다. 영어의 study도 거기에서 나온 말이다. 간절함, 부지런함, 추구함 등이 그 어원적인 의미라고 하니 한자문화권의 學 개념과 근본적으로 상통한다. 즉 학문의 요체는 간절한 물음을 제기하고 부지런히 그 답을 추구하는 데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앎을 얻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나아가 학문을 하는 당사자 자체가 그 사람 됨됨이와 삶의 이상적인 변화를 이루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점이다. 그런 학문(學問)이 쇠퇴하고 학문(學文)만이 횡행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세속학문의 에토스 때문일 것이다. 이른바 객관성을 금과옥조로 삼는 과학주의(scientism), 역사주의(historicism)의 풍토가 학문(學問)보다는 학문(學文)을 하게 만들었다. 과학주의, 역사주의에 대한 반성은 진즉부터 치열하게 이루어져왔지만, 그것만으로는 이미 강력하게 진행되어온 추세가 되돌려지지 않았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넓은 의미에서 과학이 학문 방법론의 주종이 되었고 과학에서는 학문과 학자의 사람 됨됨이가 별개이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든다.

그러나 적어도 인문학만큼은 학문(學文)으로 환원되어버려서는 곤란하다. 근래에 인문학의 위기에 관한 담론이 왕성하고 여러 가지 진단이 제시되고 있는데, 인문학이 학문(學文)이 되어버린 것이 그 위기의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인문학이라고 해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위에 언급했듯이 인문학의 핵이라 할 수 있는 철학부터가 그렇게 심란한 사정에 처해있고 특히 불교학 또한 같은 사정인 와중에, 박성배 교수의 이 글들은 단순히 文을 다루는 기계적인 학술논문 이상의 의미로 다가온다. 그 논문들도 주제는 원효, 지눌, 율곡, 퇴계, 성철, 박종홍 등등 언뜻 보면 대개 "철학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철학사에 해당하는 주제들을 가지고 역시 단순히 학문적(學文的)으로 논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그 논문들 전편에 걸쳐서 그의 치열한 학문적(學問的)인 추구가 읽힌다. 바로 그 점 때문에 평자는 박교수의 논문들을 학생들에게 많이 읽힌다. 특히 종교학도들은 종교의 탈속적 이상을 세속학문의 방법과 언어로 의미 있게 이야기해야 하는 까다로운 과제와 씨름한다. 그 일을 학문(學文)으로 손쉽게 처리해버리려 한다면 그네들의 논문에서 정작 종교는 죽어버린다. 종교를 분해한 시체에 대한 이야기가 될 뿐이다. 이 책에 학부시절의 것부터 최근 것까지 모아놓은 박성배 교수의 논문들은 "종교에 대한 학문"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물음을 안고 사는 그네들에게 하나의 좋은 지침이 된다. 무엇보다도, 학문(學文)으로 도피하지 말고 치열하고 간절하게 대드는 것이 학문(學問)의 생명임을 배울 수 있다.

윤원철 ·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천도법문'은 영가보다 산 사람에 '명약'

무비 스님 '일곱번의 작별인사', 49재 천도재 법어 묶어

49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등 노인 정책이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고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장묘사업체들의 홍보활동도 뜨겁다. 거기에 자살한 유명 연예인들의 49재가 언론에 자주 거론되고 있다. 노무현 前 대통령의 서거 이후 진영 정토원은 장례일부터 49재가 지난 시점까지 연일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전국 사찰에서 노 前 대통령의 49재를 봉행하여 49재라는 단어를 못 들어 본 국민이 없을 정도다. 그러나 49재가 무엇인지 왜 행하는 것인지를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불자들조차도 49재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저 영가의 극락왕생을 위해 남은 자들이 하는 의례라는 정도로 이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본래 49재의 의미는 영가가 못다한 복을 지어 드리고, 나아가 참으로 진정한 영가의 실상이 무엇인지 일깨워 드리는데 있습니다.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금일 영가를 보내드리는 마지막 시간이지만 영가의 입장에서 보면 비로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첫 문입니다."

우리 시대의 대강백 무비스님은 49재를 영가와 남은 사람들이 함께



49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다. 사진은 노무현 前 대통령의 49재 모습.



일구는 공덕의 자리라고 말한다. 금생의 인연을 마치고 새로운 인연을 찾아가는 영가에게 보다 밝은 길을 닦아 주고 그러한 공덕은 남은 자들에게도 회향된다는 것이다.

<일곱 번의 작별인사>는 7일 단위로 일곱 번의 재를 올리는 49재의 스케줄을 뜻한다. '작별인사'라지만 책의 내용을 파악하고 보면 끝으로서의 작별이 아니라 새로운 인연 가꾸기로서의 작별인사임을 알게 된다. 책의 내용은 무비 스님이 49재와 천도재에서 한 법어들이다.

영가천도 법어는 '법어 중의 법어'다. 불교의 생사관과 우주관 인생관을 가장 긴요하게 응축한 내용이다. 49재나 천도재에서 법어를 듣는 영가는 이승의 인연을 마치고 다음생의 인연을 받지 않은 상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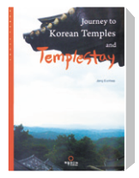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최상의 법문을 듣고 깨우침을 얻어 최선의 인연을 만나라는 것이 천도법문의 주류다. 생사가 덧없으며 홀로 밝은 한 마음이 진정한 존재임을 깨우치기 위해 <금강경>의 공사상을 자주 인용하고 <열반경>이나 선사들의 게송 등이 인용된다.

영가에게 새로운 삶의 메시지를 들려주는 영가천도법어. 사실, 살아있는 사람들이 더 간절하게 가슴에 새겨야 할 생사해탈의 '명약'이다. 지금 살아 있는 사람도 결국엔 영가이기 때문이다. 불광출판사 | 9800원

임연태 기자

외국인을 위한 한국불교 안내서

영문판 'Journey to…'



하원 미디어가 외국인들에게 우리 문화를 알리기 위해 시획한 '코리아 스토리 시리즈' 네 번째 책이다. 모두 5부로 나눠져 있다. 제1부는 중국을 거쳐 들어 온 한국불교의 발전 과정을 설명하고 있으며 제2부에서는 한국 불교와 사찰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제3부는 사찰 기행을 통해 느낀 저자의 의견들이 절집의 미학을 감상하는 방법과 함께 소개되고 있다. 제4장과 5장에서는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는 사찰에 대한 정보와 외국인들의 대표적인 궁금증을 담았다. 장은화 지음 | 하원미디어 | 1만2000원

세상의 갈등 푸는 '따끔한 한 마디'

신규탁 교수, 칼럼집 '때 묻은 옷을 걸면서' 펴내

세상의 갈등을 없애고 평온을 유지하는 지혜를 가르치는 것이 종교다. 그런데 그 지혜를 가르치기보다는 교단의 안위와 성직자 혹은 수행자 등 교단 구성원간의 갈등이 세상 속으로 불거져 나오기 일쑤다. 세상을 가르치는 종교가 세상 속에서 혼란의 당사자기 되는 일이 비일비재다.

그래서 '따끔한 한 마디'가 갖는 공명은 크다. 종교란 교단의 것이 아니고 보편적인 삶의 동반자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동시대인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한 마디'를 던지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깊은 사유와 냉철한 분석 그리고 대안과 해답을 도출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때 묻은 옥을 걸면서>는 연세대 철학과 신규탁 교수가 불교계의 여러 매체들이 기



고했던 글들을 묶은 것이다. 그의 깊은 사유와 차가운 현실인식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따뜻한 눈길이 한권의 책에 고스란히 담겼다.

봉선사 조실 월운 스님이 신 교수를 유발제자로 받아들이면서 내린 '게문(偈文)'에 "때 묻은 옷을 세상에 걸어두고 그들과 어울려 중생의 고민을 털어 주거라"라는 대목이 나온다. 그것이 곧 책의 제목으로 응용됐다. 신 교수가 재가불자로 철학자로서의 길을 걸으며 늘 곤추세운 마음의 푯대가 어떤 것인지 이 칼럼집을 보면 알 수 있다. 정우서적 | 1만원

임연태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일기일회	법정	문학의 숲
2	아름다운 마무리	법정	문학의 숲
3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4	인과경	현담	선
5	지금 그것이 어디에 가 있나요	곽은구	불광출판사
6	세어본 소만 존재한다	월호	운주사
7	지리산 스님들의 못말리는 수행이야기	천친, 현현	불광출판사
8	쉬고 또 쉬고	무여	새로운 사람
9	삼천년의 생을 지나 당신과 내가 만났습니다	성전	마음의 숲들
10	행복하기 행복전하기	법륜	정토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신간! 초발심자경문
이 초발심자경문은 한문을 새기는 힘인 문리를 터득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러 의역하지 않고 직역하였다. 대원 선사님의 살아있는 수행지침도 실려 있다.
초발심자경문


전강 대선사 법어집
달다
법회안내
이번 달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서울, 부산, 광주 법회는 전강의식 및 사막화 방지 사단법인 창립기념 행사로 인해 포천의 국제 정맥선원 대웅전에서 둘째주 일요일인 8월 9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02-3494-2460 www.zenparadise.com

사찰 건축의 얼굴 門 "문"
확! 바꿔드립니다


홍송으로 만들어집니다. 가격이 저렴합니다.
조각이 섬세합니다. 문화유산이 되도록 견고합니다.
◆문짝의 종류 : 사살 꽃살문, 육살 꽃살문, 빗살문, 사천왕문 금강역사문, 33관음문, 16나한문, 동자문, 조각문 주문제작
◆1,250나한 그림책 1권 – 판매금액 180,000원
◆입금계좌 : 농협 174392-56-064352 (예금주 : 이애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178-1 성불사내
◆불사상담문의 041)567-2600 / 011-421-5337
인터넷 주소창에 고건축 검색어 삽입
www.ehanok.com
목조 · PC고건축 · 사찰문 · 나한 문화재수리기능보유등록 제 1853호
한국고건축 금호 임영창 합장

칠포 대원사 성지 순례지

용의크기 : 넓이 20미터, 높이 2.5미터, 길이 108미터
사바세계 일체중생은 신비의 용을 친견 함으로써 번뇌망상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일체중생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고 관세음보살님 42수 진언의 소원 성취를 증득하실 길장이 바로 칠포 대원사 성지순례이옵니다.
(칠포 해수욕장 15분거리)
신비의 상징, 길상의 상징, 불법을 수호하는 신용, 대한민국 최초로 거대한 용을 조성하였습니다.
용의 뱃속에 천불전, 일천불 부처님이 타고 계시며 용의 몸통속에 7만 7천 부처님을 봉안 할 예정입니다.
사단법인 대한불교 (禪) 선종 총본산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칠포리 607번지
전화 : 054)261-7777 / 팩스 : 054)261-6119

핀란드에서 온
100% 야생블루베리!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기능성 색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을 폭격하던 영국공군 조종사들이 야간비행 전에 블루베리를 주식으로 먹었습니다. 이후 물체식별이 향상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블루베리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다량의 안토시아닌 덕분에 블루베리는 우리몸의 젊음을 지켜주는 과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할인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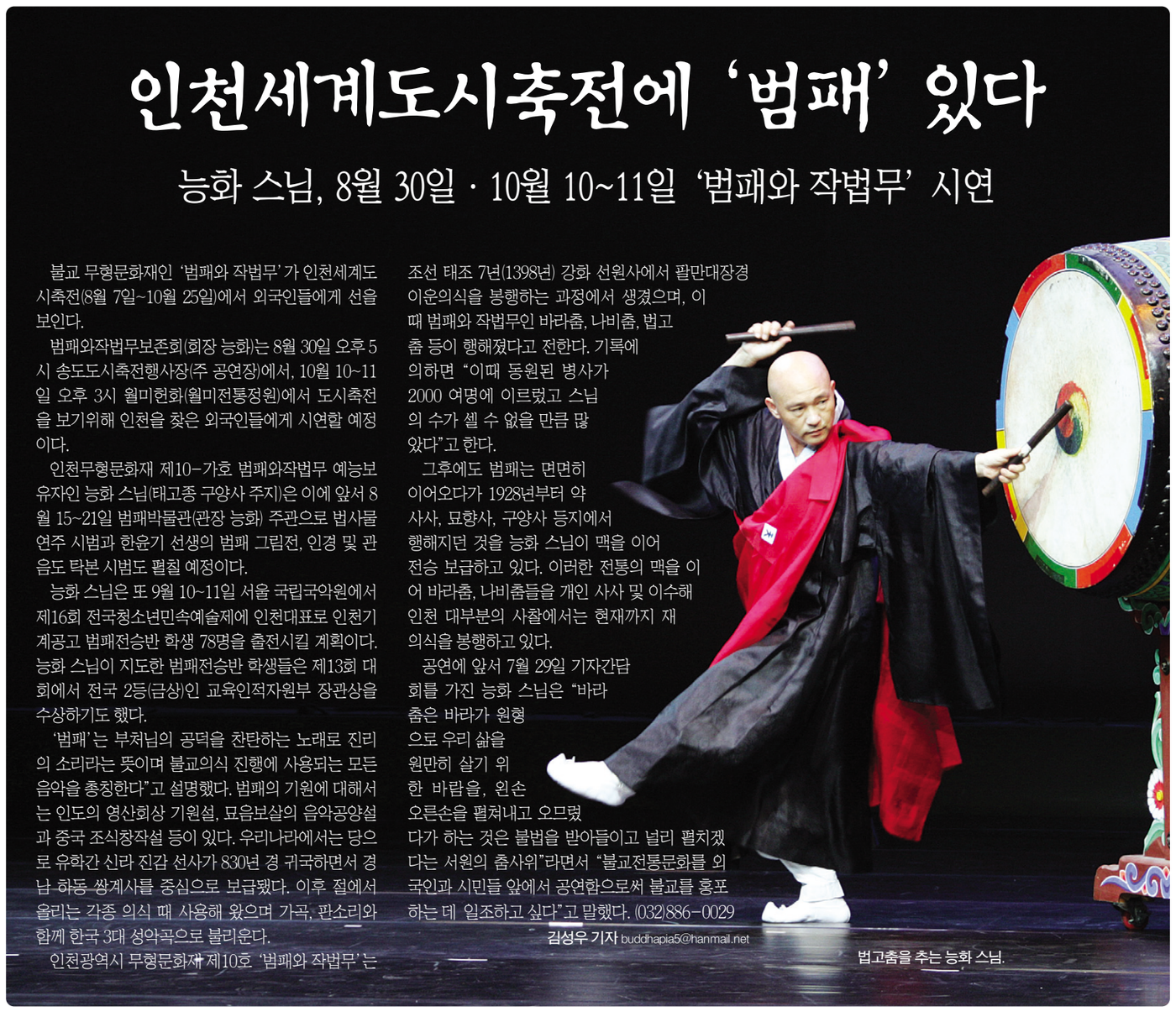

블루베리 파우더
~~35,000원~~
⇒32,000원


블루베리 주스
~~46,000원~~
⇒42,000원


크랜베리 주스
~~46,000원~~
⇒42,000원
YADANBEOPSEOK 야단법석 구입문의:010-5318-0704 www.01053180704.com

인천세계도시축전에 '범패' 있다

능화 스님, 8월 30일 · 10월 10~11일 '범패와 작법무' 시연


법고춤을 추는 능화 스님.

불교 무형문화재인 '범패와 작법무'가 인천세계도시축전(8월 7일~10월 25일)에서 외국인들에게 선을 보인다.

범패와작법무보존회(회장 능화)는 8월 30일 오후 5시 송도도시축전행사장(주 공연장)에서, 10월 10~11일 오후 3시 월미헌화(월미전통정원)에서 도시축전을 보기위해 인천을 찾은 외국인들에게 시연할 예정이다.

인천무형문화재 제10-가호 범패와작법무 예능보유자인 능화 스님(태고종 구양사 주지)은 이에 앞서 8월 15~21일 범패박물관(관장 능화) 주관으로 법사물 연주 시범과 한윤기 선생의 범패 그림전, 인경 및 관음도 탁본 시범도 펼칠 예정이다.

능화 스님은 또 9월 10~11일 서울 국립국악원에서 제16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에 인천대표로 인천기계공고 범패전승반 학생 78명을 출전시킬 계획이다. 능화 스님이 지도한 범패전승반 학생들은 제13회 대회에서 전국 2등(금상)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범패'는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는 노래로 진리의 소리라는 뜻이며 불교의식 진행에 사용되는 모든 음악을 총칭한다"고 설명했다. 범패의 기원에 대해서는 인도의 영산회상 기원설, 묘음보살의 음악공양설과 중국 조식창작설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당으로 유학간 신라 진감 선사가 830년 경 귀국하면서 경남 하동 쌍계사를 중심으로 보급됐다. 이후 절에서 올리는 각종 의식 때 사용해 왔으며 가곡, 판소리와 함께 한국 3대 성악곡으로 불리운다.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0호 '범패와 작법무'는 조선 태조 7년(1398년) 강화 선원사에서 팔만대장경 이운의식을 봉행하는 과정에서 생겼으며, 이때 범패와 작법무인 바라춤, 나비춤, 법고춤 등이 행해졌다고 전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때 동원된 병사가 2000 여명에 이르렀고 스님의 수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다"고 한다.

그후에도 범패는 면면히 이어오다가 1928년부터 약사사, 묘향사, 구양사 등지에서 행해지던 것을 능화 스님이 맥을 이어 전승 보급하고 있다. 이러한 전통의 맥을 이어 바라춤, 나비춤들을 개인 사사 및 이수해 인천 대부분의 사찰에서는 현재까지 재의식을 봉행하고 있다.

공연에 앞서 7월 29일 기자간담회를 가진 능화 스님은 "바라춤은 바라가 원형으로 우리 삶을 원만히 살기 위한 바람을, 왼손 오른손을 펼쳐내고 오므렸다가 하는 것은 불법을 받아들이고 널리 펼치겠다는 서원의 춤사위"라면서 "불교전통문화를 외국인과 시민들 앞에서 공연함으로써 불교를 홍포하는 데 일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032)886-0029

김성우 기자 buddhapia5@hanmail.net

'작은 것이 아름답다'

한국미술센터, 갤러리 이즈서 8월 11일까지 전시


최한동 作 '어쩐지 봄바람'.

그림시장 호황기였던 2007년 전후로 인기를 끌었던 100만원대 소품전이 다시 등장해 눈길을 끈다.

한국미술센터(관장 이일영) 주관으로 7월 29일~8월 11일 인사동 갤러리 이즈 1, 2, 3층 전관에서 열리는 '작은 것이 아름답다' 전에는 4호에서 6호 크기의 소품 300여 점이 출품된다. 가격은 100만원대가 주종이며 가장 비싼 작품이 300만원대다. 참여 작가는 이종상 이인실 이철주 원문자 전래식 등 원로 중진에서 청년작가까지 187명에 이른다. 장르도 한국화(95명), 서양화(80명), 민화 · 문인화 · 한글서예(12명) 등을 망라한다.

이일영 관장은 "미술시장 침체로 기획전시가 부족한 상황에서 작가들이 신작을 선보일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며 "이런 자리를 통해서 미술 애호가들과 작가의 만남이 새로운 창작열을 북돋우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2007년 노화랑에서 마련한 '100만원전'은 작품이 모두 팔려 추가 주문까지 이어졌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이에 앞서 2006년 서울대 개교 60주년 기념으로 열린 서울대 미대 출신 작가 '60만원 소품전'의 구입경쟁률은 평균 150 대 1을 기록하기도 했다. 2007년을 기점으로 가격이 지나치게 오른 작품보다 합리적인 가격대의 작품이 경매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전시는 하반기 미술시장의 향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02)2003-8392

김성우 기자

"미술로 사춘기 자녀와 소통하세요"

선-아트스페이스, 8월 8~9일 '가족사랑' 전시

미술 체험을 통해 사춘기 자녀를 둔 가정의 가족간 소통 계기를 마련하는 이색 프로그램이 열린다.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선-아트스페이스(원장 박경귀)는 8월 8~9일 '가족 간의 사랑'을 주제로 우리 가족 좌충우돌 첫 전시 '사랑을 보다'를 개최한다.

참여 가족들은 1단계 '내안의 나-자기 성찰의 시간'과 2단계 '사랑을 보다-우리 가족, 마음을 나누는 시간', 3단계 '사랑의 메시지-소망을 담는 시간'의 3단계 미술 체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가족 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 특히 미술 체험 뿐 만 아니라 '비폭력 대화법'으로 유명한 한국비폭력대화센터 캐서린 한 소장의 '가족 간에 나누는 사랑의 대화법'을 주제로 특강도 진행된다.

이에 따라 8일에는 캐서린 한의 비폭력 대화법 특강과 마인드 맵을 이용한 첫 번째 작품 '내안의 나-자기 성찰의 시간'이 열린다. 9일에는 대화법을 통한 두 번째 작품 '사랑을 보다-우리가족, 마음을 나누는 시간'과 소망상자를 이용한 세 번째 작품 '사랑의 메시지-소망을 담는 시간'이 이어진다. 프로그램을 통해 만들어진 작품들은 '스페이스 선+'에서 4일간 전시된다. (02)732-0732

김성우 기자

'한국의 미소 반가사유상' 미국 간다

美 LA카운티박물관 한국실 재개관 전시에 석조보살입상 등 대여


국보 제78호 금동미륵보살 반가사유상.

'한국의 미소'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국보 78호)이 미국 시민들을 찾아간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최광식)은 오는 9월초 미국 LA카운티박물관 한국실 확장 재개관 전시에 국보 제78호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석조보살입상, 해좌일통전도 등 주요 문화재 3점을 대여할 예정이다.

국보 제78호 금동반가상은 국보 제83호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과 더불어 우리나라 금동반가상의 최대 걸작 가운데 하나로,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전반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표적 불교미술품이다.

석조보살입상은 경주 남산 장창골의 한 석실에서 옮겨온 미륵삼존불 중 협시보살상으로 흔히 삼화령 미륵불이라고도 하며 신라 말기인 7세기 중엽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신체 비례와 얼굴이 어린아이와 같아 '애기 부처'로 불리기도 한다.

해좌일통전도(海左壹統全圖)는 19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지도로 국토의 전체적 윤곽이 정상기의 동국지도류와 비슷하고 독도를 표기하고 있어 우리나라 국토를 잘 보여주는 문화재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전 세계 17개국 박물관에 설치된 58개 한국실 중 최대 규모로 확장해 재개관하는 LA카운티박물관 한국실에 주요 문화재 3점을 오는 9월부터 연말까지 3개월여 동안 대여 전시함으로써 전 세계 관람객들에게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륵반가상과 함께 최고 불상으로 꼽히는 국보 83호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은 지난해 벨기에 브뤼셀 보자르예술센터에 전시된 바 있다.

김성우 기자

법왕사, 월간 '불국토' 창간

대구 법왕사 부주지 효신 스님이 최근 불교잡지 월간 <불국토>(7월호)를 창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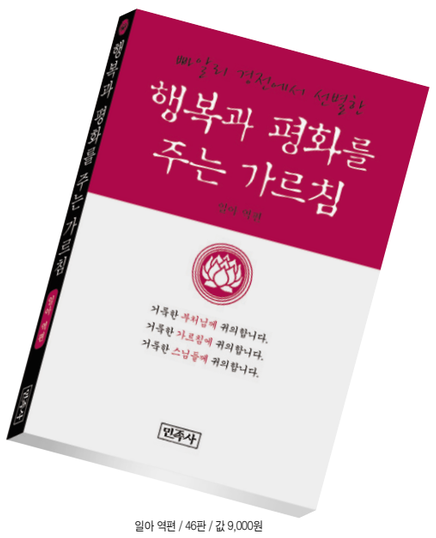
대구 · 경북을 중심으로 한 전국 규모의 잡지로 선을 보인 <불국토>는 불교에 입문하고자 하는 예비불자와 초심불자들, 그리고 젊은 층을 겨냥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기 쉽게 전하는 데 편집의 초점을 두고 있다.

7월 창간호에는 기획연재로 '불교 4대 성지를 찾아서', 기획특집 '49재의 유래와 의미', '장인의 숨결' 대한민국 도예명장 천한봉 인터뷰 등이 게재됐다.

발행인 효신 스님은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포교지로서 신행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실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나가는 잡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우 기자

불교의 뿌리인 빠알리 경전에서 선별한
행복과 평화를 주는 가르침
일아스님 역편



일아 역편 / 46판 / 값 9,000원

두려울 때는 불 · 법 · 승 삼보를 생각하라!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보석처럼 빛나는 부처님 말씀!
마음에 와 닿고, 독송하기 좋고, 쉽고 편리하고 유용한 책!

① 늙음 · 죽음 · 병듦 · 슬픔 · 한탄에 빠진 이들에게 주는 가르침!
② 기도 · 보시 · 공덕 · 효도 · 자비에 대한 가르침!
③ 참된 친구 · 거짓 친구에 대한 가르침!
④ 바른 생각 · 바른 행동 · 바른 삶에 대한 가르침!



※부처님 말씀을 통하여 행복과 평화를 가져오기를 발원합니다. 우리 모두!

민족사 전화: 02-732-2403~4 · 팩스: 02-739-7565 · 홈페이지: www.minjoksa.org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열망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깨달음으로 가는 이정표!"



김종수 감수 · 훤일 지음
신국판 /296쪽 / 값 12,000원

깨달음에는 분명한 공식이 있다.
그 공식은 바로 나와 남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중도연기법'
이 가르침만이 어리석음을 끊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부처님께서 천명하셨다.

민족사



함영의 **밥맛 나는 세상**

㊳ 티베트 스님들

'마음붙이' 동생 스님의 된장수제비

웬 복인지, 최근 내게는 열 살 터울의 남동생이 생겼다. 똘박한 눈빛만큼이나 맑고 총명한 그는 티베트에서 온 푼속 스님이다. 스님과 의 남매를 맺게 된 것은 부산의 광성사라는 절, 공양간에서다. 광성사에는 주지인 소납 스님을 비롯해 따시 스님과 로남 스님, 푼속 스님, 이렇게 네 명의 티베트 스님이 살고 있다. 공양주 보살이 따로 없는 광성사의 스님들은 돌아가며 밥을 짓고 청소를 한다. 모 잡지에 공양간 이야기를 연재하기위해 절을 찾아간 날, 그 주의 밥 당번은 푼속 스님이었다. 한국에 온지 채 3개월이 되지 않아 한국어가 서투른 스님은 낯선 객의 공양간 방문에 걱정 어린 기색이 역력했다.

"저는 한국말 못해요. 죄송합니다"라는 말로 인사를 건넨 스님은, 티베트어는 물론 중국어와 인도어 3개 국어를 비롯해 인도인 친구에게 고작 6개월을 배웠다는 영어로 웬만한 의사소통은 자유롭게 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낯설고 물 설은 한국의 인심이란 백인인 서양인들에게는 이유 없이 친절해도, 우리와 비슷한 구리빛 외국인에게는 되레 팍팍해 살천스럽지 않던가. 더구나 붉은 승복차림에 영어를 사용하는 낯선 이방인에게 그 어리석은 인심인들 오죽했으랴. 말끝마다 "한국말 못해 죄송합니다"를 반복하며 겸연쩍어하는 스님에게 "저는 티베트 말 못해 죄송합니다"라고 화답하니, 스님은 "여기는 한국 땅, 그러니까 제가 죄송합니다"라고 손사래를 치며 환하게 웃는다.

스님은 금세 마음을 터, 티베트 라싸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의 사진이 담긴 앨범을 꺼내와 보여주며 소개까지 한다. 18세에 목숨을 걸고 히말라야를 넘어 인도 다람살라로 망명한 십년 전의 기억과, 추위와 굶주림으로 생사를 오가던 당시의 고통도 함께 들려본다. 망명 후 가족에 대한 그리움은 육신의 지병이 된지 오래라, 그 사연인들 말로 다할 수가 없어 통해버린 교감 속에서 "앞으로는 제가 누나해 줄게요"라는 말이 절로 나왔다. 그런데 따지기를 좋아하는 이 놈의 머리통이 찰나 쉬기가 무섭게 돌아가, "그런데 제가 스님보다 나이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큰누나예요. OK?"라며 다그친다. 때론 눈치코치 없는 입방아도 쓸모가 있어, 스님의 촉촉해진 눈망울이 금세 밝아져 "누나 아니고 동생 같아요"라며 맞장을 뜨니, 하릴없이 나이만 먹은 철없음을 그새 들키고야 말았다. 그렇게 마음으로 맺은 '마음붙이' 동생 스님이 오늘은 철부지 누나에게 티베트식 수제비를 선보일 요량이란다.



푼속 스님이 맛깔나게 끓인 된장수제비를 선보이고 있다.

밀가루를 꺼내 익숙한 솜씨로 반죽을 치댄 스님, 싱크대 한편에 밀가루를 흩뿌려 반죽을 올리고 밀대로 쓱쓱 미는 품새가 범상치 않다. 이쯤에서 동생 자랑을 조금만 늘어놓는다면, 살림살이가 얼마나 알뜰한지 냉동실에서 전에 사용하고 남은 밀가루반죽을 전자레인지에 녹여 새 반죽과 섞어 사용하는 센스를 잊지 않는다. 어디 그뿐이랴. 점심때 먹다 남은 된장국에 물을 추가로 부어 수제비를 만들 국물로 대용하는 전략과 독창성은 가히 프로급이다. 수제비에 넣을 배추와 버섯, 양파, 토마토를 썰어 준비하는 사이 국물이 끓자, 스님의 진기명기가 펼쳐지기 시작했다. 얇게 빚은 밀가루반죽을 손목에 척척 걸치고 수제비를 뜨기 시작하는데, 그 민첩함이란 수제비를 뜨고도 뜨지 않은 경지라고나 할까. 나라잃은 설움과 가난 속에서도 마음만은 풍요롭고 따뜻했던 시절이 우리네 삶 가운데에도 있었음을, 불보살님 같은 스님들이 차려준 보배로운 밥상 앞에서 수제비를 한 대접 푸지게 먹고나서야 비로서 기억났다.

자유기고가, blog.naver.com/owisdom

※부산 한국티벳센타 광성사에서는 매주 목요일과 토요일 저녁, 티베트어 강좌와 입보리행 강론이 있습니다. 비용은 무료. (053)-243-2468



'풍산동' 넣은 건강 기능성 지압깔창 만들어

한국적이면서도 건강에 좋은 만행화를 만들게 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만행화 신발로 이름을 지어준 남한산 망월사 성법스님은 사부대중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신발을 만들어 보급할 것을 늘상 저에게 당부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고민했습니다. 신발관련 사업에 몸담은 지 35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내가 과연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수없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지금 수천 · 수만 가지의 신발들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 중 중국에서 만들어 들여온 것이 80%이상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한국적인 색을 갖춘 신발을 만들기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발관련 사업에 몸담은 이상 한국적인 신발을 만들고 싶은 욕심이 생겨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 고무신코 모양을 닮은 사계절 단화를 개발했습니다.

언젠가 회사원들이 '신발 속에 10원짜리 동전을 넣어 놓으면 발 냄새도 덜 나는 것 같고 무좀을 방지해 준다'고 말했던 일화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니 동(銅)이 냄새를 없애주고 습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를 만행화에 넣을 수 있게 풍산동을 일정 크기로 불여서 제작을 해본 결과 발 냄새 제거 및 무좀 방지에 효능이 있다는 것을 증명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후 2005년을 시작으로 만행화 신발 속에는 초극세사 원단과 실리콘 고무(지압매트), 풍산동 등 5가지의 원료를 추가로 넣어서 제작해 판매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행화는 3년간의 우여곡절 끝에 사부대중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고 2008년 2월 15일 자로 특허청으로부터 발명특허 10-0806337호를 획득했습니다.



건강지압슬리퍼

성법 스님은 "불교에서는 절을 많이 하기에 발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할 수 있으니 발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신발을 만들면 좋겠다"며 지속적인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에 힘입은 연구와 시행착오끝에 웰빙 건강 기능성 지압깔창을 만들어 만행화에 한 번 더 큰 힘을 실어줄 수 있었습니다.

불자로서 항상 사부대중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만행화를 만들어 보람과 행복을 느낍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해 보다 나은 만행화를 만들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02)733-5715

행복한 삶을 위한, 선과 禪 심신건강 心身健康

㊹ 뇌신경전달물질과 성격

박지숙 박사 한·양방 의료센터 salm 마인드힐링연구소

상대방이 날 힘들게 할 때 대처법 2

3. 하기 어려운 부탁을 받았을 때

싫고 어려운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부탁하는 이들은 한 번 들어주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 이때는 쭈뼛 거리거나 우물쭈물하면서 여지를 보이면 절대로 안 된다. 이들의 특징은 조그마한 여지나 가능성이 보이면 집요하고 끈질기게 강요하고 부탁하므로 당당하고 정확하게 "NO"라고 말하는 것이 서로를 위한 상책이다. 거절할 때는 길게 끄는 것이 서로에게 더 구차하다. 짧고 확실하게 자신의 의지 표시를 하는 것이 깔끔하다.

만약 새로 뽑은 멋진 스포츠카를 빌려달라는 친구가 있다면 차마 "싫어"라고 말하지 못해서 "어떡하지? 어제 동생이 와서 먼저 빌려갔다"라는 등의 변명을 늘어놓지 말아라. 이것은 '그렇다면 내일이고 모레는 될 수도 있겠네?'라는 여지를 주는 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상황이 가능하다면 넌 빌려 줄 수도 있겠구나?'라는 가능성을 주는 말들이다. 구차한 변명을 하지 말고 "난 차는 빌려주지도 않고, 빌려 타지도 않아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다"라고 직설적으로 말하자.

4. 공격적인 사람을 만나게 될 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질문에 대한 두려움이나 공포를 가지고 있다. 무의식적으로 질문은 무조건 다 답변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질문에 답변할 의무는 없다. 우리는 걸어 다니는 네이버 백과사전도 아니고 질문이라고 해서 무조건 답이 필요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공격적인 사람들은 주로 이 질문을 많이 사용한다. 어렵고 난해한 질문을 퍼 붇거나 "왜 그렇게 했냐"는 식의 추궁을 해가면서 공격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모르는 질문이 나오면 당황해하거나 고민스러워하고 공격적인 태도에 주눅이 들거나 얼이 빠지게 돼 있다.

그들은 바로 그 점을 이용해 상대가 곤란해 하고 어려워하는 태도에서 자신이 우월하다는 쾌감을 느끼고, 상대의 나약한 모습 속에서 자신의 존재자체를 확인한다.

공격적인 사람에게는 오히려 칭찬과 부드러움으로 승부수를 건네 보자. '공격'은 나약함의 방어기제이다. 그들은 오히려 칭찬과 더 많은 관심을 바라고 있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이다. 가만히 주위를 둘러보자. 공격적인 이들의 대부분은 내심 알고 보면 약한 사람들이 많다. 나약함과 비겁함을 감추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먼저 공격하는 것이다. 그들을 공격하면 할수록 더욱 사나워지고 반목만 일으킬 뿐이다. 밝은 칭찬과 따뜻한 관심과 부드러움은 그들의 반감을 줄이면서도 오히려 공격적인 사람이 순한 양처럼 변하는 모습에서 또 다른 정복욕이 발동해 더더욱 묘한 쾌감을 느낄지도 모른다.

5. 싫어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될 때

내가 잘 아는 지인 중에 한 사람으로 아주 똑똑하고 이지적이며 능력도 있는 젠틀한 청년이 있었다. 그런데 그의 이 젠틀한 이미지를 모두 확 깨게 하는 행위가 있었으니 그건 다름 아닌 '차에서 창밖으로 침뱉기'이다. 정말 처음에는 깜짝 놀랐다. '젠틀 청년'이 어찌 한순간에 '젠장 청년'으로 변신한단 말인가.

상대가 나와 똑같은 생각과 행동 패턴 매너 등을 지니고 살 수는 없다. 기본적으로 나와 같지 않음은 인지하고 시작하라. 그리고 사소한 것은 눈감아주고 정말 눈에 거슬리거나 나와 맞지 않거나 내가 참기 힘든 사항 등이 있으면 내가 그 행동이 싫은 이유를 밝히고 어떻게 바꾸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구체적인 요구를 해야만 한다.

"난 니가 창밖으로 침을 뱉는 것을 보면 아주 불결해보이고 내가 다 무안해. 다음부터는 정 침을 뱉고 싶다면 휴지에 처리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보자. (02)576-7575

현대불교 현불샵

생활도자기 특별기획전

전화주문 ☎ 02)2004-8215~6



도자기의 본고장 경기도 이천에서 도자기의 생활화를 목표로 순수자연원료로 제작된 도자명품 생활자기입니다. 우리 도자기의 품질로 완성된 생활 명품입니다. 도자기 접시와 찻잔(머그잔, 커피잔), 다완, 퇴수기, 화병, 화로 등 다양하고 품격 높은 생활자기는 불자님들의 생활을 더욱 향기롭게 할 것입니다.

· 퇴수기는 흔히 물버림 사발이라고도 하며, 버리개라고도 합니다. 다관과 잔을 데운 물을 버리거나 다관을 엎어 찌꺼기를 버리는 그릇입니다. 입구가 넓으면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3단도라지꽃합접시
大20,000원/中10,000원/小5,000원


둥근3꽃접시3종세트
판매가 35,000원


4발접시
판매가 45,000원


검정사각흰꽃접시
판매가 45,000원


청자수반퇴수기
판매가 50,000원


분청퇴수기
판매가 80,000원


이도덤벙퇴수기
판매가 40,000원


분청동그리화병
大 40,000원 / 小 20,000원


분청하얀꽃화병
大 60,000원 / 小 40,000원


벚찌화병
大 100,000원 / 小 80,000원


보리꽃커피잔
판매가 18,000원


카키색흰물고기찻잔
판매가 8,000원


카키색도라지꽃찻잔
판매가 16,000원


백자도라지꽃찻잔
판매가 16,000원


하트모양커피잔
판매가 15,000원


연꽃백자커피잔
판매가 18,000원

현대불교@장터
www.HyunbulShop.com
이외 다양한 상품은 현불샵(www.hyunbulshop.com)에서 만나보세요.

불자생활정보 | 전면광고 | 21

▷ 문의 : TEL 02)2004-8214,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 가격 : 1Box (4.6×4.6) 4만원, 1Box (9.2×4.6) 8만원 ▷ 마감 : 매주 월~수요일(입금을 하셔야 광고 게재가 가능합니다)
▷ 계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주)현대불교신문사

법성사 불사기금 마련을 위해 사찰에서 직접 담아 보급합니다
황토 전통메주, 죽염장, 죽염된장, 매실 고추장, 국내산 대두콩 100%
새마을금고 : 2918-09-002988-0
예금주 : 조정환
전남 장흥군 관산읍 용전 2구 80-1 법성사
전화061)867-2331
010-8643-6680

대한불교 대승선교 조계종
※위종단은 비구니(여승)종단 입니다
- 비구니 종단 등록
- 사찰 등록
- 비구니스님이 되고저 원하시는분

연락처 010-2606-5121

불자결혼 상담소
국내 : 초혼, 재혼, 친구, 연인
국제 : 필리핀, 베트남, 한족
성실男 미모女 상담환영.
30대女 무료, 70세까지 (남녀)
아현역 2번출구 (원갑사)
02)365-1345
010-9114-4345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태평소
사찰행사전문
영산재 천도재 49재 점안식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부산 · 울산)

역학개인지도
한문과 용신격국 몰라도 물상으로 철학 배우면 바로 상담할 수 있음
짧은 시일내에 실제감정위주로 신수와 영가탈 배워 천도재 지낼 수 있도록 강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051)333-3258
011-591-5277

김현산 작명 역리원
작명 · 사주 · 운명개척 상담
전화우편 상담 환영 (전국 불자님)
명리학 개인지도
정통사주학 완성(수기본) 25,000원
서울 종로구 낙원동 176 3층
종로3가역 1번출구 직진 낙원상가 방면
02)741-8449 김현산
011-9113-8545 역리원

보살선방
- 1인1실 : 방1, 주방, 거실, 욕실 / 방1, 주방, 욕실
- 부부실 : 방2, 주방, 거실, 욕실

절에서 수양하며 기도하고 불교공부하면서 노년을 보내실분
(일부시주금 내시고 종신재)
불광사 · 불광대학
053)656-6766

대한불교도서관건립 불사
불법승 삼보님께 귀의하옵고, 불자님들의 가내에 부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기원하면서,佛書의 典當 대한불교도서관 건립에 뜻있는 불자님들의 선근인연을 기다립니다
헌책도 대 환영합니다
대한불교도서관추진위원회
010-2002-6332

각종 불공 범음·범패전문
점안식, 49재, 천도재, 구병시식
예수재, 수륙재, 불교의식, 사물, 바라나비춤, 명리, 주역, 활법
실전 위주 교육. 학인행자모집
031)953-3328
011-9923-3329
대광명사(동양불교대학)

역학 · 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일반과정,속성과정(출장지도가)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우주大광명 천기(氣)도법
우주 氣편지 받고 부처님 신통력 업장소멸
- 건강, 인생, 우환, 사업이 잘 안되는 분.
- 영적장애, 신내림 등 고통받는 불자, 수행자.
- 빙의, 신병, 정신질환, 치매, 우울증 등
- 병원치료, 최면술, 천도재를 해도 안되는 분.

031)321-9555
011-586-6091 일광사

출가 수행 예비자 모집
인천의 사표가 될 조계종 승려 예비자를 모집합니다.
자격 : 40세 이하 남. 녀
지원 : 조계종 전 교육 지원
상담 후 총림에서 행자 생활 수행.
011-737-2658

각종 염불 해 드립니다
▷무유스님
011-9596-4338

제반 조건으로 법문하실 큰스님 모시기 어려운 적은 사찰에 작은 스님이 정성껏 법문 보시하겠습니다
010-2871-6668

경남지역, 농가 주택, 토굴, 임야 등 보시나 저렴하게 수행도량 불사에 치료 받으시고 도움 주실 분.
우주(氣) 신통력을 공부하는 스님입니다. 치료해도 소용없는 병고로 고생하거나 집안에 우환과 풍파가 많은 분, 확실히 해결해 드립니다.
불사인연 공덕으로 소원성취 하세요.
011-586-6091

불상, 탱화 아주 저렴하게 판매
- 사찰에서 직접 조성합니다. (최신 좌우입불 조성 중)
- 어렵게 불사하시는 스님들께만 판매합니다.
- 소량만 주문 제작해 드리므로 불교용품점에는 판매가 불가능하오니 양해 바랍니다.
- 불단 제작도 해 드립니다.

043)857-1259

부처님 법력으로 묘 이장, 탈봉, 회향 천도해 드립니다
- 윤5월 묘, 탈봉, 이장 전문
- 묘 탈봉 및 천도 상담 환영
- 비구 스님 직접 전국 회향 천도
- 50세 이상 출가하실 분 상담환영
- 숙성된 봉삼주 필요하신 분 상담

010-2553-8827

쉼터 약수암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약수암 비법
약사여래 가피로 만병을 환부 손으로 직접 뽑아 버리는 신비의 약손
치유, 빙의, 정신병, 신경통, 위장병, 요통, 중풍, 갑상선, 우울증 등 잡신의 병.
- 사업성취 업장소멸 여러가지 상담을 기다립니다.

*노숙자 식사제공, 스님 건강 보살펴 드림
010-7232-0384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대구 팔공산 부근
011-525-719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서울
02)2234-2198
011-9721-2198

전국 어디든 절이나, 절 지을 터 아주 싸게 보시하실 분 연락주세요
010-7188-7723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경기 포천
010-4015-9494

수행하실 비구 스님 모십니다
▷서울 북한산 암자
011-306-3504

비워 둔 작은 암자 또는 기도처를 관리해 드리며 공부 할 곳을 찾습니다
010-3282-1323

정법도량에서 수행 정진하고 싶습니다
011-9429-5786

여생을 함께 할 반려자를 찾습니다
실버생활을 서로 의지하며, 이 세상 다할 때까지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같이 살 수 있는 불자 거사님을 찾습니다.
본인은 돈이 전혀 없으나 함께 의지하며 남은 평생 함께할 거사님 인연 기다립니다
010-4729-8987

28숙기도 (대방등 대집경)
- 기도법을 배우려는 스님, 법당을 모신 거사나 보살
- 위치 : 백선사 절 (지하철 1호선 부천역 하차)

☎ 032)664-0048 / 011-741-0867

대체 의학 비법 전수
1. 중풍환자 혀가 뻣뻣할 때
2. 발바닥이 아파서 걸음걸이 힘들 때
3. 척추에 이상없이 허리가 몇십년 아플 때
4. 오십견으로 팔 올리기 힘들 때

◆이상 4가지를 단 한번에 낫게하는 비법 전수 (이론 강의 없이 실기만 가르침)
◆우울증, 화병, 변비, 관절염, 복수, 산후풍, 담결림, 기관지염, 신염, 대상포진 등 치료 비법전수 (이상 전수를 3시간에 완료)
◆대상 : 스님, 한의사, 기치료사, 대체의학 종사자
◆중국 초능력 기공사 직강 (출장 방문 가능) ◆출장 치료 가능
010-7703-3825

선림원 여백체험교실
교와 육, 곧 배움과 누림의 조화로운 중용이 이뤄질 때 여백체험, 인간회귀를 통해 자아 완성의 경지에 다다르는 직지경로 안내한다.
daum 검색창에다 대한미래교육원→여백체험교실→ 수련 신청서를 이용해 주시기 바람 (제1기는 마감완료).
055)882-5547. 748-23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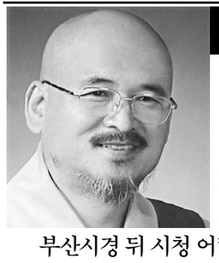
스님을 찾습니다
법명 : 德玄(덕현)
속명 : 崔根喆(최근철)
위 스님을 찾습니다. 본인이나 아시는 분들은 꼭 연락 부탁드립니다.
한달 전 어머님 별세하시고, 아버님도 현재 임종 직전입니다.
연락처 : 032) 577-5108
법명사 (부루나포교원)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유명표구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종부 합장
문의 ☎ 02)374-9886
▷전국 택배가능◁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6호선 새절역 1번출구)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행자(예비스님) 모집
21세기형 행자교육!! 현대와 전통이 어우러진 수행과 수계 이후 모든 지원!!
- 성별 : 남자, 학력 : 고졸이상
- 1인 1실 및 개성존중의 민주적 교육
- 수행 · 공부의 모든 지원, 최적의 교육 분위기, 자율적 시스템
- 문의 : 010-2488-8228

대구 도심 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 최첨단 시설, 편리한 교통, 한발 앞선 장례문화시설!!
- 언제나 염불, 기도소리 들리는 법당 안에 모셔지므로 천도에 아주 좋습니다.
- 설 · 추석 · 기일 · 영가 천도일에 천도 축원 해드립니다.
- 문의 : 010-6296-0108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아기이름 작명
작명. 개명. 상호. 회사명. 아호. 단체명. 모든 분야 이름
문의 051)867-8438
부산경상대학 졸업. 김해가야대학교 졸업
현,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중. 국가공인한자1급.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명리학 개인지도 속성*
부산시경 뒤 시청 어린이집 뒤편 삼화탕 옆 송광정사

사주운세 10초 내 맞추면 통장입금하시고 상담하세요
명리학 성공하실분 노크하세요.(사주첩경) 이석영 통달. 수월정사
011-498-5067 / 02)826-5067
031)774-5067 (주말)
〔통화관계로 방문 사절〕 농협 064-02-379867 김진동

역학공부
집에서 간편하게 저렴한 비용으로 확실히 속성으로 공부하세요
인터넷 동영상 강의 www.kbs.cc
사주 관상 풍수 수상 육효 자미두수 주역 등
사주 전과정 45만원 부터. 역학상담심리사 자격증
한국역학협회 / 전화 1688-1137

불자가 정성스럽게 만든 수 제품입니다
요술연꽃 촛대 (불자 및 가정용)



요술연꽃세트(홍련→백련)



장수거북연꽃세트

특징(티라이트전용)
1. 경제성 : 1회용이 아닌 반영구성
2. 친환경 : 천연왁스만을 태움
3. 다양성 : 카멜레온 기능(요술)
4. 메시지 : 종교적 의미(홍련 → 백련)

가격
- 요술연꽃세트 15,000원 (연꽃, 받침대, 티라이트 1개 포함) - 연꽃크기 : 직경 8㎝
- 장수거북연꽃세트 23,000원

egaart www.egaart.co.kr ☎ 031)882-0512 Fax. 031)881-6201

탈 종 공 고

- 법 명 : 일리오계화
- 속 명 : 오계화
- 승려번호 : 1205-281
- 주 소 :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광진리 2반 1번지

상기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5일

대한불교조계종삼화불교 총무원장 법하

명당 탐지기



TM
심룡척!!
심룡척은 명당에서 정확히 옆으로 회전합니다.
이 기구는 1990년부터 월간역학을 발행해오는 문학박사 전용원(나경 사용법 저자)이 1970년대 개발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판매되는 기구.
이미 국내외 유명 지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100% 정확하며 사찰터 집터 건물터 묘지터를 잡거나 감정할 때 꼭 필요한 기구로 설명서대로 하시면 누구나 즉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특허청 상표등록 제0464294호)
* 심룡척은 88만원이지만 지금 구입하시는 분께는 66만원으로 할인+ 케이스(2만원)+수맥 탐지봉(1만5천원)+월간역학 1년 정기구독(10만5천6백원) 등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
* 구입방법: 우리은행 064-301374-13-001 한국역학협회로 66만원 입금하신 후 전화 주시면 즉시 안전하게 택배 또는 등기로 보내드립니다.
패철 보는법(책)도 있습니다(정가 2만5천원) 2만2천원으로 할인+월간역학(8천8백원) 증정 한국역학협회
서울 중구 광희동 2가 303-15 전화 1688-1137
저렴 신속 사주 관상 풍수 동영상 강의 www.kbs.cc

스님! 빙의로 고통 받는 중생을 구해 주세요
전생 · 빙의 · 퇴마 · 최면치료
최면 시술사 과정 모집
- 교육 기간 _ 6주
- 모집 인원 _ 선착순 10명
- 교육 비용 _ 100만원
- 시간없으신 스님들을 위하여 2박 3일 실습위주로 교육 (hard training) 신분비밀보장, 숙식제공

★ 개인 특별지도 ★

스님이 직접 강의하고 스님들만 교육받는 유일한 곳
6주 24시간, 짧은 수련기간, 최면 시술사 완성이라는 문구에 "정말될까?"라고 반신반의 하면서 공부하셨던 100여분의 스님들이 전국 각처에서 활발하게 최면 시술을 하시며 중생의 고통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보람과 자부심도 느끼신다 하셨습니다. "스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 무초 정락 합장

특별상담환영
http://www.yuma119.com
(사)유마 최면 연구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26-20번지 ☎032)349-0666
>수련원 :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한운리 171번지 백련사
010-5100-6612

佛 불영TV www.불영.kr
바르고 빠른 뉴스 불영TV!
뉴스,법문,다큐 사부대중과 함께하는 불영TV!
불영TV는 사찰홍보,행사,불교 관련기업 홍보영상 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인터넷방송으로서 타 매체보다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한 걸음 더 다가서고자 합니다.
※ 불영TV에서 판매 중인 스님 법문 동영상 CD
◇ 원통스님 관세음보살보문품 동영상1셋트 CD30장
◇ 원순스님 원각경 동영상 1셋트 20장CD
◇ 각성스님 능가경



주요사업 안내
1.홍보영상 제작
불영TV에서의 동영상 광고는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생생한 메세지 전달로 이미지 형성 및 설득이 빠릅니다.
2.사업분야
사찰홍보,행사,개인다큐,법문 등의 동영상을 제작해 드립니다.
3.프로그램 판매
불영TV 동영상 프로그램 구입을 원하시면 언제든 연락바랍니다.
□ 문의 | 도암 합장
02)2236-7208 / 017-207-7208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기본 규격 – 50.000원
  규격 가로 7cm – 70.000원
  규격 가로 10cm – 100.000원
- 계좌번호 : (주)현대불교신문사
  국민은행 222-25-0005-381
  농 협 053-01-269088
- 문의전화 : 02)732-1522
- 원고접수 : jabi82@naver.com
  FAX 02)737-0696

※ 접수마감 : 매주 수요일 오후. 다음주 금요일 게재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 법당 : 20평
- 요사 : 20평
- 부지 : 2,000평
- 가액 : 4억5천(조정가)

- 위치 : 대구
- 법당 : 20외30평
- 요사 : 130평
- 부지 : 700평
- 가액 : 20억

- 위치 : 동해안 지역
- 법당 : 20평(목조)
- 요사 : 60평
- 부지 : 270평
- 가액 : 4억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 찰 안 내

- 위치 : 충청(대가람)
- 부지 : 5000평
- 법당 : 전각다수
- 요사 : 60평
- 급양도가 : 13억5천

- 위치 : 서울
- 대지 : 40평
- 인법당 : 30
- 요사 : 조립30
- 가액 : 5억

- 위치 : 경기,포교당
- 시내요지
- 법당 : 50평
- 요사 : 50평
- 가액 :4000/15

※30년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 전국 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구하는 사찰 있습니다
※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인연소개 합니다

광진불사 010-2221-2807/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찰 및 토굴안내

바다 전망 좋은 절

- 총대지 : 약 1300평(국유지 2000평)
- 법당 (목조) 35평, 공양간 50평
- 요사채 2동, 대종각 및 산신각
- 바다전망 최고 사찰 뒤편 산 (기암괴석)
- 사찰주변 대단지 아파트 및 주택가
- 가액 : 14억

- 위치: 지리산 아름다운 절
- 대지 총평수: 420평
- 법당(와가) 20평, 요사채3동
- 도량주변 산세, 풍광, 계곡물 최고
- 주차장 및 텃밭 마당넓은 절
- 가액 : 1억8천(은행 5천 포함)

사찰전문 부산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 051)863-6622
※부산 시내 및 암자, 토굴사찰부지 소액 및 고액 다량확보

사 찰 안 내

- 위치 : 양산 신도시 인접 토굴 최고 적지
- 법당 : 20평(30평)
- 요사 황토방2동
- 부지 : 84평
- 가액 : 2억5천(조절안됨)
- 주차가능

- 위치 : 부산 바다가 보이는곳
- 법당 25평 목조건물
- 요사 2동
- 부지 117평
- 가액 : 2억9천(조절안됨)
- 주차가능

- 위치:마산진동
- 법당:2층건물
- 요사:50평
- 부지:120평
- 가액:2억6천(조절안됨)
- 주차가능

영주불사 010-9798-1091
부산시내 암자 토굴 사찰부지 · 소액 및 고액 다량 확보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천안시 성정동 쌍용대로변 4층 건물 중 3층 전체
- 평수 : 70평(법당 30평, 방 2)
- 즉시 법회 가능
- 보증금 : 1천만원, 월 88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6-850-1208

포교원안내

- 위치 : 서울 외곽
- 약 40평, 방2개 법당, 화장실, 샤워실 등 시설완비 즉시법회가능
- 가액: 보증금 700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주인과 직접 협의

010-3190-7295

포교원(급)안내

- 위치: 대구시 북구 구암동
- 법당(건물 포함) 60평
- 약사도량, 즉시법회 가능
  약쑥, 뜸방, 벌침교육실
  (스님이나 불보살님께 인수 후 당분간 스님이 직접 관리 지도해줌)
- 가액: 보증금500만원 월 60만원

010-6592-0808

도심사찰(급)안내

- 위치 :충북 청주시 우암산중턱
- 대지60평, 건평 80평
- 특징: 현재 신행과 포교 활성화 된 도량, 주변 주차장, 소방도로, 공원 등 여건 좋음
- 가액: 2억 5천만원 (대출금 5천만원 포함)

010-2259-6314

한 국 불 사

- 광명 23억
- 경기도 4억 8천만원 외 매물 다수

※전국 사찰 부지등 양도 양수 하실분 전화 상담하여 드립니다
※재개발 지역 보상문제 상담환영

02)6674-3535
010-3154-3535

사찰(급)안내

- 위치 : 청주 상당구 우암동
- 1층 단동2동, 요사채35평, 방3개 큰방, 사무실,선방,주방,큰거실, 화장실및욕실
- 법당지은지5년법당 22평 선방 1개 화장실 및 욕실, 마당넓음 법당삼존불, 장태화고불, 후불탱화, 신중탱화1자관세음보살원불 100불 ,심야전기최신, 대지62평,
- 가액: 2억 5천만원

010-5883-2255

포교원(급)안내

- 위치: 창원시 소답동 경남은행 옆
- 4층건물 중 3층
- 실평수 90평
- 법당외, 큰방3개, 종무소 1개 시설 깨끗하고 완벽함
- 삼존불, 후불탱화, 관음호신불 216불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권리금은 보신 후 절충

055)299-5690
010-7159-5690

사 찰 안 내

- 위치: 대구시 달성군 가창댐부근
- 법당 2층 60평(삼존불 봉안) 요사채 1층 80평
- 방7, 화장실 2, 별채(공양간) 25평, 외관 단층필
- 시내버스 정류장 1분거리, 교통편리
- 총부지 400여평, 주차완비
- 가액: 12억(융자 1억 5천만원) 절충가능

010-4541-6711
(주인직)

포교원안내

- 위치: 서울 성북구 석관동
- 평수: 3층 건물 2층 42평
- 구조: 법당 25평, 방2, 주방, 간이 사무실, 화장실
- 시설: 불단(원목) ,영단(영구위패 500개) 1년연등(500개)등 최고급 시설
- 가액: 5,500만원(보증금 2천 시설비 3,500만원 월 85만원)

010-7609-0920

포교원안내

- 위치 : 팔공산 백안 삼거리
- 건물: 1층
- 가액: 전세 2,500만원

010-3543-9490

사찰부지안내

- 임야 5천평
- 위치: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면
- 경관이 수려하고 명당 조건을 갖추었음,길, 물, 전기, 전화 모두 가능
- 2010년 개통되는 울산 KTX역사에서 25~30분거리에 위치함
- 가액: 평당 7만원

010-4174-8904

포교원안내

- 위치: 울산 대공원에서 200m
- 대로변 2층 25평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25만원
-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52)269-0232

토 굴 안 내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 평수: 236평
- 임법당: 13평, 방2개, 주차장 넓음
- 스님 혼자 기도하시면서, 법회하실분 언제든지 걸망만 풀면 법회할 수 있음
- 가액: 7000만원

010-6357-5860

포교원안내

- 위치 :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교대입구 1분거리
- 평수: 30평, 삼존불, 각단탱화 모셔있음, 종무소 법당 에어컨완비
- 즉시법회가능
- 가액: 보증금500만원 월40만원
- 시설비: 1천만원

010-8653-3216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의령군 궁유면 운계리(문수사)
- 부지 총 1,700평중 540평 종교부지
- 건물, 임법당, 요사채,산신각포함 100평
- 현재 총공사비 약 4억소요되었음
- 스님의 건강악화로 2억에 급히 양도함
- 특징: 조그만 암자나 교통편리한 다른 건물교환 가능합니다.

055)572-0405
011-9850-8208

부 산 대 사 찰

- 사찰 내 20년 된 벚꽃나무 50종 있음
- 목조법당 25평 단청필, 목조요사 30평 단청필, 벽돌집 요사 2동 50평
- 명부전, 산신각, 용왕단, 종각, 약사여래상 15층
- 지하수 산수도 사용, 창고 2동, 화장실 2동, 심야 보일러 사용, 사찰 내 주차 20대 이상
- 대지 : 300평
- 국유지 : 480평(국유지 사용료 내고 있음)
- 가액 : 11억 5천만원

011-563-1545

작 은 토 굴

- 위치 :강원도 홍천군
- 평수: 대지 110평 (건평 30평)
- 임법당. 조용히 공부하시거나 기도 하실 스님 적합한곳
- 가액: 1억원

033)434-2916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경기도 고양시 토당동 능곡 전철역 3분거리
- 3층건물 중 2층, 50평
- 법당, 주방, 거실, 방2, 욕실2
- 삼존불, 후불탱화, 지장탱화, 신중탱화, 냉난방완비
- 시설총액 1억원 이상 소요
- 가액: 보증금1천만원 월50만원 시설비: 4천만원

010-9889-9442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촌IC에서 10분이내
- 부지: 9630평 (1600여평+임야 8000평)
- 한옥신축대웅전, 신축황토방 요사채 ,조립식건물+산신각
- 추가건축허가유(고층질수있음)
- 바로앞 홍천강 경관과 기도도량
- 가액: 15억(절충가능)

011-9888-1563

사찰(급)안내

- 위치 : 대구 남구 대명동
- 대지 106평
- 요사채 2층
- 법당 40평
- 가액: 3억 6천만원

017-531-2888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서울 관악구 봉천동 서울대 후문 부근
- 5층 건물에 3층 약 40평
- 즉시 법회 가능
- 보증금 1,000만원 월 85만원
- 시설비 2,500만원
- 상담하시는 스님 최적지

02)887-2138
010-9940-9779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 3층건물중 3층 전체사용
- 법당 70평, 요사채 30평,
- 공양간 10평, 휴식공간 30평 사무실1, 방6개. 시설 최상급
- 보증금 3천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상담 후 절충가능

010-4199-0047

사찰(급)안내

- 위치: 경북 김천시 김천역 10분거리
- 법당, 요사채 각 2층
- 대지 170평, 법당 45평 요사채 60평
- 김천 혁신도시, 고속철 역사 도로 개입
- 가액: 7,000만원 인수 (대출 승계 조건)

010-6298-2588

암자터 · 토굴안내

- 위치 : 산 좋고 물 맑은 공주시 정안면 무성산 상류계곡
- 옹달샘 있고, 365일 물이 흐르고 있음
- 평수: 약 8000평
- 건물: 40평, 25평 2동
- 가액: 9억
- 전세: 3000만원~5000만원사이 꼭 하실 분만 연락바람

011-343-6711

포교원 안내

- 위치 :경남 양산
- 20평
- 법당, 방, 주방, 화장실, 샤워장
- 스님 즉시 법회 가능
- 가액: 전세 300만원,월세 20만원 시설비 300만원

017-571-5599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안동시
- 법당, 요사채, 산신각,
- 창고 각 1채
- 창건된지 100년된 사찰
- 면소재지이며, 주차 편리함
- 가액: 6,800만원

010-8831-4800

토굴터안내

- 위치 : 전라남도 장수군 장계면 오동리 988번지
- 평수: 580평
- 가액: 3,200만원
- 토굴 터 및 전원주택용 토지 적합
- 가액: 3,200만원

054)382-1491

사 찰 안 내

- 위치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 부지: 총 2100평 정도 (종교부지 165평)
- 법당 15평(단청), 산신각5평 (단청), 요사채 30평
- 저수지 뷸 보이고, 옆 계곡물 흐름
- 가액: 2억 3천만원 (조절가능)

010-5430-3963

포교원 안내

- 위치: 대구 달성군 현풍면 현풍시장에서 5분거리 (교통요지 편리)
- 대지 171평
- 건물(법당,요사채,산신각)
- 가액: 1억 2천만원 (답사후 조정가능)

053)616-0905
011-536-6333

사찰(급)안내

- 위치 :경북 봉화 청정지역
- 평수 총 340평
- 법당1, 요사채(현대식주방 1, 방2, 실내화장실1, 샤워실) 산신각, 심야전기온수보일러 텃밭
- 가액: 전세 3,000만원 시설비 없음 전세기간 5년

010-7157-0679

사찰(급)안내

- 위치 : 대구 수성구 지산동
- 5층건물 중 2층(60평)
- 방2, 주방, 욕실
- 가액: 보증금 2,000만원 월 60만원 시설일체 3,000만원

016-537-5574

토굴.귀농지

- 위치: 경북 문경시 마성면
- 약 750평
- 사계절 흐르는 계곡접한 두메산골
- 가액 : 7,800만원

011-669-9575

사찰(급)안내

- 위치: 경북 영천시 북안면
- 사용부지 6,500평 (실등기 5,000평)
- 법당 20평, 요사2동 2동 중 황토방 1개, 산신각, 실내외 화장실3개
- 가액 : 5억 5천만원

011-816-9104
011-815-9104

사찰(포교원)안내

- 위치 : 밀양시 무안면 땀 흘리는 표충비각에서 5분거리, 국도변 위치(교통편리 시내외 정류소 옆)
- 대지: 230평사용(등기 192평), 주차장 넓음
- 요사채: 적벽돌 슬라브 60평 (2층증축가능), 최고급 원목 실내시설, 태양열 설치
- 법당 18평 1동 (삼존불 및 후불 35평형 탱화)
- 가액: 2억 3천 8백만원 (은행융자 8000만원 포함)

010-8678-9575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남 양산시 북부동
- 법당(삼존불 외 호신불), 방2, 공양간 – 30평
- 보증금 500만원, 월 35만원 시설비 1200만원

055)364-3525
010-4531-3525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 수영구 광안 해수욕장 5분거리
- 3층 건물 중 2층 법당 60평, 방2, 화장실2, 주방
- 삼존불,산신,후불,신중,칠성,소불 200불
- 전세 1억 3천만원(사글세 가능) 시설비 없음, 주인 직접
- 스님 사정상 급양도

010-3019-2236

암 자 안 내

- 위치 : 원주 미륵산 약 일백년 된 좌청룡 우백호 산세 좋은 명당터
- 신축 요사 35평인 법당,심야 기름 겸용, 삼성가 목조 5평 허공 산신각, 자연우물 용궁, 상 목조, 중 허공, 하 거북 3탕(지하 암반수 110m있음), 부속건물 5평 방1, 차고1
- 자연석 조경 및 돌탑 잘 되어있음, 큰 도로 시내버스 정류소 300m 산위에 단독있음, 도로포장 잘 되어있음,주차 30대 이상
- 교통 : 원주시청–충주시청 4차선 전용도로 개통 시 약 10분거리 위치 중간에 있음(현재 부분개통사용)
- 땅 : 1230평, 시세 : 평당 40만원, 현지답사 후 절충가
- 주지스님 건강 문제로 급매, 꼭 필요하신분만 연락주세요

011-371-5567

전원주택 · 토굴안내

- 위치 : 강원도 인제군 원통터미널에서 15분거리
- 총 1400평, 대지 300평, 건평 25평, 텃밭 1개
- 산중턱 황토집, 심야보일러
- 집근처 강이 흐르고 경치가 아주 좋고 , 조경 잘 되어 있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음
- 가액: 3억 3천만원

033)462-9734
016-337-9736

신도시부근사찰

- 경기북부 시내중심(도보10분거리) 풍치 수려한 절
- 부지 680평(실사용 천평이상)
- 대웅전 20평, 요사채2동 (100평 30평) 창고2동. 시설좋음
- 전철역(2블럭) 개통예정
- 잠실,강북 30분거리 포교와 수행의 최적지
- 가액: 인근 그린벨트 주택가 평당 500만원 선이나 상담후 절충가

011-393-0013
011-710-7294

자연의원 및 자연요양원 운영하실분 모집

- 위치: 경주 산내(정말 자연 경관이 수려함. 지하 천연수 일색)
- 시설: 건평, 4502평의 완벽한 시설을 갖추고 있음

010-7714-3757

포교원안내

- 부산시 북구 만덕 2동 (도심있으며, 대평A근접)
- 법당: 2층 60평(전체 100평)
- 방: 3개(1개 大는 법당. 방 겸용) 사무실 1개
- 교통; 전철역, 버스정류장 3분거리
- 전용주차장 有
- 가액: 1천만원(월 70만원)시설비: 답사후 절충 입주후 즉시 법회가능,스님 사정으로 급안내

051)542-9983
010-2652-9983

포 교 원 안 내

- 위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4층 건물의 2층
- 약 45평, 삼존불, 각단, 탱화, 산신, 영가단
- 즉시법회가능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 40 만원
- 시설비 답사후 절충

010-5366-4905

대형포교원안내

- 위치: 경기도 지역 고속터미널 부근 (부천)
- 100만 신도시아파트 상가밀집지역
- 평수: 220평 14층/5층
- 법당전체와 모든 방사 고급나무문양 인테리어됨
- 2년후 지하철개통,주차장 100대 가능
- 가액: 융자포함 양도 가능
- 전세 3억 5천만원,
- 220평 중 27평=월세 880,000원 받고 있음

011-707-5552

여성, 부처를 말하다 ③

발심서원 제대로 하면 삶 자체가 수행

연일 지속되는 장마와 함께 푹푹 찌는 더위가 이어지면 자연스레 짜증이 밀려오기 마련이다. 꽃을 피우기 위해 시작된 더위가 중생에게는 원망스러운 존재가 된다. 인드라망생명공동체는 5월 28일부터 11월 26일까지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도법 스님과 함께 하는 '여성, 승만경을 말하다' 강연을 진행 중이다. 7월 23일 세 번째 강연이 열린 날. 도법 스님은 "연기법 사상으로 너와 내가 함께 완성 되어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짜증만 나는 무더운 여름, 피어난 꽃들을 보며 내가 너에게 어떻게 자비를 베풀며 함께해야 할지 알아보자.



"대비원력을 발해 남을 위해 살라"고 당부하는 도법 스님.

 # 삶은 호흡지간에 있다

우리가 <승만경>에 대해 공부하는 것은 불교가 여성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해 알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동안 남존여비(男尊女卑) 사상이 지배한 남성우월주의 사회에서 살았습니다. 이런 남녀 불평등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스스로가 비인간적으로 살게끔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여성이 주인공인 <승만경>을 선택한 이유는 '여성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여성의 진면목이 무엇인가'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공부하기 위해서입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우리가 평소 숨 쉬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듯, 인생은 그냥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단순함의 반복 입니다. 아무리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숨을 들이쉬고 내쉬지 않으면 살지 못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실상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느냐 없느냐가 결국 부처와 중생의 차이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스스로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깨달음을 얻기 위해 티베트, 인도 등으로 순례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현재에 처한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밖을 향해 추구하는 모든 것을 전도몽상(顚倒夢想)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존재 자체가 대단한 것이니 쓸데없는 것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서원은 삶의 문제의식

승만은 부처님 앞에서 세 가지 큰 서원(三大願)을 내어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1. 이 진실한 서원으로 헤아릴 수 없고, 끝이 없는(無邊) 중생들을 편안하게 하려 하오니 이 선근으로 일체의 생에 정법의 지혜가 얻어지기를 바랍니다.

2. 제가 정법의 지혜를 얻으면 싫어함이 없는 마음으로 중생을 위해 연설하겠습니다.

3. 제가 정법을 섭수하고서는 몸과 목숨과 재산 등을 버리고서라도 정법을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고 수행하는 것은 인생을 참되게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승불교에서는 이런 삶의 문제의식을 서원이라고 말합니다. 서원을 제대로 세우면 수행은 저절로 되게 돼 있습니다. 초기 불교의 경우를 보면 내가 수행을 해서 고통으로부터 해탈한 후 중생을 구제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대승불교의 경우는 상호의존의 법칙을 말합니다. 상호의존의 법칙이란 결국 연기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호의존적 법칙인 연기법은 너와 내가 함께 완성돼 진다고 말합니다. 존재법칙인 연기법의 사상에 맞는 자비행을 실천하면 너와 내가 완성돼 함께 간다는 말이죠. 즉, 발심서원을 제대로 하면 삶 자체가 수행인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연기법의 정신이 무엇인지 짚고 넘어갑시다. 연기법은 모든 것을 자비로 실천한다는 뜻입니다. <금강경>에서는 이를 무주상(無住相)의 마음과 태도로서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왼손과 오른손이 있습니다. 이 둘은 분리돼 있지만 결국엔 한 몸입니다. 만약에 오른손이 불구이면 왼손도 불완전한 상태가 됩니다. 이것은 결국 이 둘이 완전히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바로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연기법이라는 것입니다.

서원은 인간적인 것… 보살심 지속하면 돼
내가 만난 그들을 위해 사는 것이 정법의 삶

우리는 '장부답다' '보살답다' 라는 말을 씁니다. <승만경>에서 보면 발심서원을 분명하게 성립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두고 장부라고 말합니다. 법의 정신에 근거한 발심서원을 해서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 장부라고 하는 것이죠. 남성인지, 여성인지, 출가자인지, 재가자인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순한 모양을 갖고 시시비비 하는 것은 단지 '상(相)' 놀음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럼 정법이란 무엇일까요. 부처님이 깨달은 법을 연기법이라 말하는데 이에 대한 올바른 파악과 이해, 그리고 그 정신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이 정법입니다. 연기법은 본래부터 있는 보편적 법칙을 말합니다. 즉, 저절로 생겨난 법. 영원히 있는 법을 말합니다.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정법이며, 그게 연기법인 것입니다. 정법을 제대로 아는 것만이 자비로 사는 길입니다. 삼대원은 바로 정법의 자비, 정법의 지혜, 정법의 수호를 뜻합니다.

<금강경>에서는 자비를 완성시키기 위해 지혜를 가르칩니다. 하지만 한국불교는 자비가 아닌 지혜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의 서원중에서 '무변(無邊)'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무변은 구체적이지 않은 수를 뜻합니다. 무변 중생은 우리가 현실 속에서 순간순간 만나는 '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매순간 만나는 '그대'를 내가 자비심으로 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너와 내가 함께 완성되는 자타일시(自他一時成佛)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매 순간 죽을 힘을 다해 '그대'라는 존재를 위하며 살면, 정법이 이뤄진다는 것이죠. 경전은 우리 현실에서 펄펄 살아 숨 쉬는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불교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참선, 위빠사나 등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다 자비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순간순간 죽을 힘을 다해 용맹정진하는 것이 자비롭게 사는 길입니다.

한국불자의 70%이상은 여성 불자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용맹정진해 서원을 하며 살면 한국불교는 저절로 발전하게 됩니다.

서원의 삶을 가장 강력하게 보여줬던 인물을 꼽자면 바로 기독교의 예수를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죽기 전, "주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내 뜻대로가 아닌 당신 뜻대로 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수행하는 것은 내 뜻대로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다른 이에 대한 자비로 법의 정신을 갖고 내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법의 정신이 대자대비로 죽을 힘을 다해 용맹정진 하는 것이 정법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정법섭수는 복된 삶을 추구하는 것

부처님은 "정법을 섭수하는 것은 큰 공덕이 있고, 큰 이익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법서원은 발심서원을 일으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심서원은 대비원력을 말합니다. 즉, 내 뜻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를 <금강경>에서는 발보리심(發菩提心)이라고 부릅니다. 정법서원은 응병용약(應病用藥) 입니다. 팔만사천법문이 생겨난 것은 팔만사천 번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문은 부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생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한국불교는 높은 경지에 올라야만 법문을 알아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가르침은 당연히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돼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속에서 적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법을 갖고 내가 가진 모든 걸 하면서 살면 됩니다. 내가 만난 그들을 위해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정법이 누군가에 의해 변질돼도 온몸을 던져서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원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것입니다. 보살의 마음을 일으켜 끈질기게 지속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프고 병들어 고생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연스레 연민이 생겨납니다. 부처님은 12세 무렵 농경지에 갔다가 농부가 밭을 갈 때 죽는 벌레를 보면서 약육강식의 세계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런 주체할 수 없는 연민심, 발보리심이 대비원력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선지식을 멀리해 진리가 아닌 것(非法)을 들음이 없는 중생들에게는 인간과 천인의 선근으로 성숙시키고, 성문(聲聞)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성문승을 가르쳐 주고, 연각(緣覺)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연각승을 가르쳐 주고, 대승(大乘)을 구하는 자에게는 대승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법을 섭수하는 선남자 선여인이 대지를 건립함에 있어 감당해야 하는 네 종류의 중요한 소임이라 합니다.

선지식은 남녀노소, 귀천을 가리지 않고 불연을 맺게 해 주는 사람입니다. 성문승은 부처님 말씀에 의지해서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연각승은 연기의 이치를 스스로 깨달은 자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승은 함께 길을 걸어가는 벗을 말합니다. 이들은 모두 복된 사람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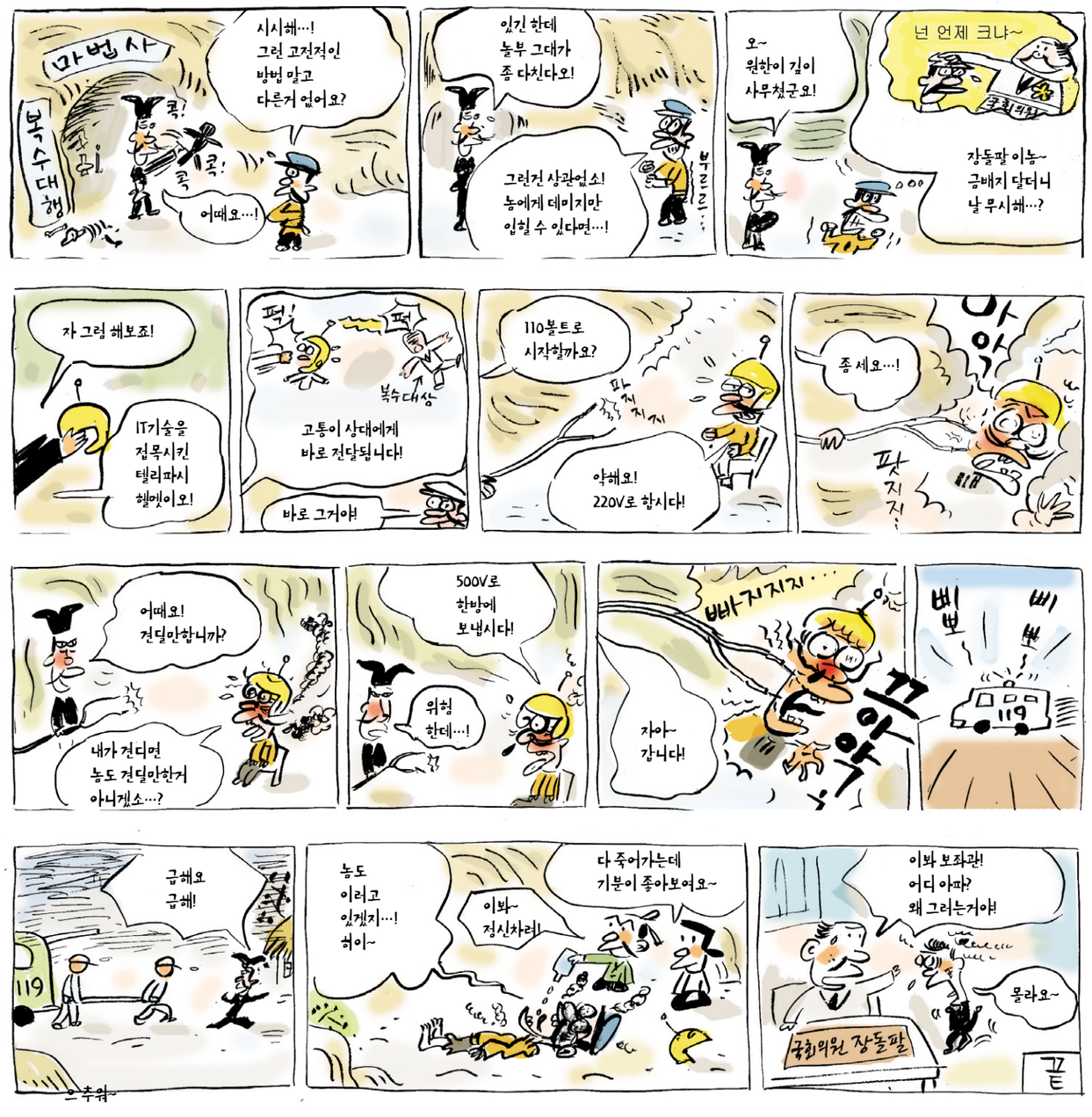
정법을 섭수해 공덕을 이루는 것은 곧 중생으로 살아가지만 더 복된 삶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리=이은정 기자



울퉁보살 불퉁거사 <55>

구성 : 김흥인



남을 해치려다 손해 본 사람

〈백유경(百喩經)〉



옛날 어떤 사람이 남을 미워해 늘 시름에 잠겨 있었다. 한 사람이 그에게 물었다. "너는 왜 늘 근심에 잠겨 있는가?" 그는 대답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몹시 헐뜯는데 힘으로는 그에게 보복할 수 없다. 어떻게 하면 보복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모르겠다. 그래서 근심하는 것이다." 그 사람은 말했다. "비타라 주문(呪文)이라면 그를 해칠 수 있다. 그러나 다만 한 가지 걱정이 있다. 만일 그를 해치지 못하게 될 때 도리어 자기를 해치게 되는 것이다." 그는 이 말을 듣고 매우 기뻐하면서 말했다. "내게 가르쳐 주기만 하시오. 비록 나 자신을 해치는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그를 해치고야 말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와 같다. 남을 해치기 위해 비타라 주문을 구하지만 끝내 해치지 못한다. 그것은 먼저 남을 미워했기 때문에 도리어 자기를 해쳐, 지옥이나 아귀나 축생에 떨어지리니 저 어리석은 사람과 다를 것이 없다.

옛 판화의 세계

문수보살에게 법을 묻다 문법문수(問法文殊)



목판소장 선씨원류(禪氏源流)》 중 문법문수(問法文殊) 편, 불암사판 1673년 간행, 반곽(半郭) 27.2×18.0cm

〈석씨원류〉에 등장하는 이 삽화는 당나라 때 국사 법조 스님이 오대산에 이르러 푸른 옷을 입은 선재동자와 난타라고 칭하는 두 동자의 인도로 석문으로 들어가 죽림사라고 붙어있는 전각에서 문수 · 보현보살을 친견하고 문수보살에게 법을 묻는 장면을 판각한 작품이다. 법조(法照) 스님은 당나라 때 스님으로 형산에 들어가 승원을 섭기며 미타대 반주도량에서 정업을 닦고 766년(대력1) 4월 장안 장경사 정토원에서 오회법사찬(五會法事讚)을 지었다. 대력 4년 형주 호동사의 고건대에 오회염불도량을 차렸으며, 오대산 대성 죽림사에 가서 문수 · 보현을 친견하고 염불하는 법요를 받았다. 뒤에 화엄사 화엄원에서 염불도량에 들어가 죽림사기(竹林寺記)를 지었으며, 먼저 문수 · 보현의 설법을 받던 곳에 절을 짓고 죽림사라 이름 했다. 이때에 당나라 대종(代宗) 황제가 스님의 덕화에 깊이 귀의하고 궁중에서 오회염불을 수행케 해, 오회염불이 조야에 크게 행하매 이에 세상에서 그를 일컬어 오회 법사라 했다. 시호는 대오(大悟), 저서는 오회법사의 3권, 오회법사찬 등이 있다. 본문을 살펴보면 "법조 스님은 문수 · 보현보살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물었다. '말세의 범부는 어떤 법문을 닦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수행하는 법문 가운데 염불보다 더 좋은 법문은 없다. 아미타불의 원력은 생각하기조차 어렵다. 너는 마땅히 염원을 아미타불에 매어두고 결정코 정토왕생을 취해야 할 것이다.' 이때 두 보살이 함께 팔을 펴서 정수리를 쓰다듬고 그에게 기별을 주셨다. '너는 염불의 힘으로 궁극에 가서는 위없는 깨달음을 증득하게 될 것이다.' 문수보살은 그 뒤에 다시 말씀하셨다. '너는 여러 보살들이 사원을 찾아가 순례하고 가르침을 청하는 것이 좋겠다.' 이에 스님은 여러 보살원을 겪어가면서 교수를 청하고 칠보원에 이르러 다시 대성죽림사(大聖竹林寺)로 돌아와 두 보살 앞에 예배드리고 그곳을 하직하니 푸른 옷을 입은 두 동자가 전송해 문 밖에 이르렀다. 그곳에서 다시 절을 하고 머리를 돌아보니 그 모든 것이 사라졌다." 오회 법사라고 불렸던 법조 스님은 문수보살의 수기를 받고 오회염불을 창시했으며, 오회염불은 나무아미타불을 다섯 음의 곡조에 따라 빠르고 느리게 염불하는 수행법으로 마음을 안정시키는 탁월한 효능이 있다.

선학 스님(명주사 고판화박물관장)

詩가 있는 도량

▪ 감전

그냥 지나쳤어야 했는데……

보는 것만으로도
환해지고
온몸이 전율하며
가슴이 검게 타는 충격

154,000V 특고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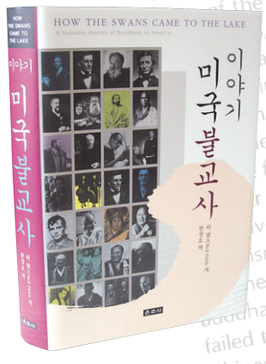
지금
고혹의 붉은 장미군단이 지나간다
처음보는 팔등신 미녀들이……

–윤여설 신작시집 〈푸른 엄지족〉

한국에 처음 소개되는,
미국불교의 생생하고 구체적인 역사와 그 현장!

전 세계 모든 불교가 공존하는
미국불교의 놀랍도록 다양하고 풍부한 이야기

- 미국에서 불교는 어떻게 전파되고 진행되었는가?
- 미국에 불교를 전하기 위해 애쓴 주요 포교사들은 누구이며, 그들은 어떤 활동을 하였나?
- 미국인으로 불제자가 되어 활약한 사람들은?
- 미국 내의 일본, 티베트, 중국, 한국, 베트남 불교도의 활동 및 계보는?
- 미국불교의 특색은 무엇인가?
- 미국인에게 불교는 무엇이며, 미국불교의 미래는?
- 유럽인들과 불교는 어떻게 만났는가?
- 미국불교가 한국불교에 던지는 교훈은?



릭 필즈 저, 한창호 역/
신국판양장/672쪽/30,000원

이야기 미국불교사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6가 25-1 청송빌딩 3층 전화 (02) 926-8361, 팩스 (02) 926-8362, 주문 (02) 3672-7181 붓다북 www.buddhabook.co.kr

한국의 불교문화가 한 손에!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만나는
다양한 불교문화에 대한 알기 쉬운 해설

한국불교문화사전



일반대중의 눈높이에 맞춘 불교문화 안내서

우리나라 국민이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접하는 유 · 무형의 불교문화에 대해 짧으면서도 평이한 설명을 하여, 일반 대중들이 불교에 접근하는 것을 돕고, 불교문화에 대해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국불교의 역사, 인물, 전통, 사찰, 건축, 회화, 조각, 공예, 경론, 의식, 수행생활, 불교용어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14명의 해당 부문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700여 개의 표제어와 150여 컷의 사진으로 꾸민 한국 최초의 불교문화사전이다. 부록에는 대표적 불교문화재, 즉 불상, 보살상, 사천왕상, 전각, 탑, 범종, 석등, 부도, 당간 등에 대한 도해를 수록하였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편/국판변형양장/508쪽/25,000원



살아가면서 내 마음이 비워지면 스스로 채워지는 겁니다

정신적인 질병도 치유할 수 있는지요?

문 요즘에는 예전보다 정신병 환자가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마음의 중심을 못 잡고 마음이 허하니까 다른 영령들에게 정신을 빼앗기는 사람도 많은 것 같고요. 마음공부를 통해 이런 정신적인 질병도 치유할 수 있을까요?

답 우리에게 병고가 닥치면 그건 누가 해결을 하나요? 의학적으로는 30%밖엔 맡길 수가 없어요. 70%는 누가 어떻게 충당을 하죠? 자신들이 충당해야 돼요. 이게 거짓말 아니에요. 그런데 정신병 환자들을 그냥 목석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살이 이렇게 찌고요. 하도 그냥 약을 먹이고 잠만 재워서요. 그러니까 말도 제대로 못하게 되고 말입니다.

우리 절에도 어떠한 정신병이 있는 환자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스님네들이 어떠한가 그걸 보느라고 더 난리를 쳐요, 더. 아주 그냥 때리기도 하고, 막 악을 쓰기도 하고, 자기 어머니를 막 때리기고 하고 이런 짓들을 하거든요. 우리 스님들이 어떡하나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실험을 하는 겁니다. 외려 더 그런 걸 가졌어요, 영계성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럴 때에 그걸 둘로 보지 않아야만 되겠죠? 겸손하고 항상 둘로 보지 않고 불쌍히 생각하고, 내 몸과 같이 생각하고 내 마음같이 생각하고 그런다면, 항상 나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영가들도 그러다가 아주 조용해집니다.

그럴 때 올바로 끌고 나가셔야죠. 죽은 사람이든 산 사람이든 한 번 갔다 한 번 나오고 하는 데에 수없는 시간이 걸리는데, 삼차원에서도 살지 못하고 저 하천세계에 떨어져서 수없는 나날을 보내다 다시 인간으로 올라오려면 얼마나 어려운데 당신 그러느냐고, 당신과 나와 어찌 둘이겠느냐고 하고선 딱 정신차리게 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있죠. 네가 주장자가 있다면 내가 내 주장자를 너를 줄 것이로되 네 주장자가 없다면 너의 집을 마음대로 드나들어도, 네 주장자를 내가 빼앗아도 너는 뺏기는지 안 뺏기는지 그것조차도 모른다 이겁니다.

쉽게 말해서 화산이 이글이글하게 탄다고 봅시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나무동강이라든가 그런 걸 거기 갖다가 집어넣는다고 해서 그게 타지 않을까요? 다 타죠?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한 불씨가 수만 개의 불티로 나가도 나간 사이가 없고, 또 그 불씨가 한데 합쳐도, 미쳤던 의식 이 자체도 근본자리에 가면 그냥 녹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의식이 어떠한 나무 동강이라고 보고, 불성 자리라면 그냥, 화산과 같은, 용광로와 같은 한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무 동강이든지 쇠 동강이든지 어떤 거든지 들어가면 그냥 녹고 타게 돼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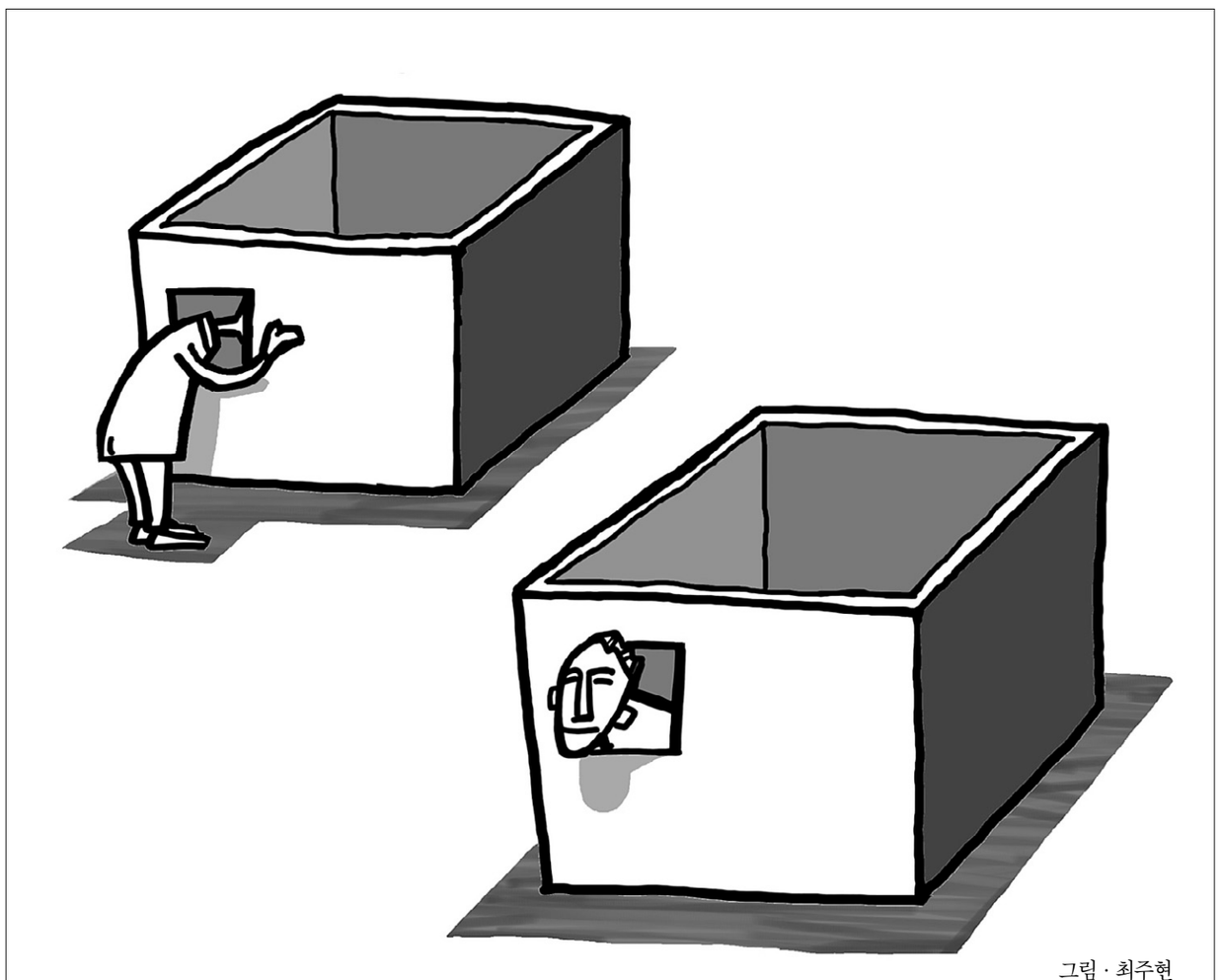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러니까 모든 게 우리 공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전화기하고 냉장고 이런 것이 아주 필수적으로 필요하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우리가 공부하는 도리 밖엔 없습니다.

스님께서는 어떤 마음 자세로 공부를…

문 스님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고행을 많이 하시면서 공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마음 도리를 알고 싶은데 살림하면서도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스님께서 어떤 마음자세로 공부하셨는지 좀 말씀해주시면 저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답 우리는 같이 사는 사람들이라 해도 그 마음을 모르고, 또 그 사람이 과거에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자기도 과거에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또 과거 그 사람이 무얼 했는지도 모르고, 현재 마음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잖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모두 연구를 할 수 있나요? 그리고 담아 줄 수도 있고 또 자기도 먹을 수 있고 그럴 수 있겠어요, 어디? 모두가 다 모르는데. 그래서 나는 그러죠. 죄는 없다, 고(苦)도 없고. 모든 게 없으나 아마 고가 있다면, 죄가 있다면 모르는 게 죄겠지, 이러죠. 모르는 게 죄고 모르는 게 고다. 내가 생각할 땐 하나도 죄 붙을 데도 없고, 인과응보라든가 그런 데 끄달릴 것도 하나도 없는데 모두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야겠다는 얘기죠.

모르겠어요. 뭐 여러분이 더 잘 배우고 더 잘 알았으니깐 모르겠지만, 이것만은 나보다 못할 겁니다. 난 어려서부터 안 해 본 게 없어요. 내가 못났기 때문에 더 해 봤을 테니까. 내가 잘나고 또 모든 상황이 아주 잘났더라면 어디 꼬임에 빠져서라도 이걸 했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연구하고 그러느라고 딴 사람하고 말할 사이도 없었단 말입니다. 여지가 없었죠. 무슨 생각할 여지가 어딨습니까. 말없이 말을 자꾸 하고 지금 가고 있는데 옆댕이에서 말할 새가 어디 있어요. 목신하고도 말을 하고 그 목신들이, 무정물들이 어떻게 하고 살고, 어떻게 생각들을 하고 어떻게 유지를 하고 또는 무엇을 먹고 살고, 무엇을 주고 살고 공생 공용을 진짜로 넣어 준 게 있느냐 이런 거를 연구하느라고 말입니다. 근데 인간하고도 아주 그냥 가깝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주고 먹고 이러면서.

그리고 목신도 없는 게 아니죠. 인간 자신도 이게 자성신이거든요. 자신, 자성신. 이게 자성신인데 목신이라고 없나요? 목신도 있다고요. 그래서 물도 신이 있어서 수호신이라고 그러죠. 용신이라고도 그러고. 수호신하고 용신하고 뭐가 다르냐? 수호신은 가만히 물이 흐르는 거, 동요하지 않는 그 물이 있는 것을 말하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용신은 그 물에 생명이 있어서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서 생각을 내면서 모든 거를 이렇게 그 생산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를 용신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도 그래요. 바로 자성신이 용신이죠. 왜냐하면 생각을 내지 않으면 무엇이 성사가 되지 않으니까. 목석이니깐요. 악한 생각이든 선한 생각이든 생각을 누구나가 다 내죠. 그러니까 누구나가 그 생각 내는 데에 달려 있다. 악도 거기서 나오는 거고 선도 거기서 나오는 거니 좀더 선쪽으로다 무겁게 간다면 한번 생각해 볼 점이 있지 않나. 또는 잠재의식 쪽으로 한번 생각 기울여 봐라. 그러면 너 나왔던, 전자에 내가 나오기 이전에 살던 그 세상으로 한번 맛을 볼 수 있지 않느냐. 내가 어디서 왔는지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걸 알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거죠.

이게 그냥 쓸데없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내 생에 정말이지 걸음을 걸으면서도 아픈 눈물을, 육신이 아프고 춥고 배고프고 쓰러지면서도, 엎드러지면서도 오직 그 하나만 생각하고 걸었다는 거. 여러분은 그 맛을 모르실 겁니다. 여러분도 자식 낳고 살림하면서도 좀 여유 있게 생각하신다면 못할 게 하나 없어요.

우습게 볼 게 하나도 없어요. 둑에 조그맣게 뚫

☞26면으로 계속

(사)한국불교 금강선원 학생모집 안내

-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
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 대학장 : 호암 ◆ 대학원장 : 서무선
발심을 하고도 시간상, 거리상 제약으로 부처님 공부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없는 불자들을 위해 통신과정을 마련하여 각자의 근기에 따라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통신교재가 준비되어 있다.
◇통신대학 :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각 6개월 과정 - 2년)
◇통신대학원 : 경, 율, 론, 선, 밀교 (대학원 - 각 1년 과정)
◇원서 접수 및 교부 : 수시접수

- 강원 교육 -
나란다삼장불교대학
◆ 학장 : 성덕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심자를 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모집학과 : 사미과, 사집과, 사교과, 대교과(각 6개월 과정)
◇원서교부 : 2009년 7월 15일 부터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개 강 : 2009년 9월 7일 월요일
◇교 수 진 : 활안 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서무선박사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외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출가 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 범패 · 작법무 -
불교예술대학
◆ 교수 : 해사
불교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도자 양성을 모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예술대학에서는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보존회 이수자 해사스님을 교수로 초빙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울 수 있다.
불교예술의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하는 불자들의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강의내용 : 사물다루는 법 등 기초교육
◇원서교부 : 2009년 7월 15일 ~
◇수업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 6시
◇개 강 : 2009년 8월 6일 목요일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1동 51-14 www.kumgangnet.com 전화 02)969-2410/969-4981 / 팩스 02)964-2433

buddhanews.com

근본자리에 들어가면 어떤 것도 다 그냥 녹아버려요

☞25면에서 계속

린 요만큼한 구멍으로 인해, 사람이 안 보이는 데서 조금조금 고였던 그 물로 인해서 큰 둑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조그맣다고 우습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지금 아무렇게나 산다고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인간은 이 세상에서 제일가는 동물이자, 바로 99% 100% 자유인이 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돼지처럼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으로 살고요. 만물의 영장이 바로 인간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도리를 아시려면 자기 주처의 주인공을 진짜로 믿고 맡겨 놓는 작업부터 열심히 해 보십시오.

인생을 잘 회향하고 싶습니다

문 요즘 따라 제 주변에서 돌아가신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제는 죽음이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죽음이 닥쳐도 후회하지 않도록 어떻게 인생을 회향을 잘하고 갈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답 이 사람 사는 도리가 다 그렇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만이 정수에 입력이 잘돼서 죽는 날에 회향을 잘할 수 있을까 하고 한 번쯤은 생각해 보게 될 겁니다. 이 회향이라는 것은 우리가 밥을 먹었는데 그 밥을 먹고 소화가 잘돼서 '어, 참 잘 먹었다. 아이 참, 잘 먹었다.' 하는 거와 같은 겁니다. 음식을 먹고 체해 가지고 만약에 요동을 부린다면 그게 회향이 잘못된 거죠.

그리고 화목하게 끝났으면 회향이 잘된 거고 화목지 못하게 끝났으면 회향이 잘못된 거나 마찬가집니다. 그런 거와 같이 일생 동안을 살아나온 결과가 그 회향인데 끝에 가서 "어이, 그 사람 그거 그러더니 잘 죽었어." 이렇게 회향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아이 그 아까운 사람, 법 없어도 살 사람인데 죽었어." 이렇게 회향을, 끝을 마쳐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생산처에 가더라도 "아, 당신은 참 위대해." 하면서 차원 높게 아주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용도를 줘서 내보내죠.

그러면 여러분이 "당신은 그렇게 하고 삽니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무의 정신세계를 모른다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정신세계와 물질세계, 즉 말하자면 당신의 육신과 정신,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그러면 댁의 육신이 올바르게 살려면 정맥 동맥이 동시에 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신계와 물질계가 동시에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거는 뭐, 좀 살 만하면 파괴가 생기고, 이건 뭘 했다 하면 걸려 넘어가고 꿰여 넘어가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되죠. 그게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바퀴가 있어서 바퀴에 심봉이 딱 꿰져 있다면 그 심봉을 의지해서 바퀴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심봉이 제대로 끼어 있지 않다면 바퀴가 이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예가 있었죠. 우리 스님네들을 가르치기 위해 어떤 때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공양거리가 없었습니다, 절에. 그런데 아주 가난한 사람이 쌀을 얻으러 왔다고 합시다. 그 조그만치 있는 거를 다 그 사람에게 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일 아침 공양거리가 없는데. 그런데도 그 스님네들은 그것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아침 공양거리가 없어도 그냥 싹싹 긁어서 다 퍼 준 겁니다. 왜 그렇게 다 퍼 줬을까요. 만약에 믿지 못했다면 내일 아침에 당장 공양거리가 없는데 어떻게 다 퍼 줍니까.

그릇을 비우면 반드시 또 그릇에 채워진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또 샘물은 퍼내면 샘물이 또

> 생활에서의
> 그 무거운 짐과
> 모든 것을
> 몰락 놔버려라,
> 대공의 주처에

솟는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모른다면 항아리에 갖다가 물을 그냥 모아 놓기만 하는 거죠. 그냥 퍼 쓰면 항아리가 비는데 말입니다. 비면 살 수가 없다고 야단법석들을 하는 원인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정신계를 공부 안 해서. 샘물이라는 건 정신계에서만이, 참나의 뿌리에서만이 그 샘물이 나오는 거지, 아무 데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 쌀도 없지만 다 비워 놓고 그냥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9시에 취침종을 치니까 막 잠을 자려고 하는데 짐차 소리가 덜렁덜렁 나더니 누가 쌀 세 가마를 갖다가 그냥 털썩 갖다 놓고 가지 않습니까. 이게 거짓말인 줄 알지 마세요. 이 쌀뿐만 아니라 일체 살아가면서 내 그릇이 비고 내 마음이 비워졌다면 스스로 없으면 채워지고 없으면 채워지는 겁니다.

이거를 자랑 삼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한 찰나를 좀 아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정신계의 한 찰나라는 건 아주 무궁무진합니다. 누구에게나 다 각자 그 자가발전소라는 보배는 얼마든지 다 있으니까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발견 못하고 자기네들이 그렇게 쓰지 못하고 자기네들이 응용을 못하고, 진실되게 살지 못하니깐 그렇게 걱정하며 사는 거죠. 우리 인간이 이 중세계에서 뛰어넘지 못하는 것도 역시 그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 하나하나 쓰는 데 엄청난 문제가 붙습니다. 이날까지 살아오면서 바로 자기 마음으로 지어서 창살 없는 감옥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그 안에서 발버둥이치고, 자기가 구덩일 파 놓고 자기가 그 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허덕이고, 나오려고 복통을 하고 방황하고, 자기 마음 한 생각을 잘못 돌려서 감옥에 들어가서 그렇게 지금 자기 몸뚱이를 자기 마음이 그렇게 고생을 시키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마음 도리를 전부 아실 수만 있다면, 그걸 증득한다면, 그 해맑은 자기 마음의 모습을 깨닫는다면 바로 그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생각 하나가 억겁을 돌아가면서 끄달리게 하느냐, 생각 하나 잘해서 억겁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의 갈래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아니었더라면 저 은하계의 별들이 없을 것이고, 별들이 없을 것이라면 태양도 형성치 못할 것이고, 태양이 형성되지 못했다면 우리가 곡식을 익히지도 못할 텐데, 모든 걸 고맙게 이렇게 하고 있는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형성시켰습니다. 다 형성시켜 놓고 자기가 주인으로서 여기에 살 양으로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한 생 허탈히 보내지 마시고 살아 있을 때 후회 없이 정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의 관심이 구속으로 여겨집니다

문 저는 우연히 불교 텔레비전에서 방영되는 스님 법문을 접하게 되면서 마음공부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10년이 돼 갑니다. 근데 남편의 적극적인 관심이 연애할 때는 애정의 표현이라 여겨져서 행복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구속으로만 생각되어 갑갑하기만 합니다. 심각할 정도로 말입니다. 그래도 애들이 있어서 살기는 하는데 어떻게 마음을 돌리고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답 그게 구속이 아니에요. 예전에 어떤 사람이 길을 지나가다가 하도 배가 고파서 쓰러질 거 같고 그러니까 어느 집 근처로 가 가지고 문을 두들기면서 구원을 청했어요. 그랬는데 그 안에서 나오는 사람이 "어떤 미친 새끼가 와서 이러느냐." 그러면서 발길로 차고는 문을 탁 잠그고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렇게 발길로 찼는데 나동그라지지 않겠어요? 생각을 해 보세요. 그랬을 때 그 나동그라진 사람이 그 사람을 얼마나 원망을 하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은 자기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자기가 여기 와서 문을 두드리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이 나와서 나를 발길로 찰 일이 없질 않으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죠. 바로 내가 원인이에요.

그렇다면 부부지간에 살아도 그렇고, 구속이 어떻게 해서 구속이 됩니까?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생각을 하고 태어났기 때문인데, 그 자기를 태어나게 한 장본인이 누굽니까. 지금 공부하는 게 그 장본인이 다 하는 거지요. 그 장본인의 탓이고, 그 장본인으로 인해서 내가 형성이 됐으니까 바로 나의 탓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남을 원망할 것도 없고, 남을 저주할 것도 없고, 왜 내가 발목이 잡혀서 이러나 하는 생

> 말과 색에 너무
> 치우치지 말고
> 모든 것을
> 나로만 생각하라,
> 각자

각을 할 것도 없다 이겁니다. 내가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창살 없는 감옥이 생기는 거고, 내가 그런 생각을 안 하면 모든 게 허공과 같은데 말입니다. 이 우주 천하가, 이 생명체가 다, 일체 유생 무생이 다 한꺼번에 돌아가는데, 거기에 나도 껴서 같이 돌아가고 있는데 어째서 내가 구속이냐 이겁니다. 그건 자기가 생각으로 구속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구속이 돼서 공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내 몸뚱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를 볼 때도 몸뚱이로만 보거든요. 색(色)으로만 본다 이 소립니다. 색으로만 보니까 항상 그렇게 편견을 가지고 살게 되죠. 그런데 모두가 나 아님이 하나도 없어요. 내 생명 아님이 하나도 없고, 내 아픔 아님이 하나도 없고, 내 자리 아님이 하나도 없고. 예를 들어서 물도 나요, 나의 생명이요, 흙도 나의 생명이요, 바람도 나의 생명이요, 공기도 나의 생명이요, 산소도 나의 생명이요, 모든 일체 유생 무생의 생명도 나의 생명이니, 어찌 나 아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를 생각해 본다면 일체 이 법도, 생각 내는 것도 그 하나의 근원지에서 나오는데 어찌 잘못됐다 잘했다 말할 수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색에 치우치지 말고 모든 것을 나로만 생각해라 이겁니다, 각자. 자기 주처를 똑바로 알고 주처에다 모든 거를, 그 무거운 짐과 모든 것을, 생활에서의 망상이나 모든 것을 다 몰락 놔 버려라. 그 대공에다, 대공의 주처에다 말입니다. 자기 주처죠, 그러니까. 자기 없이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자기가 원인이요, 자기가 화두요, 자기가 근본이기 때문에 그 근본은 둘이 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구속이라 생각지 마시고 공부 재료로 삼아 한도반으로서 잘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인과응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 저의 옆집에 사는 사람이 살림도 어려운데 행실도 좋지 않으니 그 사람만 보면 그게 인과응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공부해 보자고 권해도 듣는 척도 안 해요. 그 사람도 불교에 인연이 되면 좋겠습니다.

답 우리는 생활에서의 모든 거를 항상, 세 가지를 일심으로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삼위일체의 행이 전체의 행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죄가 있는 것이고, 죄가 없다고 생각하면 없는 것이고, 인과응보가 있다 하면 있는 것이고, 없다 하면 없는 것입니다. 그건 왜? 만약에 각각 둘로 보면 인과응보가 있는 거고 또 둘로 보지 않는다면 인과응보가 없는 것입니다.

또 아픔도 둘도 아니요, 슬픔도 둘도 아니요, 보람도 둘도 아니요, 삶도 둘도 아니요, 즐거움도 둘이 아니다 이겁니다. 모든 게 둘이 아니에요. 그럴 때에 모든 게 없어요. 요것만 잘 해서 훌쩍 넘어설 수만 있다면 그대로 법이요, 의심낼 게 없는 겁니다. 의심내지 말고 그대로 해 나가는 것이 그대로 법이요, 그대로 활용이요, 그대로 참 부처님 법이니 어찌 그것이 '아니요, 기요' 할 게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나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이웃에 미운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저 사람은 업보가 많아서 인과응보로 인해 저렇게 고생을 해.' 이런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시고 한생각으로써 '아, 그거 불을 자리가 어디 있는고? 그 한 점에 그 불을 자리가 어디 있는고? 찰나찰나 돌아가는 이 사이에.' 그런다면 모든 것은 그 마음을 한생각을 내 주는 반면에 바로 에너지 같은 무전통신은 거기까지 도달해서 그 사람들도 다 그 길을 자연스럽게 밟게 되는 이치가 있으니 그렇게 마음으로 전달을 하십시오. 말로 전달을 하면 그게 한데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마음을 잘 쓰고, 남한테 이익을 주게 말을 하세요. 마음을 잘 씀으로써 말도 잘 나갈 것입니다.



지허스님 지음
135쪽 | 5,000원

불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중생으로 시작해서 인간으로 끝납니다. 부조리한 백팔번뇌의 인간이 조화된 열반에 이르는 길이 바로 불교이기 때문입니다.



감산대사지음 · 대성스님 옮김
247쪽 | 8,000원

마음은 본래 맑은 못과 같으나, 눈앞의 경계를 받아들이는 까닭에 그 성품을 혼탁하게 하여 온갖 어지러움을 일으키고 고민에 빠지며 번뇌를 낳는다. 그 근본 원인은집착에 있다.



한형조 지음
333쪽 | 8,000원

무문관, 혹은 "너는 누구냐"
만법귀일(萬法歸一) 선(禪)에서의 모든 물음은 하나로 귀착된다. "너는 대체 누구냐?"

현대불교@장터
www.HyunbulShop.com
기존의 「여시아문」이 「현불샵」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불교상품에서 일반용품, 불교도서, 음반, 각종 이벤트 등
「온라인쇼핑몰 현불샵」을 인터넷에서 만나보세요.

현대불교 현불샵 |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T. 02)2004-8216 / F. 02)737-0696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농협 053-01-269062 | 국민은행 343601-04-046766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차용품전문회사 홍다원

홍다원이 위치한 북촌지역(가회동, 삼청동 일대)은 조선시대 경복궁과 창덕궁, 종묘의 사이에 위치해 서울 600여년의 역사와 함께 한 전통 거주지역입니다. 주변에는 북악산과 인왕산이 있어 예로부터 길지(吉地)로 알려진 지역이기도 합니다.
홍다원은 중국 전통의 보이차와 다구용품을 전시 판매하는 회사로 중국 보이차와 한옥의 멋스러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따스한 공간입니다. 중국 본토에서 수집한 50여가지의 골동품도 전시하고 있어, 차와 함께 즐기실 수 있습니다.



보이차
홍다원은 10년 전부터 주재원이 상주, 곤명의 운남성 차엽공사와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다원의 보이차는 식약청의 검사를 통해 직수입하고 있습니다.


■ 전시된 보이차 · 목공예 작품과 함께 차를 시음하실 수 있는 공간



자사호
홍다원의 자사호는 이싱(宜興) 정산 황용산의 홍니만을 사용하여 직접 작가에게 주문의뢰한 작품을 취급하며, 고객이 원하는 작가의 작품 또한 주문생산하고 있습니다.


■ 퇴수기와 각종 차용품, 보이차를 진열한 공간

서울시 종로구 가회동 74
www.hongdawon.com



불자 세상보기

이병두
칼럼니스트

체중보다 마음 먼저 다스려야 …

인간 세상은 본래 불공평한 것일까? 세상 한쪽에서는 굶어 죽거나 영양 부족으로 시름시름 앓으며 서서히 죽어가는 사람들이 넘쳐 나는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 너무 많이 먹어서 탈이 나고 체중 과다와 비만증 때문에 신종 질병을 앓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굶주리고 있다"고 진단한다. 굶주리는 사람들은 입을 옷과 잠을 잘 곳이 없을 것이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 공부시킬 가능성은 아예 생각조차 할 수 없을 것은 물론이다. 그러니 이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꾸거나 신분 상승은 꿈이라도 꿀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이 온 원인과 배경이야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고, 전문가마다 서로 다른 진단을 내릴 것이다. 하지만 빈부 격차로 인한 골이 점점 깊어지는 것이 세계적 현상이라는 데에는 누구든 동의할 것이다. 옛 속담에 "100섬 가진 사람이 한 섬 가진 사람의 것을 탐낸다"는 말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 정도가 아니다. 수천 억 섬을 가진 사람이 간신히 곡식 한 알을 가진 사람의 것까지 뺏어가려고 하는 상황인 것만 같아 안타깝다. 이제 우리나라도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으로 보면 이처럼 불공평한 상황이 확실하게 드러나, 직장을 잃고 길거리로 내몰리고 노숙자가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남녀 모두 '지나친 몸무게 – 과체중'을 걱정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이런 현상을 보고 일부에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하였다고 할지도 모르겠다.

그 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선진국은,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먹어서 배가 튀어나온 사람들이 많은 곳'들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 실은 '보릿고개'의 아픔을 잊어버린 것이 그리 오래 되지 않았는데 벌써 국민들의 과체중을 걱정하게 되었으니, 이런 현상을 어찌 해석해야 될까? 답이 쉽게 나오지 않는다. 일부에서는 "한국의 고도성장을 반영하는 현상이니,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할지도 모르겠다. 하긴 나도 어린 시절 허기진 배를 끌어안고 물만 들이켰던 '아픈 추억(?)'이 있어서 이와 같은 진단에 일정 부분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굶주리는 것보다는 과체중이 그래도 나을 듯싶고, 그런 내 과거사 때문인지 나는 아직도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탐욕을 끊지 못하고 있다.

부처님 말씀대로 음식이란 '몸을 지탱하기 위한 것, 몸을 보존하여 묵은 병을 고치고 새로운 병이 생겨나지 않도록 기력을 충족시켜주는 것'이고, 그래서 음식물을 먹을 때에는 '탐착하는 마음이 없어야 한다.'(<증일아함경>47, 목우품(牧牛品))

그런데 이 기본적인 조건을 넘어서게 되면, 그것은 이미 과욕 · 탐욕이 되어 '몸을 지탱하기보다는 망치게 되고', '묵은 병을 고치고 새로운 병이 생겨나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묵은 병을 더욱 깊어지게 하고 이제까지 없었던 새로운 병이 생겨나게 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아침 운동을 하고 스포츠 센터나 사우나에서 땀을 많이 흘려서 살을 빼면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런 것들은 아주 일시적인 처방에 불과한 것이다. 체중 과다와 비만의 원인은 과도한 욕심이자 온갖 것을 무한정하게 갖고 싶은 탐욕인데, 그 원인을 다스리지 않고서는 근본 치유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기 마음을 다스려서 물질에 대한 과도한 욕심과 탐욕을 제어하고, 모든 것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보살의 길을 가며, 물욕에 찌든 마음을 깨끗하게 닦아내야 한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체중 과다와 비만 단계에 들어섰다"는 최근의 보고는 우리가 새삼 마음공부를 하게 할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본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說

심성교육 확대되길

우리나라만큼 교육문화가 복잡한 나라가 있을까? 공교육은 체계를 버젓이 놔두고 사교육이 판을 친다. 대다수의 학부모들이 아이를 학원에 보내지 않으면 아이를 바보로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한다.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사교육에 대한 맹신을 잘 담아낸 말이다.

이른바 외고, 과학고, 자사고 등의 특목고들이 교육의 대간을 흔들고 있기에 보편적인 기준을 근간으로 하는 공교육은 무너지고 만 것이다. 그렇다고 학원을 없앨 수도 없고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할 수도 없다. 사교육 시장도 돌이킬 수 없이 컸고 학부모들의 관심도 공교육을 떠난 지 오래다. 해외로 떠나는 조기유학 행렬이 끊임없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시대상이다.

이렇게 교육정책이 흔들리는 가운데 세상은 빠르게 변했다. 인터넷과 핸드폰으로 상징되는 통신수단의 변화는 청소년들의 생활문화를 하루가 다르게 변화시켰다. 그러는 동안 청소년들의 심성교육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학교와 학원 과외수업에 지친 청소년들은 '공부하는 기계'로만 인식되고 있다.

한 때 '전인교육'을 외치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심성교육이 무엇보다 절실한 때다. 올바른 국가관과 도덕관, 인생관은 올곧은 심성교육을 통해 형성될 수 있다. 한마음과 학원이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을 초청해 각종 심성교육프로그램을 소개한 것은 심성교육이야말로 백년대계를 위해 하루속히 도입해야 할 교육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이런 간절한 심정을 김 교육감이 공감하고 갔다니 경기도 교육청에서부터 새로운 심성교육의 바람이 불길 기대한다.

날마다 공부하기 좋은 날

8월 5일은 음력으로 6월 15일이지만 하안거 해제일이다. 올해는 윤5월이 있어서 해제일이 음력 7월 15일이 아니라 6월 15일이다. 선원에 따라 한 달 더 가행정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공식적인 해제일은 8월 5일인 것이다.

해제일을 맞아 선원의 결제대중은 물론 법당에 다니면서 정진한 재가불자들도 석달간의 공부를 점검하고 또 새로운 공부를 위해 길을 떠날 것이다. 매번 결제와 해제를 전후해 나오는 큰스님들의 당부지만, 결제와 해제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마음을 밝혀 인천의 대자유인이 되는 데는 결제할 것도 해제할 것도 없는 것이다. 시간을 나누어 구분하는 자체가 지극히 공부와 상관없는 일이다.

공부는 한 순간도 흐트러짐이 없는 간절함으로 지탱되어야 한다. 결제 때 공부하고 해제 때 노는 것은 공부하는 사람의 일이 아니다. 공부를 직업으로 삼은 사람이라면 몰라도 진정 발심하여 공부 하는 사람은 시간과 장소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항상 간절지심의 촛불을 태우게 마련이다.

세상살이가 어렵고 복잡할수록 사찰로 찾아와 마음을 밝히려는 사람도 늘어나는 법이다. 템플스테이에 대한 호응이 이를 반증한다. 사찰에서 뿐 아니라 생활하는 어느 곳이든 수행공간이 될 수 있고 살아 있는 모든 시간이 수행하기 가장 좋은 시간임을 불자들 먼저 자각하고 초심자들을 안내해야 할 것이다.

현불만평 박구원



비우고 쉬는 휴가로 재충전을…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5199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사부대중 테마칼럼

바른 생활 · 마음이 최고의 명의

8월의 테마-질병

요즘 더위만큼이나 신종인플루엔자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7월 27일 전 세계 신종인플루엔자 사망자 수가 816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도 세계 14번째 감염국으로 감염자수가 1000여명을 넘어섰다.

문제는 신종플루의 확산을 막을 뚜렷한 방법과 해법을 질병당국-지자체가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39억원이나 되는 신종플루 정책홍보비를 투입했지만, 관광-국제스포츠 경기 등으로 외국에서 유입되는 환자 외에도 감염경로를 확인할 길 없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국가전염병 위기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지만, 여름 휴가철 신종플루 예방과 지역확산을 막을 묘안은 보이질 않는다. 하루속히 백신개발로 신종플루의 피해와 두려움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해본다.

이렇듯 질병은 우리의 삶속에서 늘 함께하는 그림자와 같이 인간사와 함께 진화하는 듯하다. 의학의 발달은 가히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경이롭게 발전해왔고 또 발전해 갈 것이다. 하지만 질병 또한 인간들의 욕심과 무지에 비례하여 새로운 질병이 생겨나고 그로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것이다. 인간의 역사에서 질병을 예방하고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인간의 욕심을 조금 덜어내는 작업일 게다.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의 병과 관련한 여러 말씀을 하셨다. 먼저, 부처님께서는 병이 든 환자에게 이렇게 병을 다스리라고 하셨다. 첫째, 음식을 가릴 것, 둘째, 제 때에 먹을 것, 셋째, 의약을 사용할 것, 넷째, 화를 내지 말 것, 다섯째, 간병인(의사)에게 순종할 것 등 이 다섯 가지를 명심하고 잘 지키라 당부하고 계신다.

반면에 의술을 다루는 의료인에게 부처님께서는 "네 가지 법을 필요와 분별에 따라 성취하면 큰 의왕(醫王)이라 하나니 네 가지 법이란 무엇인가?

첫째, 병을 잘 아는 것이며, 둘째, 병의 근원을 잘 아는 것이며, 셋째, 병을 잘 다스리는 것이며, 넷째, 다시 발병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병을 다스리려면 증상과 원인, 치료법을 알고 있어야 하며 또한, 미리 예방해서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이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과 뽐냄이라는 네 가지 독화살이 있어 발병의 원인이 된다. 병의 원인이 있을 때 질병은 일어나며, 추워 떨거나 열이 나서 시달리거나 폐에 병이 나거나 기운이 위로 올라 어지러워지거나 먹은 것을 토하거나 살갗에 병이 나거나 마음에 병이 나고, 설사와 눈병과 귓병과 복통과 신경질과 도깨비와 귀신에 홀린 병과 같이 몸과 마음에 여러 병이 일어나느니라."

병은 잘못된 마음에 뿌리가 있고, 이 잘못된 마음이 잘못된 생활을 일으켜서 병이 나도록 한다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병이 나으려면 바르게 생활하고 바른 마음을 가져야 한다.

마음으로 간절히 바라며 절한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가섭 스님
서울노인복지센터장



특급정보 **통증을 시원하게 날린다!**

글로코에이

팔꿈치 통증 · 관절통증 · 허리통증 · 어깨 · 목 통증



세상에 이럴 수가 통증이 싹

신기술 신물질로 만든 글로코에이크림이 항상 통증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 희망이 되고 있다.

금강닥터사에서 시판되고 있는 글로코에이크림은 팔꿈치 통증, 무릎 관절통증, 허리통증, 어깨와 목의 통증 등에 바르기만 하면 통증이 사라진다.

강원도 정선에 계시는 토굴 스님은 5년 전부터 무릎 관절통증으로 걷기도 힘든 가운데 팔은 괜찮아 손으로 하는 일을 많이 해 팔꿈치 L보까지 통증이 와서 물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병원에서 약도 먹고 파스도 부치고 바르는 소염 크림도 발라보고 몇 년간을 노력했으나 새벽만 되면 극심한 통증은 더욱 심해 이것이 나의 고행이라 생각하고 있던 중 50대 후반정도 되는 등산객이 비상용으로 항상 가지고 다닌다는 클로코에이크림을 발라주겠다하여 나도 바르는 약이 있다 했지만 이것은 다릅니다. 하여 무릎과 팔꿈치에 바른 후 30분 정도 지난다음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움직이기만 하면 통증이 오던 것이 사라진 것이다.

등산객은 스님 저도 골프를 너무 좋아해 무리한 운동을 하다 팔꿈치 L보를 다쳐 고생고생하다 이 크림을 만나 지금은 괜찮지만 골프를 못하고 등산으로 취미를 바꿨다는 것이다. 그 후 스님은 전화번호를 알아 2set를 구입했다고 한다. 사찰에서 스님 비상용으로 구입해놓으면 요긴하게 쓸 수 있다. 120㎖×2개. 1set 가격 30,000원(스님 특별할인 가격)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金剛닥터사 / 전화 02)2271-1441
농협 015-01-415953 최성욱

아픈이 이제 끝! 美國산 신비의 치약

지금 치아 때문에 고생하세요?

풍치 아픈이 치염 입냄새 등
7일이면 깨끗



7일만 닦으시면
평생 고생 안하십니다.

스님!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이가 아픈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지만 스님만은 믿으세요. 그러면 치아로 인한고통은 없으실거예요.

사람들은 이가 아플 때마다 확 뽑아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으나 이 하나 뽑을 때마다 수명이 3년씩 단축된다고 하는 미국 구강학회의 연구가 있듯이 연세가 들수록 이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미국 구강학회에서 추천한 브라이트 치약은 그동안 오랜 임상 연구 끝에 2006년 4월 28일 미합중국 발명대회 特許 大賞을 수상하였다.

브라이트 치약은 어떠한 치아질환에도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입증되고 있으며 처음 7일간은 아침 · 저녁으로 그 다음부터는 저녁에만 사용하면 구강내의 아픈 증세가 사라지고 계속 사용하면 치아가 튼튼해지는 것을 자각증상으로 느낀다. 이 치약은 사용할수록 윤택을 내며 하얀이로 美白효과까지 있는것으로 사용해본 이들의 찬사를 받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우체국 택배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가격 : 50,000원
金剛닥터사 / 전화 : 02) 2271-1441
농협 015-01-415953 최성욱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 "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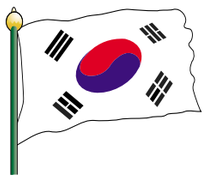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 주름등·종등
주문 받습니다
(사찰명 인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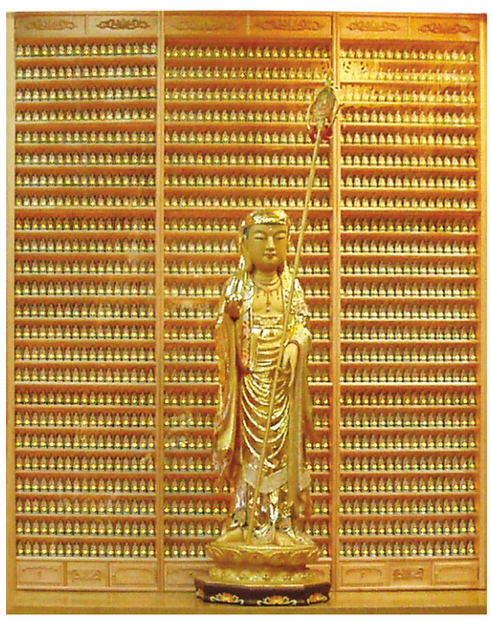


'동해 독도는 한국 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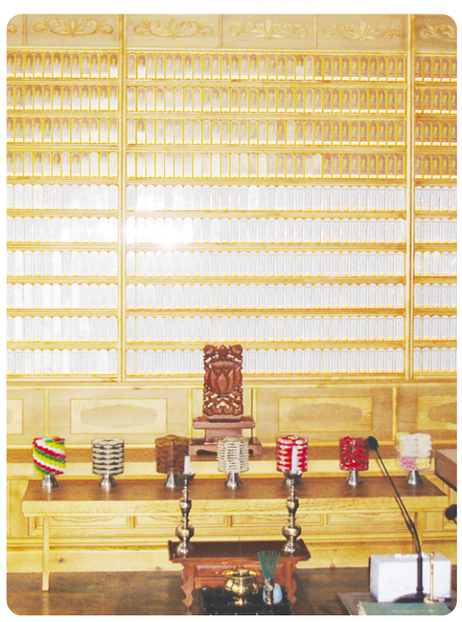
아름다운 등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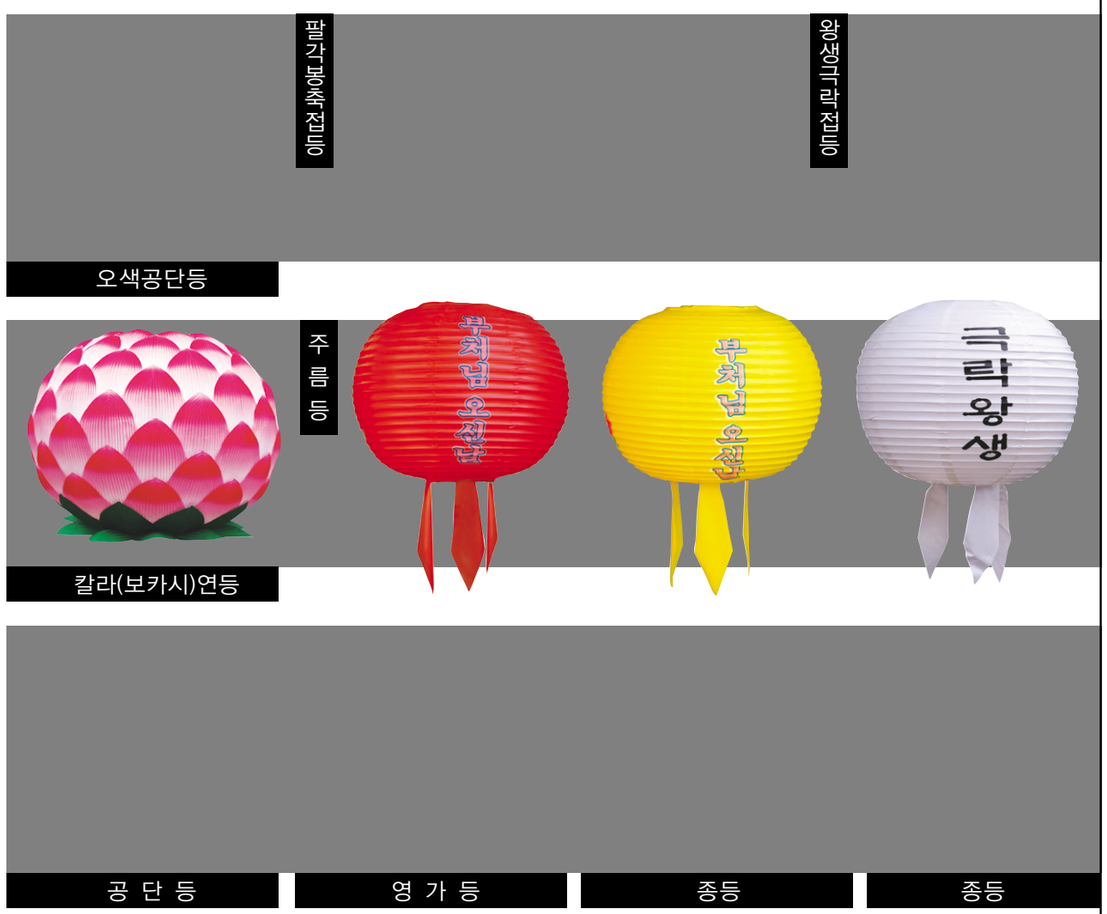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마산 금강정토사 LED 인등



용학사 극락전 영구위패



전선(케이블)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원하시는 사찰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 · 시공해 드립니다.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대구 장성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서울 화계사



대구 파계사 원통전 천장 전기공사 및 연등 시공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전선시공

연등 설치 후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찬덕연등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황금털사자의 미미소

한국 근현대 선사들의
眞面目을 선시로 읽다.



[송준영 지음 / 여시아문 펴냄 / 575쪽 / 25,000원]

선의 중흥조 경허 스님에서 고암 스님까지
12명 걸승들의 살림살이가 녹아든 선시의
'완전 이해'

〈황금털사자의 미미소〉는 한국 현대 문단에
선시의 이론을 세운 독보적 존재
송준영 시인이 12명 선사들의 삶과 수행의
핵심을 소개한 노작입니다.



구입문의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5~6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 국민 343601-04-046766 (예금주:현대불교신문사)